

2005년 적정임금인상률과 임금전망

황수경 · 강승복*

I. 2004년 임금 동향

1. 5%대의 안정적인 임금상승률 기록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2004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1~11월평균)은 2,18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상승률에 비해 약 4.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년간 계속되던 10% 전후의 고율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과 연초 상여금 지급에 의한 임금상승률 변동이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간 상승률이 5%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5%대의 낮은 명목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98년과 2001년에 이어 세번째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이처럼 낮아진 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7%(한국은행 추정) 수준으로 전년도 3.1%보다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 낮은 임금상승률을 시현한 2001년의 경제성장률 3.8%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낮은 임금상승률을 단순히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임금안정에 상당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skhwang@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 천원/월, 시간/주, %)

	2000	2001	2002	2003	1-11	2004. 1~11
임금총액	1,668 (8.0)	1,752 (5.1)	1,948 (11.2)	2,127 (9.2)	(9.7)	2,187 (5.4)
정액급여	1,182 (7.2)	1,257 (6.3)	1,408 (12.1)	1,532 (8.8)	(8.7)	1,625 (6.8)
초과급여	133 (14.1)	131 (-1.6)	126 (-3.9)	135 (7.3)	(7.4)	137 (2.0)
특별급여	352 (8.5)	365 (3.4)	416 (13.4)	460 (11.4)	(14.3)	425 (1.4)
총근로시간	47.1 (-0.9)	46.6 (-1.1)	46.0 (-1.4)	45.6 (-0.7)	(-1.0)	45.2 (-0.6)
정상근로시간	41.7 (-1.4)	41.9 (0.4)	41.8 (-0.3)	41.6 (-0.5)	(-0.9)	41.4 (-0.1)
초과근로시간	5.4 (3.5)	4.7 (-12.8)	4.1 (-11.8)	4.1 (-2.2)	(-2.2)	3.8 (-5.1)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2004년 수치는 1~11월 평균치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004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표 1), 향후 임금수준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될 정액급여 상승률이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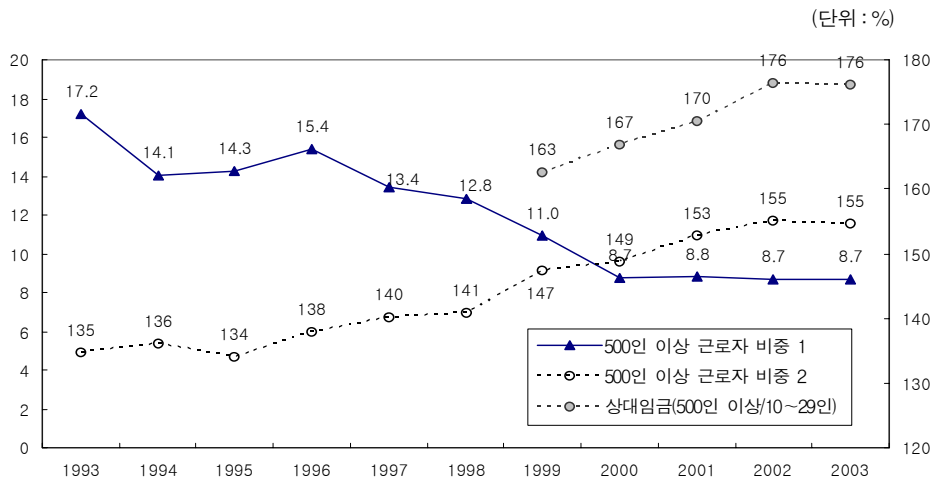
초과급여는 정액급여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률(hourly wage rates)의 상승효과가 초과근로시간 감소효과를 압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률은 5.4%포인트 하락하였고, 특별급여의 경우는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률이 무려 12.9%포인트나 하락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에서 상여금 지급을 뒤로 미루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3.6%)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1.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기업규모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

최근 몇 년간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 이슈 중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1990년대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7.2%에서 2003년 8.7%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10~29인 사업체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199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3년 현재 155 수준에 달하고 있다. 5~9인 사업체 대비 상대임금은 176에 달한다(그림 1).

〔그림 1〕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비중과 상대임금 추이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호.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러나 최근 확대되어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2004년 들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2).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2003년의 13.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상승률이 둔화되었는데, 5~9인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6.2%, 10~29인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7.8%로 전년의 상승률 5.4%와 6.2%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이에 따라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0.9%포인트, 10~29인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1.9%포인트 축소되었다.

〈표 2〉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2001	2002	2003	2004. 1~11
5~9인	1,344 (5.5) [58.1]	1,466 (9.1) [53.9]	1,543 (5.4) [50.7]	1,616 (6.2) [51.8]
10~29인	1,606 (7.3) [69.4]	1,705 (6.2) [62.7]	1,808 (6.2) [59.4]	1,914 (7.8) [61.3]
30~99인	1,680 (7.2) [72.6]	1,856 (10.5) [68.3]	2,005 (8.2) [65.9]	2,080 (6.0) [66.7]
100~299인	1,785 (4.2) [77.2]	2,067 (15.8) [76.0]	2,230 (8.5) [73.3]	2,322 (6.5) [74.4]
300~499인	2,135 (8.2) [92.3]	2,357 (10.4) [86.7]	2,474 (5.5) [81.3]	2,609 (8.4) [83.6]
500인 이상	2,313 (5.4)[100.0]	2,718 (17.5)[100.0]	3,043 (13.5)[100.0]	3,120 (6.7)[100.0]

주: 1) 2004년 수치는 1~11월 평균치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안의 수치는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상대임금.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이하 매통)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임시·일용직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의 임금실태를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통』의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임금상승률과 임금격차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5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542천원(8월 기준)으로 『매통』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4년 임금상승률은 5.2%로 『매통』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이 유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은 4.0%로 동일하며 이에 따라 임금격차는 예년과 동일한 48.6%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구분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5%, 12.1%로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2003년 61.3%에서 2004년 65.0% 수준으로 3.7%포인트 개선되었다. 2003년에 정규직에서 13.9%의 두 자리수 인상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6.0% 인상에 그쳐 임금격차가 예년에 비해 확대되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표 3〉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1	2002	2003.	2004
임금근로자 전체		1,242 (8.7)	1,325 (6.7)	1,466 (10.7)	1,542 (5.2)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49 (8.0)	1,769 (7.3)	1,958 (10.7)	2,036 (4.0)
	임시일용직	843 (7.6)	901 (7.0)	952 (5.6)	989 (4.0)
	임금격차	51.1	51.0	48.6	48.6
고용형태	정규직	1,389 (-)	1,473 (6.0)	1,678 (13.9)	1,771 (5.5)
	비정규직	866 (-)	970 (12.0)	1,028 (6.0)	1,152 (12.1)
	임금격차	62.3	65.9	61.3	65.0

주 : 1) 임금격차는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

2)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별 구분에 대해서는 『노동리뷰』 창간호 8쪽의 <표 8> 참조.

3)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이 변화한 데 기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8월 원자료.

3. 2004년 임금교섭과 협약임금인상률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경제 여건 및 노동시장 상황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교섭을 직접적인 매개로 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노동부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2004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2%로 전년 인상률 6.4%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임금인상률로서 임금교섭 타결사업장 중 24.0%가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였고, 민간부문(5.3%)보다는 공공부문(3.4%)에서, 그리고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표 4).

특히 2004년에는 전년도 고용 감소의 충격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임금안정에 관심이 모아진 한 해였다. 연초에는 노사정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안정을 통한 고용창출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업별 노조 틀을 넘어선 산별교섭에 의한 임금인상 시도,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 등도 노사간 역학관계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사업장 규모 및 노조유무별 임금교섭 타결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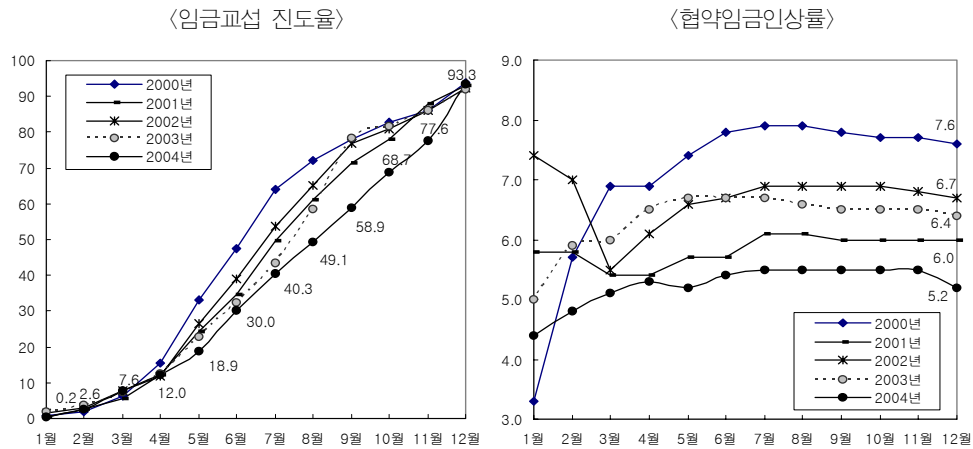
	전 체		노조 유		노조 무	
전 체	5.2	(6.4)	4.7	(5.8)	5.8	(6.6)
100~300인 미만	5.2	(6.1)	4.3	(5.3)	5.8	(6.6)
300~500인 미만	5.8	(6.3)	5.9	(6.2)	5.6	(6.5)
500~1,000인 미만	5.4	(7.6)	5.2	(7.9)	5.7	(7.0)
1,000~5,000인 미만	5.2	(6.6)	4.8	(6.6)	6.0	(6.9)
5,000인 이상	4.9	(6.1)	4.9	(6.3)	4.6	(5.3)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5,909개 사업장 대상 조사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통계임.

자료: 노동부, 『임금교섭 타결현황』, 2005. 1.

[그림 2] 월별 임금교섭 진도율과 협약임금인상률



주: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노동부, 『임금교섭타결현황』, 각호.

[그림 2]는 임금교섭 진도율과 협약임금인상률을 월별로 보여주고 있다. 왼쪽 패널의 경우 월별 임금교섭 진도율을 도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수록 교섭시기가 1개월에서 2개월 이상까지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자에 들어 ‘춘투’ 대신 ‘하투’니 ‘추투’니 하는 말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교섭타결 시점의 지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 패널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매년 협약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통제하고 나면 5월 이후부터는 교섭타결 시점과 임금인상률간에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섭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임금인상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5월에 타결된 교섭결과가 패턴 세터(pattern sett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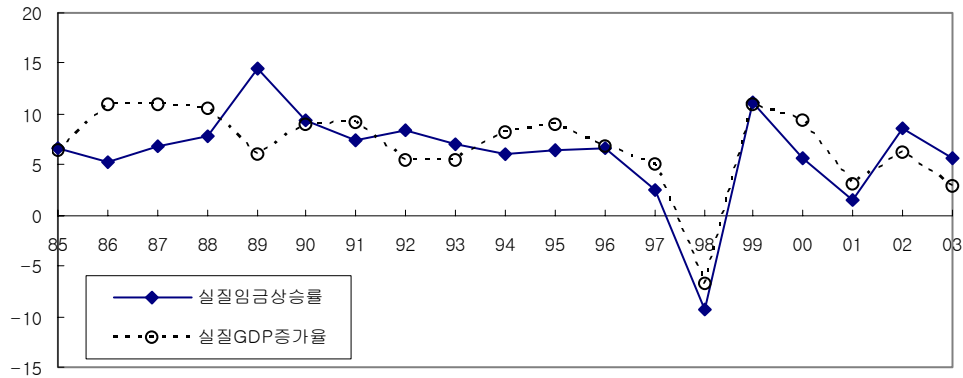
II. 적정임금인상률

1. 임금상승률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율과 거의 일치

임금은 경기변동에 대체로 순응하여 변동한다. 비록 분석시점에 따라 임금상승률과 경기변동의 방향이 불일치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경기변동(=실질GDP 상승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실질GDP증가율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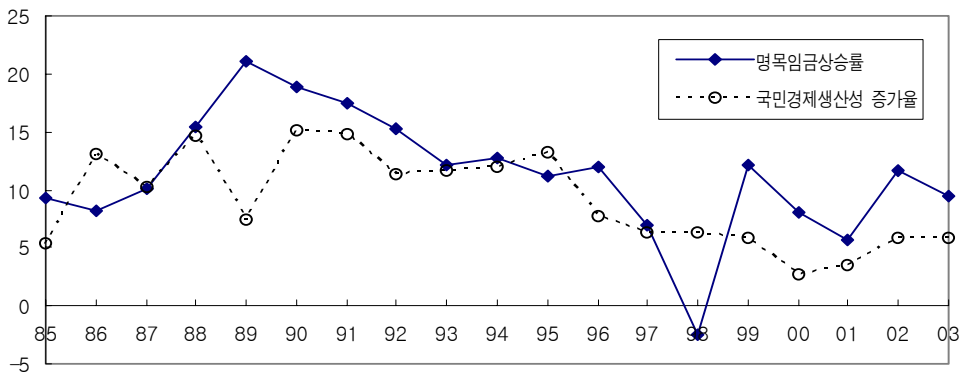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그림 4]는 임금상승률과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국민경제생산성으로 측정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대체로 조응하여 움직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았던 시기가 더 많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임금통계의 상향편의¹⁾를 고려한다면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과 그다지 괴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명목임금상승률과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1) 노동부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적정임금인상률 5.6%

결국 임금상승률의 적정성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과의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의 준거지표로서 근로자측은 생계비, 기업측은 지불 능력을 주로 강조하고 있지만, 소위 ‘생산성임금제’가 노사 모두에게 중립적이다.

생산성임금제란 임금상승률을 생산성 증가율과 연계시키는 임금인상 결정방식으로 서,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만큼 적정하게 보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에 대해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란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생산성임금제를 경제 전체에 대하여 확대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 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quad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 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

$$\dot{W} = \dot{y} + \dot{P} - \dot{L} \quad (2)$$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적정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begin{aligned}
 \text{적정임금인상률} &= \text{실질경제성장률(한국은행 4.0\%)} \\
 &+ \text{소비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3.0\%)} \\
 &- \text{취업자증가율(한국노동연구원 1.4\%)} \\
 &= 5.6\%
 \end{aligned}$$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도출된 평균적 의미의 적정임금인상률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임금교섭에서의 준거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 입각한 적정임금인상률은 경제운용의 준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유용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중립성으로 인해 노사 간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

1. 적정임금인상률과 실제 임금상승률

실제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적정임금인상률과 어느 정도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첫째, 경제 전체의 임금상승률은 개별 기업의 임금상승률을 개별 기업의 근로자수로 가중평균한 수치에 해당한다. 모든 기업이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또는 고용증가율이 상이하다면 경제 전체에 대하여 집계된 임금상승률은 적정임금인상률과는 다소 괴리될 수밖에 없다.

둘째, 앞서 언급한 대로 임금상승률 산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사통계(예,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도 임금수준 및 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규모 사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포착되는 임금상승률은 국민경제 전체의 적정임금인상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에서도 생산성임금제가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경영환경, 노사관계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매년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일치시키기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임금인상률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업의 임금체계 및 여타 인사관리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넷째, 임금인상률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쌍방 독점하에서의 노동의 가격 결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임금교섭에서의 인상률 결정에는 유일한 해가 존재할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의 교섭력에 기반을 둔 협상과정에서 인상률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여건 외에도 노사관계의 주체적, 환경적 여건,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임금인상률 결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5〉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제시율과 요구율 추이

(단위 : %)

	임금인상 제시율/요구율			협약임금인상률		명목임금 상 승 률 ⁶⁾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¹⁾	임금총액 기 준	통상임금 기 준	
1987	6.0~7.0	26.0~27.0	-	-	17.2	10.1
1988	7.5~8.5	29.3	-	-	13.5	15.5
1989	8.9~12.9	26.8	37.3	-	17.5	21.1
1990	7.0	17.3~20.5	23.3	-	9.0	18.8
1991	7.0	17.5	22.2	-	10.5	17.5
1992	4.7~6.7	15.0	25.4	6.5	-	15.2
1993	4.7~8.9 ²⁾		18.0	-	5.2	12.2
1994	5.0~8.7 ²⁾		16.4	-	7.2	12.7
1995	4.4~6.4	12.4	14.8	-	7.7	11.2
1996	4.8	12.2	14.8	-	7.8	11.9
1997	임금총액 동결	11.2	7.6~13.6	4.3	4.2	7.0
1998	인건비20%감축	4.7	5.1~9.2	-2.7	0.0	-2.5
1999	동결/삭감 ³⁾	5.5	7.7(±1.5)	2.1	2.1	12.1
2000	5.4	13.2	15.2(±2)	7.6	7.2	8.0
2001	3.5	12.0	12.7(±2)	6.0	6.0	5.6
2002	4.1	12.3	12.5(±1.5)	6.7	-	11.6
2003	4.3	11.4	11.1(±2)	6.4	-	9.4
2004	3.8/동결 ⁴⁾	10.7	10.5(±2)	5.2	-	5.8
2005	-	9.4/19.9 ⁵⁾	9.3(±2)/15.6 ⁵⁾			

주 : 1) 1989년은 노동법개정및임금인상투쟁본부, 1990~1994년은 전노협의 임금인상 요구율.

2) 1993년과 1994년은 중앙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음.

3)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4)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5) 양대 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정규/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별도로 제시함.

6) 10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상승률이며, 2004년의 수치는 1~11월 기준 동기대비 상승률임.

자료 : 한국경총 · 한국노총 · 민주노총 발표자료, 각년도.

2.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은 6.3%

2005년 실제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1990년 이후 과거 분기 실적치(1990년 1/4~2004년 3/4분기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질임금(10인 이상 사업체)의 자연대수를 실질GDP, 소비자물가, 취업자수 등 몇 가지 설명변수의 자연대수 값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실질GDP와 4분기 이전 실질임금만으로 설명되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모형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 변화(structural shift)를 포착하기 위한 구간 더미변수와 분기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고, [그림 5]는 실질임금 실적치와 회귀식에서 얻어진 각년도 실질임금 회귀값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회귀식을 이용해 추정한 실질임금 전망치를 시뮬레이션하여 명목임금으로 환산한 후 임금상승률을 계산하면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6.5%(±0.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업규모간 임금상승률 격차를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로 환산하면 2005년 명목임금상승률은 6.3%(±0.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²⁾

이는 2004년 임금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2005년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적정임금인상률 5.6%에 비해서 0.2~1.2%포인트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시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실질임금(로그값)에 대한 추정결과

	회귀계수	t값
상수항	5.123	5.169**
log(실질GDP)	0.552	5.178**
log(4분기 이전 실질임금)	0.187	1.860+
98년 이전 시기 더미	-0.054	-2.217*
1/4분기 더미	0.061	5.539**
3/4분기 더미	0.061	6.693**
4/4분기 더미	0.013	1.317
AR(1)	0.771	7.723**
\overline{R}^2	0.990	
DW	2.291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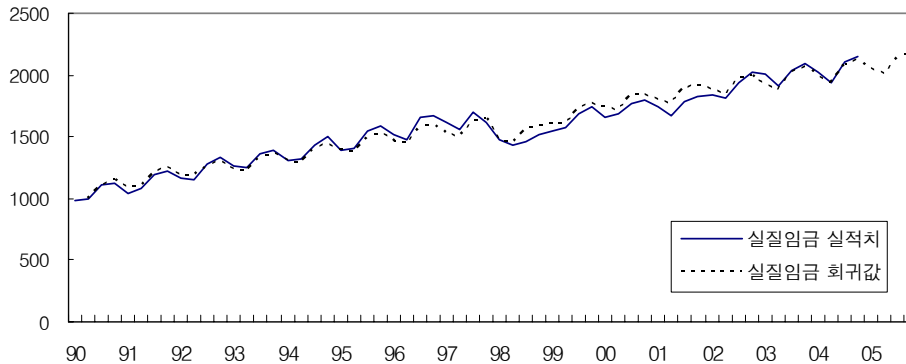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2)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임금 자료로 사용된 『매통』 자료의 특성상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규모 사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상향편의(upward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림 5] 실질임금 실적치와 실질임금 회귀값의 추이

(단위: 천원)



그러나 올해 임금상승률 전망을 가변적이게 할 중요한 변수는 지난 해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초 상여금 지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성과배분적 상여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연초 및 연말의 특별급여가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널뛰기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04년 특별급여 상승폭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반등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연초 들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망치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임금상승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디거나 설사 회복세를 탄다 해도 경기 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선이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 및 고용 불안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이 임금인상 요구율을 각각 9.4%(전년대비 1.3%포인트 감소)와 $9.3 \pm 2\%$ (1.2%포인트 감소)로 제시하여 노동계의 2005년 임금인상 요구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점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제시율도 전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노력도 임금상승률 수준보다는 임금의 결정원리 또는 근로자간 배분원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작용할 것이다. 한편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5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효과도 2005년 임금상승률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 안주엽·강승복(2002. 3), 「2002년 적정임금상승률 전망」, 『매월노동동향』.
- _____(2003. 3), 「2003년 임금상승률 전망」, 『매월노동동향』.
- 안주엽 외(2004), 「2004년 임단협 및 임금체계 변화실태 종합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강승복(2004. 3), 「2004년 임금전망 및 과제」, 『매월노동동향』.
- 한국노동연구원(2004), 「2004 KLI 노동통계」.
- 황수경·정진호(2005),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창간호.
- 황수경·정진호 외(2005),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

이인재·이연정*

I. 문제 제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많은 학문적·정책적 논쟁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가?’ 하는 논쟁의 출발점에서조차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견해는 IMF와 World Bank 등의 국제경제기구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국내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에 의하여 고용의 탄력적 조정이 매우 어려워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 견해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고용조정이 용이한 대체적 고용형태가 확산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을 중심으로 한 2차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엄격하다고 주장되는 고용보호법 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명예퇴직 형태로 고용조정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반박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 이인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eeinjae@kli.re.kr).

* 이연정=한국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clare7937@nate.com).

비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주장하는 견해나 이를 반박하는 견해 모두 그 중요한 근거로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한정된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국제비교 지표를 제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자주 사용되었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와 새로운 국제비교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재평가해 보기로 한다.¹⁾

II. 다양한 지표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측정하여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성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연성을 정량적으로 지수화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첫째는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방법이다. 이는 각국의 경영자들에게 직접 노동시장 규제가 심한지 또는 노동시장이 유연한지를 질문하여 이를 기준으로 규제 또는 유연성의 정도를 지수화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법제, 특히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여 노동시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법규제를 항목별로 평가하여 지수화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과 노동의 한계생산성간의 갭이 축소되는 속도로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의 고용조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평가지수들을 소개한다.

1. 경영자의 주관적 평가

경영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한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1)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efficiency)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단순한 국제비교를 넘어선 엄밀한 이론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인재,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참조.

Report)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간하는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이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의 세부 지표 중에는 사용자의 고용·해고의 자율성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이를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중 12번째로 사용자의 고용·해고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MD는 노동시장 규제(labor market regulations) 지표를 설정하여 고용·해고의 관행이나 최저임금제 등의 노동시장 규제가 유연성을 저해하는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IMD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 27개 국가 중에서 25위로 노동시장 규제가 매우 심한 나라로 분류된다(표 1 참조).

이렇게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F와 IMD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매우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1〉 경영자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2000	2001	2002	2003
WEF: 사용자의 해고·고용의 자율성	7위	9위	9위	12위
IMD: 노동시장 규제 지수	18위	18위	20위	25위

주: 비교대상 국가를 OECD 27개국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0-200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2004.

2. 노동시장 제도의 경직성: 노동시장법제의 비교

노동시장법제의 국제비교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OECD의 고용보호법제 지수이다. OECD는 1999년과 2004년의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를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 규제, 집단해고 규제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는 각국의 법령, 단체협약 및 고용계약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지표를 점수화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고용보호의 정도에 관해서는 해고절차의 불편도, 해고통고기간 및 해고수당, 해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다. 임시고용 규제에 관해서는 유기계약과 파견계약을 대상으로 사용사유(파견대상) 설정여부, 갱신횟수 제한, 최장 반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수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해고 규제에 관해서는 집단해고의 정의, 추가통지 요건(노조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추가적인 유예기간, 사용자의 특별비용 부담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OECD의 2003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8개 OECD국가 중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이 12위(version 2)로 나타난다. 항목별로는 정규직 고용보호 정도가 16위, 임시고용의 규제가 17위, 집단해고 규제가 3위이다. 이는 1999년의 전체 13위(version 2), 정규

직 고용법제 유연성 18위, 임시고용 유연성 17위, 집단해고 규제 4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²⁾ 결국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1990년대 후반	2003
정규고용 보호지수	18위	16위
임시고용 보호지수	17위	17위
집단해고 지수	4위	3위
종합지수(version 1)	12위	16위
종합지수(version 2)	13위	12위

주 : version 1은 정규고용 보호지수와 임시고용 보호지수의 단순평균임. version 2는 정규고용 보호지수와 임시고용 보호지수 및 집단해고 지수를 가중평균한 것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2004.

OECD의 고용보호법제 지수는 비교대상을 OECD국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 유연성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와 국민소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로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비교 지수로서는 최근에 발표된 Djankov 외(2003)의 노동시장 규제지수가 있다³⁾.

Djankov 외(2003)는 노동시장 규제를 세 가지 법적 영역, 즉 고용관계법(*employment laws*), 집단적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laws*),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s*)으로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 중 고용관계법 지수가 OECD 고용보호지수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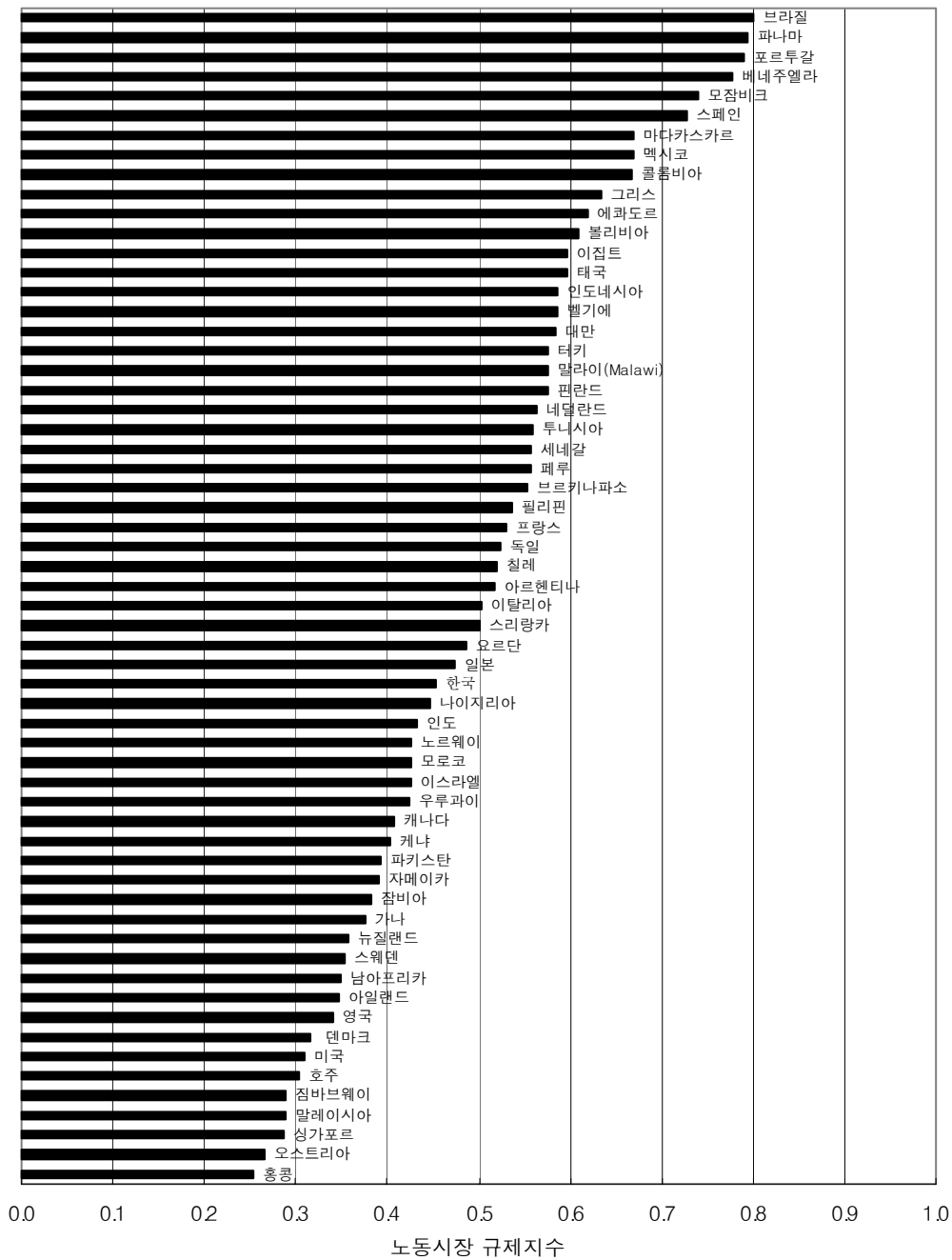
고용관계법은 개별 근로계약의 형성, 개별 근로계약의 법정최저기간(*mandatory minimum terms*)과 조건, 계약관계의 종결을 포함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고용관계법의 규정들을 (i) 대체적 형태의 고용계약(*alternative employment contract*) (ii) 근로조건(*labor standards*) (iii) 고용보장(*job security*)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수집하여 하위 지수로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용관계법 지수를 산정한다.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 형태의 고용계약은 전형계약을 대체하는

2) OECD는 1999년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 유연성 지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퇴직금을 해고수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문제, 해고통고기간의 문제 등)을 인정하여 2003년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지수 산정시 이를 반영하였다.

3) Djankov et al., "The Regulation of Labor" NBER Working Paper, 2003.

[그림 1] 노동시장 규제의 국제비교(Djankov, 2003)



세 가지 형태인 파트타임, 유기(fixed-term), 가사노동(family member)계약을 상정하고 대체고용계약 계약의 허용정도와 특징들을 고려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규제는 (i) 근로시간 규율에 있어서의 유연성(휴게, 주당 최대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야간·주말근무 제한) (ii) 비근로일에 대한 의무지급(연차, 휴가, 출산휴가 포함) (iii) 최저임금 입법 등에 관한 규제를 포함한다. 고용보장은 (i) 해고사유 (ii) 해고절차 (iii) 해고통지기간 (iv) 해고수당 (v) 해고에 대한 헌법상 보호원리를 포함하는 법적 보호를 다루고 있다.

Djankov 외(2003)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대상 국가 85개국 중 38번째로 노동시장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나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국 중 중상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대체적 고용형태와 고용보장에 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반면 (대체적 고용형태의 규제 한국 0.35, 전체 평균 0.59; 고용보장의 규제 한국 0.26, 전체 평균 0.35),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것 (한국 0.75, 전체 평균 0.63)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은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장 규제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3. 고용조정 유연성: 고용조정속도의 비교

한편 노동시장 규제라는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용조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4년 3-digit UNIDO Industrial Statistics Database를 사용하여 각국의 고용조정속도를 산출하여 보았다. UNIDO Database는 1963~2002년까지 3-digit ISIC 코드(revision 2)에 상응하는 28개 제조업 부문의 고용과 임금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에는 자료의 누락 등을 감안하여 표본기간을 1980~2002년으로 제한하고 분석국가를 60개국에 한정하였다.

고용조정속도의 산출에 이용된 기본적인 추정식은

$$\Delta e_{jt} = \lambda Gap_{jt} + \delta_{jt} + \epsilon_{jt}$$

이다. 여기에서 Δe_{jt} 는 고용변화의 로그 값이며, Gap_{jt} 는 적정고용량과 실제고용량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⁴⁾ 시간과 산업특수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δ_{jt} 산업×시간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관심이 있는 계수는 λ 로 고용조정속도를

4) Gap_{jt} 는 기업의 최적고용결정 모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인재,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참조.

나타낸다. λ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고용조정속도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는 산업의 최적고용량과 현재 고용량의 차이가 당해연도에 얼마나 조정되는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고용조정속도가 0.5라면 최적고용량과 현재 고용량 차이의 50%가 당해연도에 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λ 값이 1에 접근할수록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λ 값이 0에 접근할수록 고용조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각국의 고용조정속도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고용조정속도는 0.696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석대상 60여개국 중 9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용조정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고용조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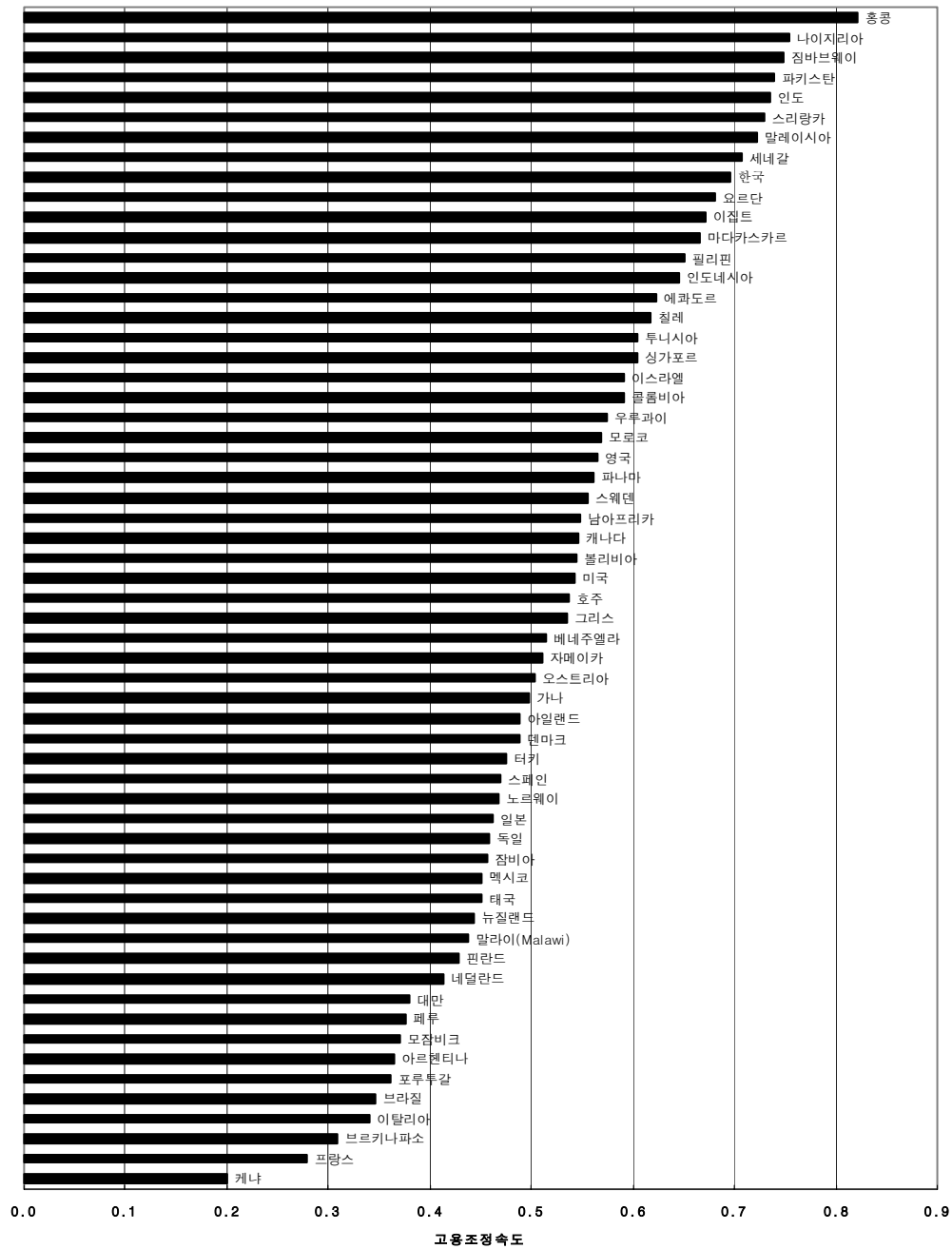
III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제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인지도가 높거나 비교적 합리적인 대표적 지수들을 소개하였다. 이들을 기초로 판단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규제수준은 소득수준이 중위인 국가들보다는 낮고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IMD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확인된다. <표 3>을 보면 국민소득이 중상위권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규제수준은 0.446으로 국민소득이 중위권인 국가들의 평균인 0.546보다는 낮지만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의 평균 0.407보다는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제의 수준은 대략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규제 정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체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원칙의 차이와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근본 철학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이 표에 따르면 노동시장 규제의 정도는 영미법계-스칸디나비아법계-독일법계-프랑스법계 국가의 순으로 규제의 정도가 높아진다. 독일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규제 정도는 독일법계 국가들 전체 평균인 0.46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법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아도 전형적인 독일법계 국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고용조정속도의 국제비교



〈표 3〉 국민소득 수준과 노동시장 유연성

	하위 25%	25%~75%	상위 25%	전체	한국
노동시장 규제 (Djankov)	0.501 (0.125)	0.546 (0.144)	0.407 (0.123)	0.500 (0.144)	0.446
고용조정속도	0.570 (0.182)	0.525 (0.111)	0.486 (0.147)	0.526 (0.141)	0.696

주: ()안은 표준오차.

〈표 4〉 법체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영미법계 국가	프랑스법계 국가	독일법계 국가	스칸디나비아법계 국가	한국
노동시장 규제	0.385 (0.089)	0.606 (0.105)	0.460 (0.119)	0.418 (0.115)	0.446
고용조정속도	0.576 (0.146)	0.499 (0.143)	0.500 (0.119)	0.485 (0.053)	0.696

주: ()안은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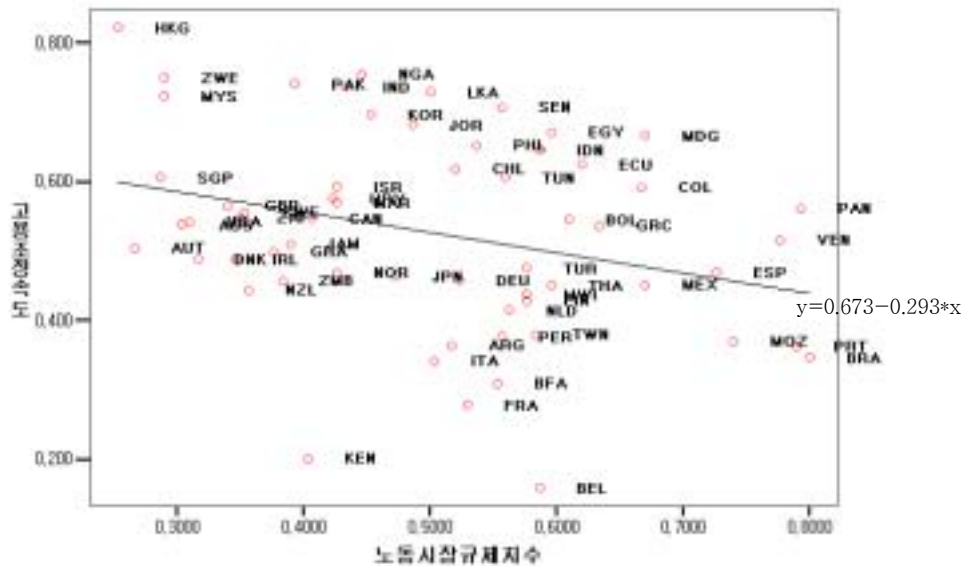
둘째, 고용조정속도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고용조정속도는 전체 평균인 0.526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고용조정을 저해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규제와 고용조정속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규제 정도에 비해서 고용조정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제 정도와 고용조정속도간의 현저한 괴리는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즉 노동시장의 규제로 설명되지 않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산업간의 부문간 이동(sectoral shift)이 급격히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만을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로 고용조정속도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규제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실효적 집행률이 낮아 노동시장 규제의 규범력이 낮고 따라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규제의 실효성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채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시장 규제와 고용조정 유연성의 차이를 기업수준에서의 임금의 경직성(wage inflexibility)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호봉제와 연공급 성격이 강한 임금체제로 인하여 임금의 가격기능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임금을 통한 가격조정보다는 수량적인 고용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고용조정 필요성에서 야기되는 마찰들이 개별 기업 수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고용조정의 “체감 경직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⁵⁾ 이러한 소위 ‘임금경직성 가설’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노동시장 규제지수와 고용조정속도의 관계



5) 이에 관한 시론적 논의로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경직성의 실태와 원인』, 2004. 참조.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김 정 한*

편집자 주

최근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을 겪으면서 대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체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이다. 이러한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결정된다. 노조의 조직형태는 각국의 자본주의 전개과정 또는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력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기술혁신의 정도, 작업장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특성, 정치적·제도적 상황 등의 객관적 요인과 노동운동의 역사, 조직형태의 발전, 노동조합운동의 전체 구도, 조직노선을 비롯한 노조운동의 이념·노선, 조직형태 발전을 위한 계획적·합목적적 실천노력 등 주체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선진국에서의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형태는 직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일반노조인 반면,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정한, 1999: 5).

본고는 노조 조직형태의 공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노조 조직형태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인 기업별 노조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기원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unghan@kli.re.kr).

II.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의의

노동조합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야만 조직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는냐는 문제, 즉 조직형태의 문제가 제기된다. 조직형태의 문제라 함은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되는 노동자를 어떠한 자격 또는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조직원리이다. 노동조합은 시장장악 능력과 그로부터 결과하는 포괄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타적인’ 원칙에 의해 조직될 수도 있고, ‘포괄적인’ 원칙에 의해 조직될 수도 있다(Beane, 1984: 29). 조직원리는 노조가 조합원을 조직함에 있어 기업별, 직종별, 기타 다른 준거에 따라 배타적으로 좁은 범위의 노동자만을 조직하느냐, 아니면 포괄적인 기준만 정해 놓고 이에 속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를 조직하느냐를 결정짓는 개념이다. 노조의 조직원리가 중요한 것은 조직원리가 조직형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조직형태의 결정, 즉 조합원의 자격(membership eligibility)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조직화의 난이(조직확대의 가능성의 대소), 조합원 이해의 균질성(조합원의 내적 결집과 통일의 정도), 노동자의 계급적 결집, 운동이념의 실현과 정치적 역량,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단체교섭 구조, 특히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력, 사용자와 그 단체와의 교섭력과 투쟁력의 대소가 결정된다(白井泰四郎, 1986: 89; 김금수, 1996: 13~18).

전술한 배타성과 포괄성의 견지에서 노동조합을 구분하면 특정직종 종사자, 그것도 일정수준 이상의 숙련공만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직종별 노조와 특정기업 또는 특정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배타적 노동조합으로, 일정산업에 속하기만 하면 직종, 연령, 숙련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와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일반노조는 포괄적 노동조합으로 구분된다.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간 경쟁이라는 현실하에서 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해치며 노동자를 기업주의로 함몰시킨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평가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기업간 경쟁과 계급적 단결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 그리고 근로조건의 향상이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연대 중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점과 판단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상 노동자의 횡적 연대보다는 기업과의 종적 결합에 유리한 조직이라는 기본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종적 결합에 유리한 기업별 노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별 노조는 기업간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기 쉬운 조직이다. 둘째,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개별 기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근로조건 문제가 노동자 자신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기업과 노조의 조직단위가 동일하고, 종업원 신분과 조합원 신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업 귀속의식을 양양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사노무정책이 비교적 용이하게 노동자의 의식 속에 파고들 수 있다. 넷째, 기업별 노조간부의 사고와 행동 또한 그들의 존재조건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연대보다는 기업과의 종적 협력에 두는 경향이 있다.

Ⅲ. 기업별 노조의 기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노조가 형성되게 된 결정적 계기로는 1980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거론된다. 개정 노조법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을 노조의 결성·운영·단체교섭 당사자로 제한하였다(제12조의 2, 제3자 개입금지). 또한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제1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강제한 것은 1980년 12월 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형성되고 어느 의미에서는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기는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은 1946년 7월 23일 군정법령 제97호(노동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공포 및 노동부 설치)를 공포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게 된다. 군정법령 제97호에 노조의 조직형태를 명문화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사실상 노동조합운동을 지도하던 중요한 문건인 노동부 통첩인 “노동조합운동 지도에 관한 건”(1947년 5월 29일 공포)에 의하면 단체협약 체결단위는 원칙적으로 “공장, 사업장 등 직장을 단위로 체결”하고 산업별 또는 그 밖의 조직단위에서의 협약체결은 이를 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박영기·김정환, 2004: 391). 노동부 통첩의 내용, 즉 기업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단체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그대로 전수된다. 미군정기 노동부 통첩과 1953년 3월 노조법은 노조 조직형태를 비록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내 단체협약제도를 강제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0년대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중앙집권적인 단체교섭체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은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졌다. 이는 노조법에 산하지부가 독자적인 활동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3년 4월 17일 전문개정된 노조법은 산별 노조의 산하지부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며(제13조 제3항), 산하지부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제18조), 규약을 제정, 변경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제19조 제1항 3호) 규정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산하지부가 단체협약 체결 또는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산하지부의 대표자에게도 단체교섭 권한을 보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개정 노조법은 산하지부의 쟁의행위를 산별노조의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지부에게 독자적인 교섭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단체교섭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요인이 되었다(이원보, 2004: 166~170; 275~276).

1970년대 노조 조직형태는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973년 3월 13일 개정된 노조법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노동단체(산하지부)”라는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산업별 조직체계는 기업별 조직체제로 환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노조 조직형태는 산업별 조직체계를 유지하였지만, 단체협약은 전반적으로 기업별로 체결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노조 조직형태는 비록 중앙집권적인 산별조직체계를 유지하였지만, 단체협약은 기업별 협약이 지배적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 12월 31일의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조직형태는 기업별로 강제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또한 연합단체에의 위임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별 노조체계와 기업별 협약체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게 되었다.

19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현재에도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협약체계가 지배적인 현상이다. 비록 보건의료산업, 금속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여 동일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협약의 내용과 지부 또는 분회가 인사, 재정 및 의사결정의 사실상의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협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V. 기업별 노조의 실태 및 구조적 한계

노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따르면 기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과 더불어 배타적인 조직형태이다. 직업별 노조는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업 또는 직종에서 소정의 기능수준에 달한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별 노조보다도 더욱 배타적인 노조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조직원리 면에서 볼 때 가장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기업별 노조는 우리나라에서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성되고 고착화되어온 노조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수나 조합원수 기준으로 보면 기업별 노조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1997년 3월 13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제정에 따른 환경변화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산별노조 건설이 많은 조직에서 추진되어 조합원수 기준으로 16.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산별노조가 건설되어 있는 보건의료산업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속산업노조 등의 단체교섭 형태를 보면 중앙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부(금융산업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지회(금속산업노조)가 사실상 노조 인사 및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교섭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부 또는 지회의 기능 및 역할이 과거의 기업별 노조와 유사하다. 그리고 소산별노조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별 노조의 기원과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지배적인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로서 노조의 조직원리에서 보면 가장 폐쇄적인 조직형태이다. 현 단계 기업별 노조가 안고 있는 구조적 특징 및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별 노조는 필연적으로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과편화를 초래하여 그 결과로서 회사의존형 노조재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2.7%이지만 조합원수 비중은 61.6%에 이른다.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66.5%, 전체 조합원수의 8.7%에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 1개소당 평균 조합원수는

〈표 1〉 노동조합 조직단위(2003년 12월 말)

(단위 : 개소, 명, %)

	노동조합수	조 합 원 수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6,257(100.0)	1,549,949(100.0)	1,223,330	326,619
단위노조	6,212(99.3)	1,290,050(83.2)	1,065,086	224,964
기업 및 지역단위노조	5,752(91.9)	1,065,549(68.7)	903,180	162,369
지부 및 분회	460(7.3)	224,501(14.5)	161,906	62,595
연합단체	45(0.7)	259,899(16.8)	158,244	101,655
총연합단체	2(0.0)	-	-	-
연합단체	34(0.5)	-	-	-
전국규모 산별노조	9(0.1)	259,899(16.8)	158,244	101,655

주 : 1)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 :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별연맹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2) 지부·분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된 노동조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2004. 12.

247.7명에 지나지 않는다.

〈표 2〉 조합원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

조합규모	노조수	조 합 원 수		
		전 체	남 성	여 성
1~49인	2,995(47.9)	55,969(3.6)	44,586(3.6)	11,383(3.5)
50~99인	1,099(17.6)	78,871(5.1)	64,292(5.3)	14,579(4.5)
100~299인	1,393(22.3)	231,695(15.0)	195,069(15.9)	36,626(11.2)
300~499인	250(4.0)	94,985(6.1)	76,292(6.2)	18,693(5.7)
500~999인	195(3.1)	133,337(8.6)	106,367(8.7)	26,970(8.3)
1,000~4,999인	140(2.2)	273,856(17.7)	218,848(17.9)	55,008(16.8)
5,000인 이상	34(0.5)	681,236(43.9)	517,876(42.3)	163,360(50.0)
조합원수 무 또는 불명	151(2.4)	0	0	0
전 체	6,257(100.0)	1,549,949(100.0)	1,223,330(100.0)	326,619(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2004. 12.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면에서의 자주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사용자로부터의 편의제공이나 경비원조가 곧바로 노동조합 자주성의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의 편의제공이나 경비원조를 당연시하여 이를 타개할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자주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노조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물론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집기, 전화·전기, 수도, 방송, 차량편의뿐 아니라 심지어 사무용품과 소모품, 출장비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합원 규모별로 노조의 사무집기 등 비품의 조달방식을 보면 모든 규모에서 회사로부터 일부 보조 또는 전적으로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비중이 전적으로 노조예산에서 충당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비중은 규모가 클수록 높아 대규모 노조일수록 비품 등의 회사의존도가 높은 편이다(표 3 참조).

〈표 3〉 조합원 규모별 노조 사무집기 등 비품 조달방식

(단위: 개소, %)

	노조예산에서 충당	회사에서 일부 보조	전적으로 회사 제공
50인 미만	21(32.3)	30(46.2)	14(21.5)
50~99인	22(25.3)	38(43.7)	27(31.0)
100~499인	64(21.5)	149(50.2)	84(28.3)
500~999인	12(18.2)	34(51.5)	20(30.3)
1,000인 이상	11(20.8)	30(56.6)	12(22.6)
전 체	130(22.9)	281(49.5)	157(27.6)

자료: 김정환,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2002. 12, 116쪽.

또한 노조간부의 출장시 출장비 지급주체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노조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약 20%의 노조는 회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아 노조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조합원 규모별 노조간부의 출장비 조달방법

(단위: 개소, %)

	노조예산에서 충당	회사에서 일부 보조	전적으로 회사 제공
50인 미만	51(78.5)	11(16.9)	3(4.6)
50~99인	69(79.3)	15(17.2)	3(3.5)
100~499인	216(72.5)	66(22.1)	16(5.4)
500~999인	49(74.2)	15(22.7)	2(3.0)
1,000인 이상	43(81.1)	9(17.0)	1(1.9)
전 체	428(75.2)	116(20.4)	25(4.4)

자료: 김정환,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2002. 12, 116쪽.

특히 조직규모의 영세성은 2007년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전면 금지될 경우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전체 노동운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합원 100인 이하인 노조에서는 조합비로는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100명인 경우 연간 조합비는 1,824만원,

노조 전임자 1명의 총액임금은 2,676만원으로 추정되어 조합비만 가지고는 전임자 1명을 둔다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50명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300명인 경우에는 연간 조합비로 전임자 1.84명, 500명 규모 3.07명, 1,000인 규모 6명 수준이지만, 5,000인 규모 30명, 10,000인 규모 60명으로 규모가 클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임자 임금 및 조합비 비교

(단위: 천원, 명)

조합원수	연간 조합비(A)	전임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B)	조합비로 총당할 수 있는 전임자수(A/B)
10인	1,740 (1,450×1%×10인×12월)	21,696 (1,808×12월)	0.08
50인	8,862 (1,477×1%×50인×12월)	24,060 (2,005×12월)	0.37
100인	18,240 (1,520×1%×100인×12월)	26,760 (2,230×12월)	0.68
300인	67,284 (1,869×1%×300인×12월)	36,480 (3,043×12월)	1.84
500인	112,140 (1,869×1%×500인×12월)	36,480 (3,043×12월)	3.07
1,000인	224,280 (1,869×1%×1,000인×12월)	36,480 (3,043×12월)	6.15
5,000인	1,121,400 (1,869×1%×5,000인×12월)	36,480 (3,043×12월)	30.74
10,000인	2,242,800 (1,869×1%×10,000인×12월)	36,480 (3,043×12월)	61.48
30,000인	6,728,400 (1,869×1%×30,000인×12월)	36,480 (3,043×12월)	184.44

주: 1) 임금총액에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급여 포함.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 제외.

2) 조합비는 정액급여의 1%로 추산함.

3) 조합비와 임금총액은 노조가입률을 고려하여 조합원 10인은 종업원 10~29인, 50인은 30~99인, 100인은 100~299인, 300인 이상은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였음.

이상의 분석은 노조의 수입이 조합비만 있고, 또 조합비를 전액 노조전임자 임금에 총당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실제로 단위노조의 조합비 수입은 조합비와 수익사업에 따른 잡수익으로 구성된다. 수익사업은 노조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성 결여 등으로 노조의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조의 지출구조는 크게 상급단체에의 의무금, 사업비 및 운영비로 구분된다. 조합비를 전액 전임자 임금에만 총당하는 경우 상급단체에 대한 의무금 납부는 물론 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사업마저 전혀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한 연구에 의하면 조합원 규모별 노조운영시 조합비 평가를 보면 (아주) 부족하다는 비중이 500인 미만 규모에서는 50% 이상, 500~999인 규모에서는

34%, 1,000인 이상 규모에서는 38%로 나타났다. 조합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현행 조합비는 평균 15,000원이지만, 노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합비는 43,000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김정환, 2002: 115).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300인 미만인 노조에서는 조합비만으로는 노조전임자를 전혀 둘 수 없으며, 300인 이상인 노조에서도 노조전임자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노동조합에서 100인 미만 노조의 비중이 65.5%, 300인 미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87.8%에 이르고 있고,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조합비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은 노조활동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공장노조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간부문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조합비 62억 중 45억(전임자를 90명, 조합원 평균 연봉 5천만원으로 계산)이 노조전임자 인건비로 충당하면 나머지 17억 중 상급단체 맹비 12억(2004년 기준)을 제외하면 5억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수의 축소, 재정의 효율적 사용, 상급단체 의무금 납부액 감소 등의 자구노력이 전개되겠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기업별 노조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양극화는 노동운동의 분열과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에 비해 노동자들의 의식을 경제주의화시키고 보수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¹⁾, 고용안정성 등에서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근로조건 등에서의 현격한 격차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으로 심리적 계약관계가 붕괴되어 장기결제형 노사관계 대신 단기결제형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대공장노조의 이기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공장 노조의 이기주의는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1) 기업규모별로 노동비용 총액을 보면 1987년의 경우에는 30~99인 규모 457.4천원, 300~499인 규모 464.7천원, 1,000인 이상 규모 473.9천원으로 기업규모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어 30~99인 규모의 노동비용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95년의 경우 300~499인 121.5, 1,000인 이상 규모 157.6으로 확대된 다음, 2003년에는 각각 140.1과 185.6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노동조합 규모의 양극화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맞물려 대공장 노조의 도덕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덕성 위기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양극화가 초래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기아자동차 사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예산운영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노조집행부가 불신임 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이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조합원 규모별 예산운용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불신임 경험

(단위: 개소, %)

	불신임 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이 있다	불신임이나 자진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직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불신임 당한 경험이 없다
50인 미만	3(4.6)	1(1.5)	61(93.9)
50~99인	8(9.3)	2(2.3)	76(88.4)
100~499인	25(8.4)	14(4.7)	258(86.9)
500~999인	7(10.6)	2(3.0)	57(86.4)
1,000인 이상	6(11.3)	6(11.3)	41(77.4)
전 체	49(8.6)	25(4.4)	493(87.0)

자료: 김정환,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2002. 12, 122쪽.

또한 조합원수 5,000명 이상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0.5%인 3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공장노조나 산별노조의 경우 최근 일부 상급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파간의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나 출세우기 등 조직내 갈등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기존 노조 외에 제2, 제3의 노조가 출범하여 노동운동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셋째, 기업별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여 노동운동의 힘의 약화와 노동운동의 분열을 가져온다.

<표 7>에서와 같이 2004년 8월 현재 임시직과 일용직, 이른바 비정규직의 조합원 비중은 각각 1.5%와 0.4%로 상용직의 22.5%에 미치지 못한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인도 상용직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배제된 경우(7.7%)보다 자발적 미가입의 경우(8.3%)가 더 많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각각 5.2%, 3.5%로 자발적 미가입의 경우인 1.3%, 0.3%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²⁾.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노조의 반대로 임금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고용유연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

2) 김정환·문무기·전재식(2001: 46)의 분석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비정규직을 비조합원으로 하는 비중이 전체 분석대상협약의 41.3%에 이르고 있다.

운명을 하고 있다. 고용유연성의 확보는 곧 비정규직의 증대로 이어진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기존 노조는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하나의 기업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혼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노동운동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표 7〉 종사상 지위별 노조가입 현황

(단위 : 천명, %)

		무노조 사업체	유노조 사업체		
			가입대상 배제	자발적 미가입	노동조합원
2003. 8	전 체	11,022 (77.9)	786 (5.6)	727 (5.1)	1,615 (11.4)
	상용근로자	4,526 (62.6)	511 (7.1)	661 (9.1)	1,538 (21.3)
	임시근로자	4,515 (92.7)	230 (4.7)	58 (1.2)	69 (1.4)
	일용근로자	1,981 (97.1)	44 (2.2)	8 (0.4)	8 (0.4)
2004. 8	전 체	11,143 (76.4)	918 (6.3)	708 (4.9)	1,815 (12.4)
	상용근로자	4,730 (61.4)	1,126 (7.7)	1,212 (8.3)	3,286 (22.5)
	임시근로자	4,430 (92.0)	757 (5.2)	186 (1.3)	218 (1.5)
	일용근로자	1,983 (95.7)	516 (3.5)	48 (0.3)	58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또한 기업별 노조는 기업별 협약체제를 지향하고 특히 정규직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됨으로써 동종산업의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협약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여 협약적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노동운동의 발언권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협약 적용률의 저하는 산별교섭의 성공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별노조 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노조 조직률과 협약적용률을 보면 노조 조직형태가 산별노조인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을 훨씬 상회하는 협약적용률을 보이는 반면,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조직률과 비슷하거나 약간 하회하는 협약적용률을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프랑스의 경우 조직률(2000년)은 10%에 지나지 않지만, 협약적용률은 90%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조직률은 11%이지만, 협약적용률은 10%에 달한다는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전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사회적 발언권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 OECD 주요 국가의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단위 : %)

	노조조직률			협약적용률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호 주	48	40	25	80+	80+	80+
프랑스	18	10	10	80+	90+	90+
독 일	35	31	25	80+	80+	68+
일 본	31	25	22	25+	20+	15+
한 국	15	17	11	15+	20+	10+
스웨덴	80	80	79	80+	80+	90+
영 국	51	39	31	70+	40+	30+
미 국	22	15	13	26	18	14

주 :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교섭단위에 속한 노동자의 약 20%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추정된 값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145.

넷째, 기업별 노조하에서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사무직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체 조합원 중에서 제조업 조합원의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통계청, 2004. 8).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생산직은 유니언숍제, 사무직의 경우에는 대리 이하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오픈숍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김정한 외, 2001: 35). 사무관리직의 경우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생산직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예년과는 달리 생산직과는 별도로 사무관리직 노조를 결성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에 사무관리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사무관리직을 조합원의 범위로 한 경우에도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직종간 노노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노조의 기원은 해방 이후인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기업별 노조 및 기업별 협약체제는 오랜기간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노동조합은 대부분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어 기업별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조직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협약체제는 결과적으로 노조규모의 영세성과 파편화를 초래하여 회사의 존형 재정을 초래하고, 기업별 노조하에서 대기업·정규직·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각각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운동과 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운동 전체의 힘의 약화와 아울러 노동운동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한다.

먼저 기업별 노조는 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생산방식이 대량생산방식에서 유연한 질적 생산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 산업화 후기시대에 적합한 조직형태라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 대량생산방식이 지배적이고 미·반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던 산업화 중기에서는 초기기업별 조직인 산별체제가 적합하였으나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로 확연히 구분짓는 유연생산방식하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이동임, 1997).

기업별 노조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간의 계급연대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된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미조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에 대한 조직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적·재정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고, 교섭력이 약하며, 특히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배·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rai, 1983: 140~141).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일부 학자들은 기업별 노조를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를 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가입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직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임영일, 1995: 55). 기업별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사명을 사회적 차치에서 구할 경우 기업별 조합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른바 근로자들의 기업별 단체인 기업별 조합은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김형배, 1997: 474~477).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노조이든 산별노조이든간에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조직형태가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낫다고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노동운동에게 주어진 사회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조 스스로 그 사명완수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정의라는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진영이 기업별 노조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금수(1996), 「산별노조 체제구축을 위한 조직론적 관점」, 김금수 외,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정환(2002. 1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Ⅱ)』,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93~132쪽.
- 김정환(1999), 『단체교섭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환·문무기·전재식(2001), 『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3.
- 박영기·김정환(2004), 『한국노동운동사 ③ - 미군정기의 노동관계와 노동운동 1945~1948』, 지식마당.
- 이동임(1998. 12), 「임금교섭 형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독일」, 『산업경제』, 제9집, 경상대학교.
- 이원보(2004), 『한국노동운동사 ⑤ -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1961~1987』, 지식마당.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12),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 白井泰四郎·花見 忠·神代和欽(1976), 『労働組合讀本』, 東洋經濟新聞社.
- Bean, Ron(1994),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 2nd ed., Routledge.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문화콘텐츠산업의 직무분석 사례

-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이 상 민*

지난 2002년 출판, 방송영상,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캐릭터, 공예 등 9개 장르의 문화산업 매출액은 39조 2천억 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57%를 차지하였다(문광부, 『문화산업백서』, 2003). 향후에 문화콘텐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급속하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작과 지식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인력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인력구조와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한 장르인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시도하여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향후 문화콘텐츠산업의 타장르를 위한 직무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I. 기존 연구 고찰 및 직무분석틀

전통적인 직무분석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안정적인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모형, 직업명세서, 직무명세서, 과업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혁신과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산업에 속해 있는 직무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직무의 내용과 종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방식의 직무분석은 큰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수행자의 필요역량은 과업의 내용과 종류에 비하여 안정적이므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위한 새로운 직무분석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sangmin@kli.re.kr).

〈표 1〉 전통적 직무분석틀

직무 정의		직무에 관한 축약적 설명
직무 모형		과업군 및 개별 과업
직업명세서	직무수행조건	최소교육정도, 적정교육훈련기관, 최소교육훈련기간, 적정연령, 견습기간, 신체제약조건, 직업 적성
	인력양성 실태	양성기관, 취업경로, 채용방법, 직업활동 영역, 임금수준, 경력경로
	작업환경조건	작업조건, 안전 및 위생
직무명세서	직무 개요	
	과업 일람표	과업난이도, 과업중요도, 과업빈도, 교육훈련 필요도, 교육훈련 적용 방법(교실훈련, 직무보조자료, 현장훈련, 재훈련)
	소요장비 일람표	
과업명세서		과업명, 성취수준, 과업요소,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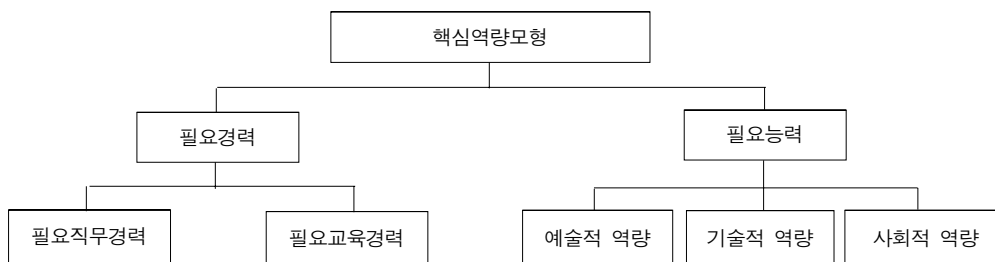
직무수행자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밝히는 데에 초점으로 두게 된다. 여기서 핵심역량이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직무분석은 ‘무엇이’ 수행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직무수행자 중심의 직무분석은 ‘어떻게’ 목표가 실현되는가 혹은 ‘어떻게’ 직무가 수행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무수행자 중심의 새로운 직무분석은 다음 <표 2>와 같은 틀로 이루어진다.

〈표 2〉 직무수행자 중심의 직무분석 조사표

직무명					
직무의 정의					
직무 모형	과업군	개별 과업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직급 구분		책임급과 실무급의 존재여부 확인			
직무 특성 (5점 척도)	창작성				
	교육가능성				
	정형화				
	협업필요성				
직무수행 핵심역량	필요 경력	필요직무경력			
		필요교육경력			
	필요 능력	예술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의 상대적 중요성 및 사회적 역량의 내용 명시			

먼저 직무명은 회사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가장 대표적인 명칭을 정하고, 이외에 현장에서 불리는 명칭들을 조사한다. 직무 정의는 해당 직무의 과업 내용과 성취수준을 대표적이고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무모형에서는 해당 직무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을 과업군으로 묶는 형태로 도출한다. 즉 직무-과업군-과업의 시스템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직급 구분에서는 해당 직무에서 위계적 구조인 책임급과 실무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작성, 교육가능성, 정형화, 협업필요성 등 4가지 지표를 5점 척도(매우 그러하다 - 그러하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로 표시하게 된다. 창작성이란 일이 독창적인 표현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를 뜻하고, 교육가능성이란 학교 교육 혹은 직업교육을 통하여 과업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표시한다. 정형화란 일에 얼마나 일정한 형식과 틀이 존재하는가를 의미하며, 협업필요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직무수행 핵심역량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핵심역량모형



핵심역량은 크게 필요경력과 필요능력으로 구분되는데, 필요경력은 다시 필요직무경력과 필요교육경력으로, 필요능력은 예술적 역량, 기술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세분된다. 필요직무경력이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경험을 말하고, 필요교육경력에는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이수해야 할 내용을 뜻한다. 필요능력에서 예술적 역량(*artistic capability*)이란 문화콘텐츠의 창작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기술적 역량(*technical capability*)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툴(*tool*)을 다룰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들을 작품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y*)에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흥행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능력(*business capability*)과 직무수행자간의 의사소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apability*)이 포괄된다.

II. 조사개요

애니메이션 직무를 총 15개로 나누어 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3일~12월 3일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대기업, 중규모 기업, 소규모 기업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편의추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석대상 직무와 직무별 심층면접 대상자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심층면접 대상 직무와 면접 대상자수

	심층면접 대상자수	백분율
시나리오작가	2	5.0
총감독	2	5.0
프로듀서	4	10.0
캐릭터디자이너	5	12.5
스토리보드작가	4	10.0
레이아웃	3	7.5
원화작가	4	10.0
배경작가	2	5.0
색채	2	5.0
채색	1	2.5
동화작가	1	2.5
스캐닝	3	7.5
촬영	2	5.0
편집	3	7.5
화이널체킹	2	5.0
합계	40	100.0

III. 애니메이션 직무체계

애니메이션 직무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직무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직무체계는 수평적인 구분과 수직적으로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수평적인 직무체계인 직군은 크게 기획직군, 작화직군, 기술직군으로 구분된다.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기획직군은 전공정을, 작화직군은 주공정을, 기술직군은 후공정을 담당하게 된다. 수직적인 직무체계인 직급은 크게 책임급과 실무급으로 구분된다. 책임급은 실무급과 비교하여 숙련도

와 문제해결 능력이 높으며, 실무급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애니메이션 직무의 수직적·수평적 체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애니메이션 직무 체계

	A. 기획직군	B. 작화직군	C. 기술직군
책임급	1-1. 시나리오작가 2-1. 총감독 3-1. 프로듀서 4-1. 캐릭터디렉터 5-1. 스토리보드작가	1-1. 레이아웃 2-1. 원화작가 3-1. 배경감독 4-1. 색채설계 5-1. 채색 6-1. 동화작감	1-1. 기술감독 2-1. 촬영감독 3-1. 편집감독
실무급	1-2. 구성작가 2-2. 연출감독 3-2. 라인프로듀서 3-3. 화이널체킹 4-2. 캐릭터디자이너	2-2. 원화작가 3-2. 배경작가 4-2. 색채 지정 6-2. 동화작가	1-2. 스캐닝 1-3. 렌더링 & 라이팅 2-2. 촬영기사 3-2. 편집기사

심층면접의 결과를 근거로 각 직군별 직무 특성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먼저 표본 전체의 창작성 평균값은 4.15로 ‘높다’와 ‘매우 높다’ 사이에 위치한다. 창작성은 기획직군 평균값이 4.6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작화직군 4.00, 기술직군 3.25 순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ANOVA)에 따르면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전체의 교육가능성 평균값은 3.36으로 ‘보통이다’와 ‘높다’ 사이에 위치한다. 교육가능성은 기술직군 3.81, 작화직군 3.42, 기획직군 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본 전체의 정형화 정도 평균값은 2.73으로 ‘낮다’와 ‘보통이다’ 사이에 위치한다. 정형화 정도는 기술직군 3.50, 기획직군 2.71, 작화직군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분산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본 전체의 협업 필요성 평균값은 3.79로 ‘보통이다’와 ‘높다’ 사이에 위치한다. 협업 정도가 가장 높은 직군은 기획직군으로 평균값은 4.42이며, 그 다음으로 작화직군 3.67, 기술직군 2.50 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직무수행자의 필요능력과 관련하여 직군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요능력을 1로 보고 예술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비교하였을 때, 예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은 표본 전체 평균값이 0.49. 직군별로 비교해 보면 기획직군 0.60, 작화직군 0.46, 기술직군 0.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무특성 및 예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의 직군별 평균값

		창작성	교육가능	정형화	협업정도	예술역량
기획직군	평균	4.6316	3.1316	2.7105	4.4211	.5966
	사례수	19	19	19	19	16
	표준편차	.68399	.99780	.75122	.83771	.20719
작화직군	평균	4.0000	3.4167	2.2500	3.6667	.4577
	사례수	13	12	12	12	13
	표준편차	1.15470	1.37895	1.21543	1.37069	.23990
기술직군	평균	3.2500	3.8125	3.5000	2.5000	.3388
	사례수	8	8	8	5	8
	표준편차	1.90863	1.30760	1.51186	1.51186	.22618
전 체	평균	4.1500	3.3590	2.7308	3.7949	.4920
	사례수	40	39	39	39	37
	표준편차	1.25167	1.18626	1.14620	1.36072	.23984

〈표 5〉 직군별 직무특성 및 예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의 분산분석 결과

		편차제곱합 (Sum of Squares)	자유도 (df)	편차평균제곱 (Mean Square)	F값	유의도 (Sig.)
창작성*직군	집단간(Between Groups)	11.179	2	5.589	4.143	.024
	집단내(Within Groups)	49.921	37	1.349		
	총 계	61.100	39			
교육가능*직군	집단간(Between Groups)	2.668	2	1.334	.945	.398
	집단내(Within Groups)	50.806	36	1.411		
	총 계	53.474	38			
정형화*직군	집단간(Between Groups)	7.515	2	3.758	3.190	.053
	집단내(Within Groups)	42.408	36	1.178		
	총 계	49.923	38			
협업정도*직군	집단간(Between Groups)	21.061	2	10.530	7.690	.002
	집단내(Within Groups)	49.298	36	1.369		
	총 계	70.359	38			
예술역량*직군	집단간(Between Groups)	.379	2	.189	3.798	.032
	집단내(Within Groups)	1.693	34	.050		
	총 계	2.071	36			

직군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직무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창작성과 협업 정도는 1% 수준에서, 교육가능성과 정형화 정도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의 창작성이 높을수록 협업 정도는 높아지며, 직무의 교육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정형화 정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직무특성과 예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창작성과 예술적 역량, 협업 정도와 예술적 역량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직무의 창작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직무의 협업필요성이 증가할수록 기술적 역량에 비하여 예술적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직무특성 관련 변수 및 예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창작성	교육가능	정형화	협업정도	예술역량
창작성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1	-.084	-.303	.430**	.556**
	유의도(양측검정(2-tailed))	.	.609	.060	.006	.000
	N(사례수)	40	39	39	39	37
교육가능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084	1	.368*	-.238	-.195
	유의도(양측검정(2-tailed))	.609	.	.021	.144	.255
	N(사례수)	39	39	39	39	36
정형화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303	.368*	1	-.138	-.162
	유의도(양측검정(2-tailed))	.060	.021	.	.404	.347
	N(사례수)	39	39	39	39	36
협업정도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430**	-.238	-.138	1	.575**
	유의도(양측검정(2-tailed))	.006	.144	.404	.	.000
	N(사례수)	39	39	39	39	36
예술역량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556**	-.195	-.162	.575**	1
	유의도(양측검정(2-tailed))	.000	.255	.347	.000	.
	N(사례수)	37	36	36	36	37

주 : * 상관관계는 1% 수준에서 유의함(2-tailed).

** 상관관계는 5% 수준에서 유의함(2-tailed).

IV. 개별 직무의 분석 사례: 시나리오 작가

개별 직무분석의 사례로 시나리오 작가의 직무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시나리오 작가의 직무분석 결과

직무명	시나리오 작가				
직무의 정의	줄거리(스토리)와 인물(캐릭터)을 개발하여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부수적으로 콘티, 연출, 녹음에 관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				
직무모형	과업군	개별 과업			
	1) 기획	① 기획서 작성 ③ 그림 방식 결정		② 제작방식 결정 ④ 머천다이즈 개념 결정	
	2) 스토리 개발	① 전체 줄거리 작성 ③ 시놉시스 작성		② 캐릭터 성격 설정	
	3) 시나리오 작업	시나리오 작성 기법과 영상표현기법 적용			
	4) 부수적 과업군	① 시나리오 수정 ③ 홍보 카피 상의		② 경우에 따라 녹음 대본 작성	
직무특성 (5점 척도)	창작성	<div><div>전혀 그렇지 않다</div><div>그렇지 않다</div><div>보통이다</div><div>그렇다</div><div>매우 그렇다</div></div> <div><div>부수적 과업군</div><div>시나리오 작성</div><div>기획 스토리 개발</div></div>			

직무특성 (5점 척도)	교육가능성		<div><div>전혀 않다</div><div>그렇지 않다</div><div>그렇지 않다</div><div>보통이다</div><div>그렇다</div><div>매우 그렇다</div></div> <div>기획 스토리 개발 시나리오 작성 부수적 과업군</div>				
	정형화		<div><div>전혀 않다</div><div>그렇지 않다</div><div>보통이다</div><div>그렇다</div><div>매우 그렇다</div></div> <div>스토리 개발 기획 시나리오 작성 부수적 과업군</div>				
	협업필요성		<div><div>전혀 않다</div><div>그렇지 않다</div><div>보통이다</div><div>그렇다</div><div>매우 그렇다</div></div> <div>기획 스토리 개발 부수과업 시나리오 작성</div>				
필요직무경력			구성작가 1년, 견습 시나리오 작가 2년 정도				
필요교육경력			중견 시나리오 작가 문화에서 직업교육, 대학기간 중에 현업 경험이 중요, 학교교육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인생 경험이 중요				
직무수행 핵심역량	필요능력	예술적 역량	77 %	스토리를 꾸며내는 능력, 독특한 재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 시나리오 작가는 직접경험, 간접경험(취재), 상상력 중에서 상상력이 제일 중요			
		기술적 역량	23 %	시나리오 작성 기법 활용능력			
		전 체	100 %				
		사회적 역량	머천다이징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본인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관하여 지적을 하면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PD, 감독, 디자이너의 비난에 대하여 여유 있게 받아들이 수 있는 능력				

개별 직무의 특성과 예술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 평균값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V.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교육훈련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의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에서 최근의 창작작품제작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주문자위탁생산(OEM)방식을 위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북한 등 저임금 국가들의 애니메이션산업 진출로 상대적인 임금수준이 높아진 한국의 주문자위탁생산방식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문자위탁생산방식에 치중하여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기획직군의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하며 현재 존재하는 기획인력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획득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

〈표 8〉 직무별 직무특성 및 예술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 평균값

직 무		창작성	교육가능	정형화	협업정도	예술역량
시나리오작가	평균	4.500	2.500	2.500	4.500	0.640
	사례수	2	2	2	2	2
	표준편차	0.707	0.707	0.707	0.707	0.198
총감독	평균	5.000	3.500	2.500	5.000	0.500
	사례수	2	2	2	2	1
	표준편차	0.000	2.121	0.707	0.000	.
프로듀서	평균	4.500	3.375	2.250	4.500	0.725
	사례수	4	4	4	4	4
	표준편차	0.577	0.478	0.866	0.577	0.222
캐릭터디자이너	평균	5.000	2.400	2.600	4.600	.675
	사례수	5	5	5	5	5
	표준편차	0.000	0.547	0.547	0.894	0.171
스토리보드작가	평균	5.000	3.750	3.125	3.750	0.400
	사례수	4	4	4	4	2
	표준편차	0.000	1.258	0.853	1.258	0.141
레이아웃	평균	4.000	3.500	1.500	4.000	0.557
	사례수	3	2	2	2	3
	표준편차	1.000	2.121	0.707	1.414	0.140
원화작가	평균	4.250	2.750	3.000	4.000	0.477
	사례수	4	4	4	4	4
	표준편차	0.957	1.500	1.414	1.414	0.265
배경작가	평균	3.500	4.000	2.000	4.500	0.500
	사례수	2	2	2	2	2
	표준편차	2.121	1.414	0.000	0.707	0.000
색채	평균	5.000	3.000	1.500	3.500	0.485
	사례수	2	2	2	2	2
	표준편차	0.000	1.414	0.707	2.121	0.502
채색	평균	2.000	5.000	4.000	2.000	0.300
	사례수	1	1	1	1	1
	표준편차
동화작가	평균	4.000	4.000	1.000	2.000	0.100
	사례수	1	1	1	1	1
	표준편차
스캐닝	평균	2.000	4.166	5.000	2.333	0.167
	사례수	3	3	3	3	3
	표준편차	1.732	1.443	0.000	1.154	0.289
촬영	평균	5.000	5.000	3.000	3.500	0.480
	사례수	2	2	2	2	2
	표준편차	0.000	0.000	0.000	2.121	0.113
편집	평균	3.333	2.666	2.333	2.000	0.417
	사례수	3	3	3	3	3
	표준편차	2.081	0.577	1.527	1.732	0.126
화이널체크	평균	3.000	3.500	3.500	4.500	0.345
	사례수	2	2	2	2	2
	표준편차	0.000	0.707	0.707	0.707	0.078
전 체	평균	4.150	3.359	2.730	3.795	0.492
	사례수	40	39	39	39	37
	표준편차	1.251	1.186	1.146	1.361	0.239

국의 한 창작 작품도 제작사 측의 마케팅 컨셉 설정 오류로 흥행에 실패한 사례는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기획직군의 기획력 및 마케팅 능력의 미흡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

다. 비록 대학 애니메이션 관련학과에서는 매년 기획직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학기간 동안에 견습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여 현장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졸업 후에 바로 애니메이션 기획직군에 종사할 수 기회는 매우 드물다. 견습 경험을 갖춘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아직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졸업생들을 인력공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주문자위탁 생산방식에서는 작화직군과 기술직군이 자신들의 창작성을 가미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단순 조립의 제조업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창작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기획직군뿐만 아니라 작화직군 및 기술직군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를 갖게 된다.

애니메이션의 각 직군 및 직급별 교육훈련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직군 책임급의 예술적 역량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심화하고 문화콘텐츠산업 타장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기술적 역량 강화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동향, 문화콘텐츠산업 내 타장르의 새로운 제작 기법 및 영상 기법을 파악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마케팅 및 시장분석을 위한 이론적 이해 및 현실 적용을 도모하며 장래 애니메이션 작품 경향을 예측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및 프로젝트 총괄관리 능력을 개발하고 기획 집단의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교육훈련 형식으로는 장르간 연계 모의 제작 프로젝트 실습, 장르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외 저명 전문가의 선진기법 강의, 전문가 세미나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획직군 실무급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존 작품을 분석해야 하며,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개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형식으로는 단편 애니메이션 혹은 모의 제작 프로젝트 실습과 책임급 강사 혹은 전문가의 강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셋째, 작화직군 책임급의 예술적 역량은 기획 의도를 예술적으로 작화할 수 있는 회화적 능력 심화를 의미한다. 기술적 역량의 강화는 전공정, 주공정, 후공정에 관한 이해 증진과 총감독 혹은 프로듀서의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표현력, 그리고 공정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방안 개발과 신기술 및 새로운 장비활용 능력 개발, 문화콘텐츠산업 내 관련성이 높은 타장르 기법 학습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역량 강화는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무급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 감독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자문할 수 있는 표현력 개발, 실무급의 업무를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력관리 능력, 실무급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무급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형식으로는 해외 저명 전문가의 선진기법 강의, 장르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세미나 방식 등이 있다.

넷째, 작화직군 실무급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작화기법, 색채학 학습이 필요하고,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공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 고양되어야 한다. 사회적 역량은 주로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형식으로는 책임급 강사 혹은 전문가의 강의 방식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기술직군 책임급의 예술적 역량은 기획 의도를 살려서 그림들을 예술적으로 동영상화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뜻한다. 작화직군 교육훈련은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기술직군의 교육훈련은 애니메이션의 동영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 직군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기술적·사회적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의 형식은 작화직군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기술직군 실무급의 예술적 역량은 영상 기법이나 새로운 제작기술의 이해를 의미하며, 기술적 역량은 후공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역량은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형식으로는 책임급 강사의 강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3] 직군 및 직급별 교육훈련 방안 요약

	A. 기획직군	B. 작화직군	C. 기술직군
책임급	<p><u>예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적 소양 심화 문화콘텐츠산업 타장르에 대한 이해 증진 <p><u>기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기술 및 IT 산업 동향 파악 <p><u>사회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관리, 마케팅, 시장분석에 관한 이해 증진 기획집단의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능력 개발 <p><교육훈련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간 연계 모의 제작 프로젝트 실습 장르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해외 저명 전문가의 선진기법 강의 전문가 세미나 방식 	<p><u>예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의도를 예술적으로 작화할 수 있는 회화적 능력 심화 <p><u>기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정, 주공정, 후공정에 관한 이해 증진 총감독 혹은 프로듀서의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표현력 공정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방안 개발 신기술 및 새로운 장비 활용능력 개발 문화콘텐츠산업 내 관련성이 높은 타장르 기법 학습 <p><u>사회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무급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 감독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자문할 수 있는 표현력 개발 실무급의 업무를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력관리 능력 실무급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무급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능력 <p><교육훈련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저명 전문가의 선진기법 강의 장르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세미나 방식 	<p><u>예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의도를 살려서 그림들을 예술적으로 동영상화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심화 <p><u>기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공정 이해 <p><u>사회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p><교육훈련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 강사의 강의 방식
실무급	<p><u>예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 역사 이해 및 기존 작품 분석 <p><u>기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개괄적인 이해 <p><u>사회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p><교육훈련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편 애니메이션 혹은 모의 제작 프로젝트 실습 책임급 강사 혹은 전문가의 강의 방식 	<p><u>예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화기법, 색채학 학습 <p><u>기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공정 이해 Tool 사용 능력 고양 <p><u>사회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p><교육훈련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 강사 혹은 전문가의 강의 방식 	<p><u>예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기법, 새로운 제작기술 이해 <p><u>기술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공정 이해 툴(Tool) 사용 능력 고양 <p><u>사회적 역량 강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과의 공동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p><교육훈련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급 강사의 강의 방식

호주의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센터링크(Centrelink))

장 지 연*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이다. 이 글은 새롭고도 독특한 형태의 공공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센터링크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센터링크가 하는 일, 그리고 재정조달 방식과 조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서비스인 고용안정서비스와 보육지원금(CCB)의 전달방식을 대표적인 사례로 좀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I. 센터링크 개요

호주의 센터링크는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곳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1997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Address at the Official launch of Centrelink, 1997. 9. 27).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부처고객은 가족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FaCS),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등이다. 실업수당과 연금, 가족수당을 나누어 주는 일부부터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과 학자금을 나누어주는 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센터링크는 2002~2003년(1년)에 1,000여 군데 지점 또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25,000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chang@kli.re.kr)

명의 직원을 통하여 650여만 명의 고객에게 각종 수당과 지원금으로 600억 호주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140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링크의 1년 예산은 약 20억 달러이다. 이렇게 볼 때, 센터링크는 선진국에서도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효율적인 정부조직이다.¹⁾ 조직의 모습을 갖춘 이후에도 전문 컨설턴트그룹으로부터 센터링크 자체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을 얻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직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1997년 출범 초기에는 생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과 재난에 대하여 개별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다. 한편 2002년에 내세웠던 운영목표는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사이에 강력한 연계 체계(links)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도구의 다양화(면접, 전화, 인터넷 등), 대학·보육시설 등 비즈니스 섹터와의 직통 연결망을 구축하는 한편,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self service'를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 센터링크 사업개요(2003~2004)

서비스 전달지점(service delivery points)	전국에 1000여개소
직원	25,448명
정부측 고객(서비스 제공을 의뢰한 정부조직)	25개 부처 또는 기관
서비스의 종류	약 140여종
전달된 급여(payments)	약 AU\$ 60.1 billion
고객(customers)	650만 명
개별 서비스 처리건수	970만 건
대민 우편발송건수	9,100만 건
가정방문건수	9,280건
면접(face-to-face) 상담/처리	580만 건
전화 상담/처리	2,800만 건
인터넷 웹 페이지 이용	3,260만 건

1) 그러나 이것은 센터링크라는 조직 자체가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뜻이지 센터링크가 연결해 주는 각각의 사회서비스가 효율적이라든가 만족도가 높다든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II. 조직 및 예산

센터링크는 전국적으로 25,4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600명이 지역네트워크에서 대민서비스업무(Customer Service Officers)를 담당하며, 콜센터에 4,340명, IT 관련 종사자와 중앙조직(National Support Office) 직원 3,470명이 있다. 이들은 대민서비스 업무를 이양한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아니라 독립기구로서의 센터링크에 소속된 직원이다.

직원이 배치되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센터는 321개소 뿐이다. Agents나 Access Points는 센터링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화, 컴퓨터, 팩스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 파트너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화상담/처리는 26개 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 2〉 센터링크 네트워크

Contact points	1,000여 개소
Customer Service Centres	321
Agents	349
Access Points	159
Remote Area Service Centres	6
Call Centres	26
Specialist Service Centres	29
Area Support Offices	15
National Support Office	1

센터링크의 운영은 CEO 이하에 4개 파트(Customer Service, Business, Business Transformation, Service Management)와 지역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Business 파트가 가장 핵심적으로 각 부처로부터 이양받은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전체 센터링크의 예산과 인력운용을 담당한다. 다른 파트에서는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의 장을 관리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링크가 2003~2004 회계년도에 사용한 예산은 220억 호주달러이다. 이 예산은 가족부, 노동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와 다른 정부기구들이 서비스 전달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센터링크에 지불하는 것이다. 즉, 센터링크는 독립적인 정부기구이지만 따로 예산을 받아쓰는 기관이 아니라 각 부처로부터 이양받은 업무에 따라 일정 액수의 예산을 할당받아 사용하게 된다.

〈표 3〉 센터링크 예산의 주요 출처(2003~2004 회계년도)

출 처	AUS\$'000000	비 율
가족부(Dep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1,967	92.3
노동부(Dept. of Employment & Workplace Relations)	117	5.3
교육부(Dept. of Education, Science & Training)	16	0.6
농림부(Dept. of Agriculture, Fisheries & Forestry)	22	
기타	29	
전 체	2,151	100

III. 서비스의 종류 및 대표적인 사례

센터링크는 일반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는 센터링크는 140여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11개 질문에 연결시켜서 제공한다.

- 일자리를 찾으십니까?
- 자영업이나 농장을 운영하십니까?
-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십니까?
- 최근에 별거나 이혼을 하셨습니까?
-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아프거나 다치거나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 노약자나 환자, 장애를 가진 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 누군가 돌아가셔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최근에 호주로 이주하셨습니까?

이상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할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제

공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제시해 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들이 있는 경우, 예컨대 취업상태나 소득수준/자산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경우 개인은 센터링크에 단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받게 된다.

〈표 4〉 대표적 정부고객 및 서비스

전 체	서비스/급여(업무)	예상고객수(2004~2005) 천명
가족부	Family Tax Benefit (A)	1810
	Family Tax Benefit (B)	1396
	노령연금	1877
	장애연금	701
	부모급여	636
	청년급여	368
	Newstart Allowance	475
	Child Care Benefit	?
노동부	고용서비스/구직자지원	?
기타 Agriculture, Fisheries & Forestry; Education, Science & Training; Child Support Agency; Foreign Affairs & Trade; Fransport & Regional Services; Health & Ageing; Housing Authorities; Attorney-General's; Australian Taxation Office 등 다수 기관에서 의뢰한 140여 종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구직자로서 센터링크를 찾게 된 경우, 센터링크는 먼저 ‘Job Network’을 연결해 준다. Job Network은 영리 또는 비영리 취업알선기관의 네트워크이다. 센터링크는 Job Network 소속 기관 중에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기관을 5개 제시하고 구직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그 기관이 구직을 돕게 된다. 모든 Job Network 회원기관은 ‘Service Guarantee’라고 불리는 일정수준 이상의 구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일제로 일할 형편이 안되거나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지역사회의 공공일자리(community job)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자녀보육이나 자신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취업할 의사가 분명하고 알선하는 모든 취업면접에 응한다면, 그리고 일정한 소득/자산 테스트를 통과한 구직자에게는 ‘Newstart Allowance’를 지급한다. 연령과 처지에 따라서는 ‘Youth Allowance’나 ‘Mature Age Allowance’ 등 다른 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 대상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건강보험(Health Care Card)이 제공되고 주택의 렌트비를 지원하거나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경우, 다양한 종류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센터링크에 제출한 자녀의 연령과 특수한 조건,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보고와 소득수준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보육지원비(Child Care

Benefit)의 액수가 결정된다. 부모는 자녀가 이용할 보육시설을 센터링크에 알려주면 보육지원비가 이 시설에 곧장 지급되고 보육시설은 청구할 보육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부모에게 청구한다. 센터링크와 전국의 보육시설간에는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보육시설은 분기별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시설이용 시간과 결석한 경우 그 사유까지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IV.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는 시사점

센터링크는 선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이다. 게다가 설립된 지 약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센터링크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에 근거하여 조심스럽게나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정도의 시도를 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호주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이기는 하지만 국토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것을 고려한다면, 2만 5천명 정도의 인원으로 거의 140여 가지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부조직으로서는 놀라운 정도로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단일한 조직을 통하여 개인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통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도 센터링크의 커다란 장점이다.

센터링크는 이렇게 효율성과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센터링크는 사실상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에게 서비스를 할당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곳이 아니고 보육시설을 연결해 주고 취업을 알선하는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링크는 기존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민간기관, 영리민간기관을 똑같은 사업파트너로 대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달리 말하면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바대로 수년 사이에 이 분야에서 공공부

문의 역할 비중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소규모의 인원과 조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 및 사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센터링크라는 중앙조직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호주 정부가 센터링크를 통해서 ‘시장에서 제공되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① 정교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설계와 ② 민간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다.

민간시설이 제공한 공공·사회서비스의 비용은 센터링크를 통해서 정부가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질 높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방식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컨대 취업알선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기관이 구직자를 취업시킬 때마다 그 비용을 센터링크에서 지불하는 고용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장기실업자를 취업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취업알선기관이 이런 구직자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인가를 판정하여 비용지불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또한 적합한 자리가 아닌데도 일단 취업을 시키고 보거나 임시직에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지불을 한번에 하지 않고 여러 분기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교한 제도의 도입은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수정된 결과이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행위양식을 예측하면서 제도를 복잡하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의 경우,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육지원비(CCB) 반영이 있지만, 야간보육이나 주말보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그 결과 호주에서는 야간보육이나 주말보육이 전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다.

시장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그런대로 계속 맞추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게 된 재정지출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취업알선이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인프라나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그 만큼을 시장에서 담당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재정지출 방식이 변화한 때문인데, 이 방식은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그럴지는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비용문제를 차치하고 우리나라도 정교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려되는 문제는 민간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다. 서

비스 시설의 민간소유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호주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들이 완벽하게 센터링크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이다. 시설의 설립주체가 민간이다 뿐이지 모든 시설은 센터링크의 전산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얼마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이런 정도로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영화 방식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관건은 오너십(ownership)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센터링크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정부조직이다. 따라서 이 조직 자체가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곧 공공·사회서비스의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호주는 보육서비스나 고용안정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그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센터링크를 둔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이 적어도 호주 수준으로라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지속적인 재정투자 여력이 있어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 사업진출의 지역별 분포

조 성 재*

글로벌 경제의 통합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본이동은 한국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자본의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한 이 지역으로의 진출 증대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은 일자리 감소라는 효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기회의 확장과 시장 개척 등의 의미를 더 강하게 발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노동리뷰』 지난 호(2005년 2월호)에서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인사노무관리’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해외진출의 지역별 분포와 그와 관련된 변수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지난 호에서 상세히 소개한 바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3차년도 조사를 활용하였는데 분석대상 표본 1,875개 기업(이 중 제조업 754개)은 이미 설명한 대로 산업별·규모별 모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출되었다.

I. 진출지역의 현황

우선 산업을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을 까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해외진출을 추진 중 혹은 수행 중인 업체들을 합하여 중국을 진출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들은 제조업의 42.0%에 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비율이 45.2%에 달하여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경공업과 중공업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진출 희망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은 비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중·소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chosj@kli.re.kr).

업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얻은 지역은 동남아 지역으로서 역시 저임금 활용의 이점과 경제 활성화의 정도가 진출 지역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제조 대기업들의 경우 동남아를 진출 희망 지역으로 꼽고 있어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⁸⁾ 일본, 북미, 서유럽을 합하여 선진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업체의 비중은 제조업 21.4%, 비제조업 23.8%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공업의 경우는 북미 지역으로 진출 의지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 단지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기보다는 광대한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가 해외진출에서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비제조업, 특히 비제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본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데 비하여 제조업은 6.3%에 불과하여 제조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짐작케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서유럽(북유럽, 남유럽 포함)으로의 진출도 제조, 비제조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 동남아, 북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세계에 고루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지역으로의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낮은 수치를 나타내 향후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응답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산업별·부문별 진출(희망)지역 현황(복수응답을 전체로 할 때)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북한	2.2	1.2	1.4	1.9	2.7	0.3	0.5	3.6
중국	43.2	41.6	42.0	30.7	45.2	39.4	35.9	24.8
동남아	18.7	15.6	16.3	19.9	17.6	15.6	18.5	21.8
서남아	5.8	5.3	5.4	5.3	4.6	6.0	3.1	7.9
아중동	2.2	3.0	2.8	8.6	2.7	3.0	5.6	12.1
중남미	4.3	4.4	4.4	3.9	2.7	6.0	4.6	2.4
동유럽	5.8	4.2	4.6	4.4	2.7	6.0	2.6	6.7
대양주	1.4	1.6	1.6	1.4	1.5	1.7	2.1	0.6
일본	7.2	6.0	6.3	9.4	5.4	7.0	12.3	6.1
북미	7.9	11.6	10.7	9.4	10.3	11.3	8.7	10.3
서유럽	1.4	5.3	4.4	5.0	4.6	4.0	6.2	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은 엄밀하지는 않지만 임의적으로 종업원수 300인을 기준으로 삼았음. 이하 표에서도 동일함.

58) 비제조업의 경우 교역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임금의 이점은 제조업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복수응답 처리에 있어서 이번에는 하나라도 응답한 업체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구해보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업체의 비중이 제조업에서 무려 78.1%에 달한다. 이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특히 중공업(81.0%)과 제조 대기업(85.0%)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이건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을 필수적인 진출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62.7%에 달하여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제조업 11.8%에 비해 비제조업이 19.2%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비제조업 중심의 진출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을 진출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비율은 8.5%에 불과하여 동남아나 북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복응답률이 200%를 넘지 않고 있어서 2개 지역 이내로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산업별·부문별 진출(희망)지역 현황(하나라도 응답한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북한	3.5	2.3	2.6	4.0	4.3	0.7	1.0	8.0
중국	70.6	81.0	78.1	62.7	72.0	85.0	69.3	54.7
동남아	30.6	30.3	30.4	40.7	28.0	33.6	35.6	48.0
서남아	9.4	10.4	10.1	10.7	7.3	12.9	5.9	17.3
아중동	3.5	5.9	5.2	17.5	4.3	6.4	10.9	26.7
중남미	7.1	8.6	8.2	7.9	4.3	12.9	8.9	5.3
동유럽	9.4	8.1	8.5	9.0	4.3	12.9	5.0	14.7
대양주	2.4	3.2	2.9	2.8	2.4	3.6	4.0	1.3
일본	11.8	11.8	11.8	19.2	8.5	15.0	23.8	13.3
북미	12.9	22.6	19.9	19.2	16.5	24.3	16.8	22.7
서유럽	2.4	10.4	8.2	10.2	7.3	8.6	11.9	8.0
전체 (중복응답률)	163.5	194.6	185.9	204.0	159.1	215.7	193.1	220.0

이제 진출(희망)지역을 재분류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구미 선진지역과 여타 개도국 지역 4단위로 구분하여 산업대분류와 기업규모별로 비율을 구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중국의 경우는 앞서 표와 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공업이나 경공업,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비제조 대기업의 경우는 중국보다 여타 개도국을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아 중국의 취약한 서비스산업 인프라와 미약한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렇듯 중국 이외에 여타 개도국에

대한 진출 의지도 강한 것은 시장 개척과 저인건비 활용 등의 목적이 중첩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경공업 대기업과 비제조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국이나 일본의 주력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의 국소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자세한 산업 중분류(2digit)별 진출 희망지역은 <부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업(4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의 해외진출 성향이 적극적이고 진출(희망) 지역이 전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료품제조업(15)이나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36)에서 중국 진출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진출(희망)지역 대분류별 분포

	중 국	일 본	구미선진국	여타개도국	전 체
경공업/중소	50.8	4.6	7.7	36.9	100.0
경공업/대	45.6	10.5	10.5	33.3	100.0
중공업/중소	50.9	6.6	16.8	25.7	100.0
중공업/대	47.7	7.7	15.9	28.7	100.0
비제조/중소	41.7	14.3	13.7	30.4	100.0
비제조/대	32.5	7.9	14.3	45.2	100.0
전 체	44.7	8.9	14.3	32.1	100.0

II. 진출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 진출 지역의 대분류별로 해외진출 요인을 정리해 보면 <표 4>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역시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인건비가 높아서, 혹은 인력난으로 인해 나간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저인건비를 겨냥하여 중국을 진출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타 개도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인건비가 높아서’ 진출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16.9%에 달하였다. 반면 구미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시장 개척을 위해 나간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일본을 진출대상으로 응답한 업체들은 선진기술 흡수나 좋은 해외여건을 꼽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부터 중국 등 개도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노동요인이 선진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개도국으로의 진출 요인에서 시장 개척이 45.4%를 차지하는

등 해외유인 요소도 적지 않아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진출대상 지역별 해외진출 사유

	빈 도				비 율			
	중 국	일 본	구미 선진국	여타 개도국	중 국	일 본	구미 선진국	여타 개도국
인건비 높아	154	15	24	76	23.1	11.4	12.4	16.9
노사관계	11	2	1	10	1.7	1.5	0.5	2.2
인력난	56	5	4	28	8.4	3.8	2.1	6.2
나쁜 국내여건	44	8	11	24	6.6	6.1	5.7	5.3
시장개척 위해	256	57	95	204	38.4	43.2	49.2	45.4
좋은 해외여건	79	17	22	55	11.9	12.9	11.4	12.2
선진기술 흡수	31	18	21	27	4.7	13.6	10.9	6.0
국내 역수입	26	7	9	17	3.9	5.3	4.7	3.8
기 타	9	3	6	8	1.4	2.3	3.1	1.8
전 체	666	132	193	449	100.0	100.0	100.0	100.0

주: 원 설문지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내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② 노사관계가 좋지 않아서 ③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④ 사회간접자본, 관련산업, 정부규제 등 국내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서 ⑤ 시장 개척을 위하여 ⑥ 해외의 사업여건이 국내보다 더 좋기 때문에 ⑦ 선진기술 흡수를 위하여 ⑧ 국내로 역수입하기 위하여 ⑨ 기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표 5>에서는 진출지역별로 기업에서 인식하는 경영환경의 변화 정도를 측정해서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서유럽 > 북미 > 일본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경쟁기업수를 제외하면 평균보다는 약간씩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 진출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선진지역 중에서도 수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 일본 진출기업들의 능동성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5점 척도)과 진출(희망) 지역

	평균	북한	중국	동남아	서남아	아중동	중남미	동유럽	대양주	일본	북미	서유럽
경쟁기업의 수	3.35	3.25	3.38	3.33	3.32	3.31	3.33	3.38	3.44	3.31	3.36	3.48
기존제품/서비스 수정 및 변화	3.81	3.88	3.72	3.81	3.74	3.81	3.50	3.88	4.00	3.78	3.84	4.00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도입	3.92	3.88	3.84	3.88	3.81	3.81	3.83	3.88	4.22	3.83	3.98	4.16
제품/서비스의 수요	3.56	3.50	3.50	3.45	3.55	3.44	3.29	3.73	3.78	3.64	3.61	3.72
품질의 중요성	4.49	4.75	4.32	4.30	4.45	4.44	4.54	4.58	4.67	4.25	4.46	4.60
주력제품/서비스의 시장점유율	3.28	3.38	3.27	3.32	3.16	2.88	3.13	3.50	3.33	3.39	3.26	3.44

주: 경영환경 변화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감소' 1점에서 '매우 증가' 5점까지 단계적으로 응답한 결과임.

제조업의 경영전략과 행태의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지역을 알아보면 <표 6>과 같이 일본과 유럽 지역의 경우 혁신형 전략을 구사하는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의 경우는 평균과 거의 비슷하나 방어적인 업체가 진출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흥미로운 것은 북한을 진출지역으로 채택하는 업체들의 경우가 혁신전략을 구사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표 6> 경영행태별 해외진출(희망)지역

	혁신형	분석형	방어형	추종형	전 체
북 한	75.0	12.5	0.0	0.0	100.0
중 국	43.1	38.1	11.3	6.7	100.0
동남아	49.5	33.3	8.6	7.5	100.0
서남아	38.7	38.7	12.9	9.7	100.0
아중동	50.0	31.3	6.3	12.5	100.0
중남미	36.0	56.0	4.0	4.0	100.0
동유럽	42.3	42.3	7.7	7.7	100.0
대양주	77.8	22.2	0.0	0.0	100.0
일 본	52.8	33.3	5.6	8.3	100.0
북 미	34.4	44.3	9.8	11.5	100.0
서유럽	60.0	28.0	0.0	12.0	100.0
전 체	45.2	37.4	9.0	7.7	100.0

- 주: 1) 혁신형: 고객의 욕구와 시장의 초기 신호에 신속히 대응하여 항상 가장 먼저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함.
 2) 분석형: 신시장 진입이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가장 먼저 주도하지는 않지만, 1)과 같은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따라 잡으려고 노력함.
 3) 방어형: 기존의 제품/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제품/서비스 개발이나 신시장 진입을 먼저 시도하지 않음.
 4) 추종형: 위 세가지 형태 모두 아님.

한편 제품 혹은 서비스의 특성과 경영체제에 따른 진출대상 지역을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대체로 일본과 서유럽 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의 품질이 우수하고 품목이 다양하며, 개발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평균과 거의 값이 비슷한 가운데 대체로 가격경쟁력 위주의 업체가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경영체제에서 소유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여타 지역과 구분되었다. 이는 여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서 고려하면 노동 요인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선호하고 있는 사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경영체제가 강한 소유주 권한을 나타낸 것 또한 대단히 흥미롭다. 앞서 북한을 진출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의 경우 혁신

신적인 전략 구사에 높은 응답을 한 것과 결부지어 보면 소유경영주의 빠르고 과감한 결단에 의하여 북한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여타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 현재까지 북한으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리스크를 감내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제품/서비스 특성(5점 척도)과 경영체제(4점 척도)에 따른 진출(희망)지역

	평균	북한	중국	동남아	서남아	아중동	중남미	동유럽	대양주	일본	북미	서유럽
가격저렴	2.89	3.38	2.94	2.75	2.97	2.63	3.08	3.00	2.56	2.67	2.90	2.96
품질우수	3.93	4.00	3.84	3.93	3.81	4.00	3.88	3.96	4.00	3.94	3.90	4.00
품목다양	3.66	4.00	3.55	3.63	3.58	3.67	3.63	3.46	3.78	3.77	3.47	3.68
개발속도빠름	3.56	3.88	3.46	3.46	3.45	3.53	3.58	3.38	3.78	3.63	3.38	3.68
기술력우수	3.98	4.13	3.79	3.93	3.84	3.93	3.88	4.00	4.22	4.06	3.90	4.08
경영체제 (중소기업)	2.48	1.75	2.12	2.24	2.79	2.50	2.88	2.77	2.88	2.26	2.45	2.67
(대기업)	1.85	1.57	1.78	1.96	2.50	2.14	2.43	2.00	3.00	1.69	2.08	2.00
	2.48	3.00	2.45	2.53	3.00	2.78	3.06	3.06	2.80	2.62	2.74	3.25

주: 제품/서비스 특성과 관련된 지표는 주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전적으로 그렇다'까지로 응답, 경영체제는 1점 - 소유주 모든 권한, 2점 - 소유주 중심, 3점 - 전문경영인 중심, 4점 - 전문경영체제(소유경영 완전분리)임.

외국인 지분과 진출지역의 교차 표를 구성해 보면 <표 8>과 같이 선진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외국인 지분이 높은 편이며, 중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외국인 지분이 낮은 편이다. 이는 앞서 소유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업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선호하는 현상과 일관된 응답결과이다.

〈표 8〉 외국인 지분에 따른 해외진출지역

	0	0<...<50	50% 이상	미분류	전 체
북한	62.5	25.0	12.5	0.0	100.0
중국	69.9	19.7	7.1	3.3	100.0
동남아	66.7	21.5	7.5	4.3	100.0
서남아	58.1	25.8	12.9	3.2	100.0
아중동	62.5	25.0	12.5	0.0	100.0
중남미	56.0	24.0	12.0	8.0	100.0
동유럽	46.2	34.6	11.5	7.7	100.0
대양주	22.2	55.6	11.1	11.1	100.0
일본	47.2	33.3	16.7	2.8	100.0
북미	45.9	32.8	16.4	4.9	100.0
서유럽	44.0	40.0	12.0	4.0	100.0
전체	60.8	25.1	10.0	4.0	100.0

III 향후 진출 전망과 시사점

이번에는 진출지역을 크게 분류하였을 때 향후 사업계획이 어떠한가를 전업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표 9>에 의하면 중국이나 여타 개도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국내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이나 구미선진국을 진출대상으로 선택한 업체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외 중심으로 전개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더욱이 일본과 구미 선진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국내외 사업의 비중이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서 그 의미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진출대상 지역별 향후 국내외 사업계획

	중 국	일 본	구미선진국	여타개도국
국내중심	54.3	42.9	40.5	56.2
해외중심	13.0	18.6	16.2	10.4
국내 장기폐쇄	1.7	1.4	0.9	2.0
상황따라	30.9	37.1	42.3	31.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이상의 사업체패널 조사결과는 단순한 빈도 분석에 머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국내 자본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한 인사노무관리와의 관련성과 이번 호의 지역 분포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재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국제경쟁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은 물론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남아 등지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장의 일자리 감소 효과보다는 관련 산업 및 부품·소재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저인건비를 겨냥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고 있는 한계형 기업들도 적지 않아 해외진출에 대하여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곤란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한계형 탈출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국내외의 사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지키고 추가로 창출할 여지가 없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공론화와 추가 분석이 요망되고 있다.

〈부표〉 산업중분류별(2digit) 해외진출(희망)지역(복수응답)

	북한	중국	동남아	서남아	아중동	중남미	동유럽	대양주	일본	북미	서유럽	전체	중국비율
1		1				1				1		3	33.3
5		2			1	2	2			2	1	10	20.0
10												0	-
12												0	-
14												0	-
15		14	3	1		1	2		2	2		25	56.0
16			1	1		1	1	1	1	1	1	8	0.0
17		13	9	3	1	2	3		1	2		34	38.2
18	2	10	3		2	2			1	2		22	45.5
19		6	3									9	66.7
20		1	1						1	1		4	25.0
21		7	3	1			2		2	1	1	17	41.2
22		1	2	1						1		5	20.0
23		2	1									3	66.7
24		24	13		4	1	1		8	10	2	63	38.1
25		13	3	1					1	1		19	68.4
26		3	2								1	6	50.0
27		11	7	1		2			2	5	1	29	37.9
28	2	15	5		1				2	4	3	32	46.9
29	1	24	14	6	3	2	3	2	6	8	3	72	33.3
30	1	5	2	2	1	1	1	2	1	2	2	20	25.0
31		21	4	5	1	4	1		2	3	2	43	48.8
32		36	9	2	1	5	5	1	2	6	5	72	50.0
33		1	1							1		3	33.3
34	1	22	5	5	2	4	5	2	2	8	4	60	36.7
35		2	1	1			2			2		8	25.0
36	1	8	1	1				1	2	1		15	53.3
37												0	-
40		3	4	1	2					1	1	12	25.0
45	2	21	18	3	12	2	6	1	2	4	2	73	28.8
50												0	-
51	2	20	11	4	3	4	1		7	7	5	64	31.3
52	1	9	1	1			2	1	3	1	1	20	45.0
55		3	1		1				1			6	50.0
60		2	2				1		2	1		8	25.0
61		3	1	1	1				2	1		9	33.3
62			1	1	1			1	1	1	1	7	0.0
63		3	3			1	1		2	1	2	13	23.1
64		3	3	1		1			3	2		13	23.1
65			2							2		4	0.0
66		3								1		4	75.0
67		1										1	100.0
70												0	-
71		1							1	1		3	33.3
72		12	8	2	2	1			4	4	1	34	35.3
73		1										1	100.0
74	1	19	16	5	7	2	2	2	5	4	4	67	28.4
75												0	-
80												0	-
85		1	1				1		1			4	25.0
90												0	-
91												0	-
92		3			1							4	75.0
93	1											1	0.0
전체	15	350	165	50	47	39	42	14	70	95	43	930	37.6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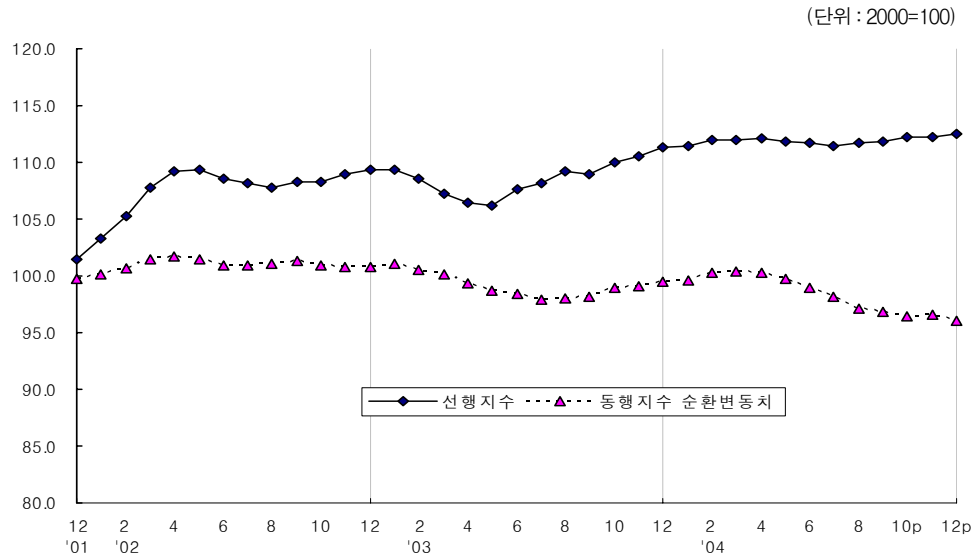
◆ 수출 제조업 생산증가 둔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부진완화

- 산업활동은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의 둔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생산증가로 반전(그림 1 참조)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소폭 감소하고 경기순환에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지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표 1 참조).
 - 산업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도소매 판매 및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관련 지표들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2004년 하반기 이후 혼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통신기기 및 일반 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감소세를 나타냄.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9.0%) 자동차(19.0%) 기계장비(8.0%), 기타운송장비(12.2%) 등에서 전년동기 대비 많이 증가하고, 섬유제품(-10.0%), 조립금속(-7.9%), 비금속광물(-7.1%)에서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12월을 기점으로 증가세(0.4%)로 전환되었으며 증가세를 시현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이며, 감소세가 지속된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비스업 등임.

- 도소매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용 연료소매업에서의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0.1% 감소

[그림 1] 경기지수 동향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2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p	12월p
광공업	생 산	11.4	6.1	3.2	3.2	7.8	10.9	11.0	12.3	11.0	6.7	4.5
	제조업	11.3	5.8	3.1	3.1	8.3	11.4	11.5	12.8	11.2	6.9	4.6
	출 하	10.9	4.5	2.8	2.5	6.8	9.9	9.9	10.5	9.8	5.8	3.2
	수 출	12.7	7.9	10.7	11.9	18.5	22.8	22.4	23.7	21.4	17.2	14.0
	내 수	10.0	2.7	-1.0	-2.4	0.7	3.5	3.0	3.0	2.7	-1.4	-3.3
서비스업	생산	8.8	3.2	1.1	0.1	0.4	1.3	1.7	0.1	-1.4	-0.8	0.4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1.1	0.1	-0.3	-0.9	-1.4	-0.1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5.0	-3.8	2.5	2.2	0.1	-2.0

주: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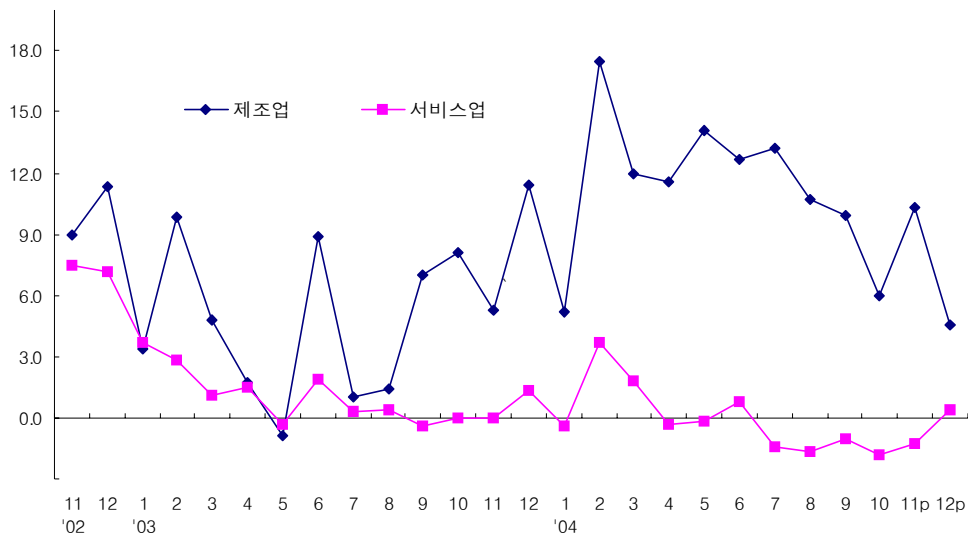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5. 1.
 —, 『2004년 12월 및 4/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2.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실업률 증가

- 2005년 1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92천명(0.8%)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감소
- 2005년 1월 취업자는 22,07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2천명(0.6%) 증가하였는데,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남성: 38천명(0.3%), 여성: 105천명(1.2%) 증가)(그림 3 참조).
- 2005년 1월 실업자는 904천명으로 전년동기(854천명)대비 50천명(5.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0.2%포인트 상승
 - 여성실업자가 남성실업자보다 증가(남성: 24천명(4.5%), 여성: 26천명(8.4%))하였

으나, 실업률은 남성이 4.2%, 여성이 3.6%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포인트 상승

- 실업률 3.9%는 1월 기준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계절조정실업률(3.6%)도 2개월 연속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85천명(1.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3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 추이 : 124천명(2004. 1) → 92천명(2004. 9) → 105천명(2004. 12) → 136천명(2005. 1)

○ 2005년 1월 고용동향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지표상 취업자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실업자 및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였음.
-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이어 내수 거시경제 지표의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며,
-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12.0%)하는 등 단시간 불완전취업자의 증가는 체감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며, 취업자의 업종별 증가를 보더라도 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증가(13만2천명(12.2%))
- 청년층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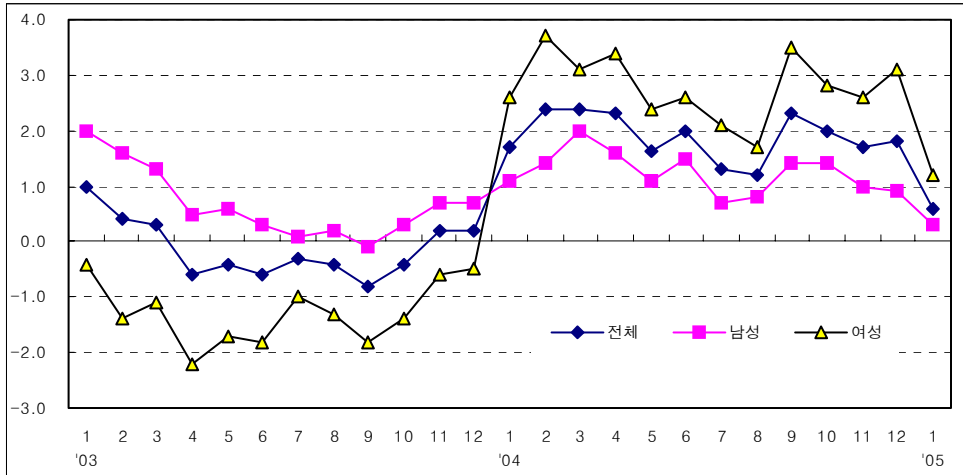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월
경제활동인구	23,119 (0.6)	22,982 (2.4)	22,790 (2.0)	23,531 (2.1)	23,434 (1.7)	23,534 (1.8)	23,581 (1.6)	23,349 (1.9)	22,982 (0.8)
참가율	61.7	61.2	60.7	62.5	62.0	62.2	62.3	61.7	60.6
취업자	22,325 (0.0)	22,104 (2.2)	21,936 (1.7)	22,744 (2.0)	22,647 (1.6)	22,733 (1.8)	22,802 (1.7)	22,495 (1.8)	22,078 (0.6)
실업자	794	878	854	787	787	802	779	855	904
실업률	3.4	3.8	3.7	3.3	3.4	3.4	3.3	3.7	3.9
비경제활동인구	14,357 (1.8)	14,595 (-1.1)	14,755 (-0.4)	14,141 (-0.7)	14,337 (0.0)	14,313 (-0.3)	14,267 (0.1)	14,521 (-0.4)	14,940 (1.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그림 3]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고용동향』, 2005. 2.

◆ 서비스 관련 업종 취업자 증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4년 1월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40천명, 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35천명, 1.6%)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1천명, -1.5%), 농림어업(-84천명, -5.6%) 등에서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 － 전체 서비스업에서 취업자는 증가(287천명, 2.0%)하고,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2천명, -0.1%)
 - － 산업별 취업자 증가 순위를 보면,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32천명, 12.2%), 사업서비스업(99천명, 7.1%), 보건 및 복지사업(59천명, 10.6%), 운수업(48천명, 4.4%) 순이며 취업자 감소 순위는 농업 및 임업(-69천명, -4.9%), 도매 및 소매업(-84천명, -2.2%), 건설업(-54천명, -3.1%) 순임.
 - －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에서 남성 취업자는 27천명(1.0%)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29천명(-2.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1% 감소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가 많이 증가(남성: 100천명(2.9%), 여성: 240천명(8.3%))하였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2004년 9월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그림 4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4분기
전 산 업	22,325 (0.0)	22,104 (2.2)	21,936 (1.7)	22,744 (2.0)	22,647 (1.6)	22,733 (1.8)	22,802 (1.7)	22,495 (1.8)	22,078 (0.6)
농림어업	1,882 (-8.0)	1,609 (-5.3)	1,489 (-6.7)	1,967 (-7.5)	1,933 (-7.5)	1,789 (-4.9)	1,829 (-6.6)	1,549 (-1.7)	1,405 (-5.6)
제조업	4,246 (-0.1)	4,278 (2.6)	4,254 (2.7)	4,308 (1.7)	4,278 (2.7)	4,296 (1.2)	4,319 (1.4)	4,261 (0.1)	4,252 (-0.1)
건설업	1,854 (2.3)	1,762 (1.6)	1,740 (2.2)	1,864 (0.5)	1,790 (-1.7)	1,864 (0.6)	1,877 (0.1)	1,843 (-0.5)	1,686 (-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51 (-2.1)	5,912 (-0.1)	5,939 (-1.5)	5,866 (0.5)	5,819 (0.2)	5,853 (0.0)	5,863 (0.3)	5,886 (-0.3)	5,848 (-1.5)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6,322 (4.5)	6,362 (7.3)	6,327 (7.1)	6,542 (8.0)	6,617 (5.8)	6,711 (6.1)	6,720 (6.1)	6,723 (6.3)	6,667 (5.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53 (-1.0)	2,163 (-0.2)	2,167 (-0.1)	2,182 (0.2)	2,197 (2.6)	2,205 (2.4)	2,195 (2.0)	2,218 (2.4)	2,20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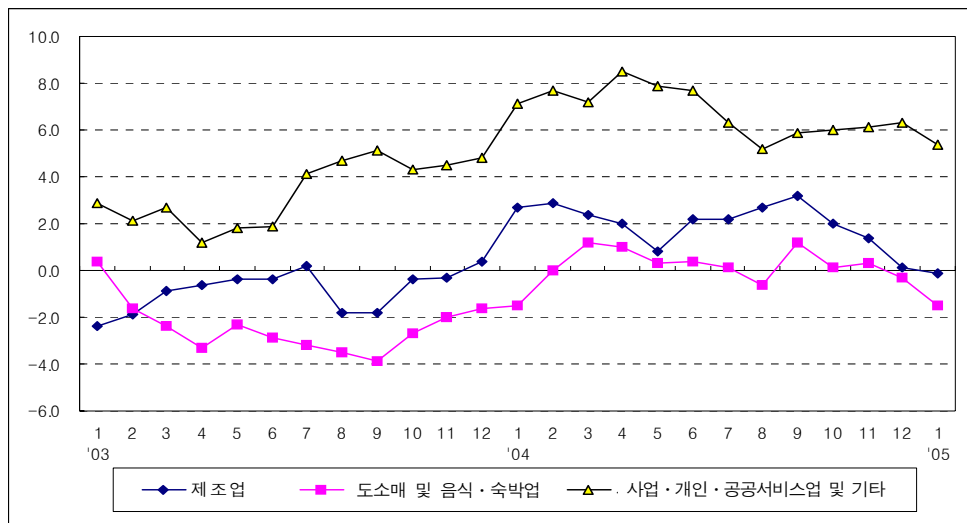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그림 4〉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 상용근로자 증가,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 2005년 1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14,79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8천명(2.0%)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7,28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6천명(-2.0%) 감소
 -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004년 5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5 참조).
 -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상용근로자(341천명, 4.6%)이며, 비임금근로자 감소를 주도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147천명, -10.0%)임.
- 2005년 1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22천명(12.0%)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85천명(-1.5%) 감소
- 상용근로자와 36시간미만 취업자 모두가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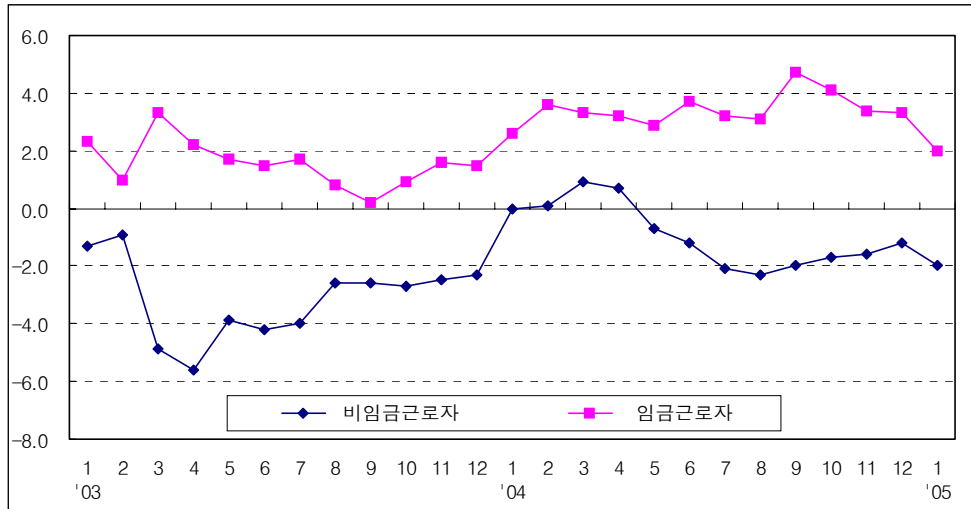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4분기
전 체	22,325 (0.0)	22,104 (2.2)	21,936 (1.7)	22,744 (2.0)	22,647 (1.6)	22,733 (1.8)	22,802 (1.7)	22,495 (1.8)	22,078 (0.6)
비임금근로자	7,748 (-2.5)	7,490 (0.3)	7,428 (0.0)	7,762 (-0.4)	7,769 (-2.1)	7,631 (-1.5)	7,673 (-1.6)	7,385 (-1.2)	7,283 (-2.0)
임금근로자	14,577 (1.4)	14,614 (3.2)	14,508 (2.6)	14,983 (3.3)	14,878 (3.6)	15,102 (3.6)	15,129 (3.4)	15,109 (3.3)	14,796 (2.0)
상용근로자	7,383 (6.1)	7,460 (4.0)	7,426 (4.0)	7,586 (4.6)	7,671 (5.5)	7,781 (5.4)	7,792 (5.5)	7,776 (4.9)	7,767 (4.6)
임시·일용 근로자	7,194 (-3.2)	7,154 (2.3)	7,082 (1.2)	7,396 (1.9)	7,207 (1.7)	7,320 (1.8)	7,337 (1.4)	7,333 (1.7)	7,028 (-0.8)
36시간 미만	2,370 (-1.0)	2,587 (0.8)	2,685 (13.6)	2,509 (27.9)	2,687 (-10.0)	2,501 (5.5)	2,499 (5.7)	2,757 (4.7)	3,007 (12.0)
36시간 이상	19,730 (-1.0)	19,125 (0.8)	18,705 (0.0)	20,004 (-0.8)	19,563 (3.6)	20,000 (1.4)	20,079 (1.3)	19,494 (1.3)	18,420 (-1.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그림 5]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 40대와 중졸 이하에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

○ 2005년 1월의 청년층 실업자는 431천명, 실업률은 8.7%로 200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실업자 및 실업률은 청년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에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29천명(22.1%))
- 교육수준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 28천명, 대졸 이상 14천명, 고졸은 8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중졸 이하 및 고졸은 0.3%포인트, 대졸 이상은 0.1%포인트 상승하였음.
- 전체 실업률과 비교한 청년층의 실업률 변동폭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2004년 9월 이후부터 청년층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음(그림 6 참조).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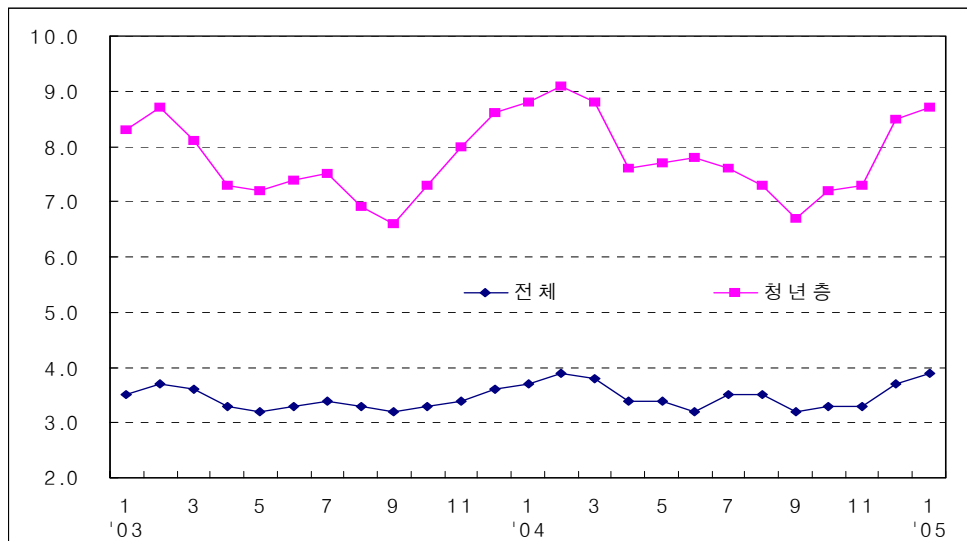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4분기
전 체	794(3.4)	878(3.8)	854(3.7)	787(3.3)	787(3.4)	802(3.4)	779(3.3)	855(3.7)	904(3.9)
15~29세	394(8.0)	448(8.9)	449(8.8)	383(7.7)	355(7.2)	378(7.7)	360(7.3)	420(8.5)	431(8.7)
30~39세	188(3.0)	181(2.9)	181(2.9)	176(2.7)	192(3.0)	193(3.0)	185(2.9)	201(3.2)	212(3.4)
40~49세	129(2.1)	151(2.4)	131(2.1)	129(2.0)	141(2.2)	134(2.1)	135(2.1)	134(2.1)	160(2.5)
50~59세	61(1.8)	73(2.2)	66(2.1)	74(2.2)	73(2.1)	75(2.1)	75(2.1)	81(2.3)	78(2.3)
60세 이상	23(1.0)	25(1.2)	26(1.3)	25(1.1)	25(1.1)	21(0.9)	23(1.0)	19(0.9)	24(1.2)
중졸 이하	132(2.2)	144(2.5)	150(2.7)	132(2.2)	141(2.4)	136(2.3)	142(2.4)	134(2.3)	162(3.0)
고졸	438(4.3)	466(4.6)	494(4.8)	398(3.9)	417(4.1)	457(4.5)	433(4.2)	512(5.0)	520(5.1)
대졸이상	224(3.2)	268(3.8)	210(3.0)	257(3.5)	229(3.1)	209(2.8)	204(2.8)	209(2.8)	222(3.1)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그림 6〕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 200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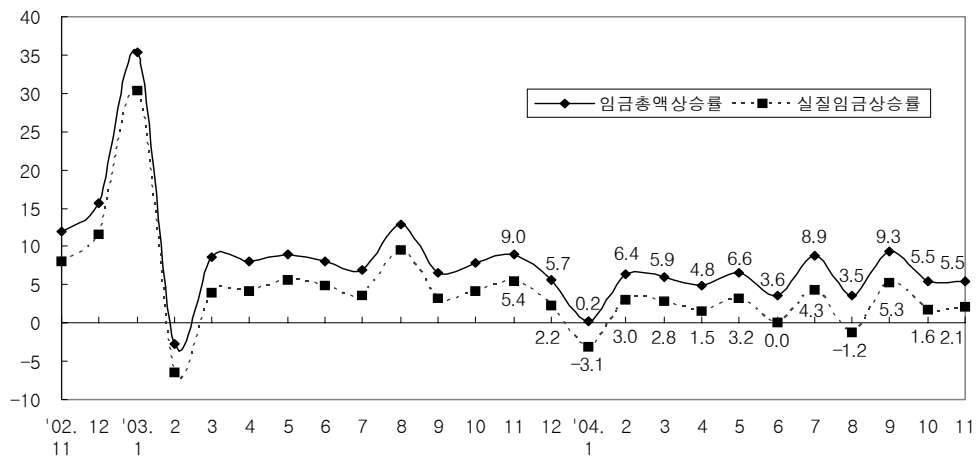
임금 동향

◆ 임금상승률 하락

- 2004년 11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45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5% 상승
 -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9.0%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치임.
 - － 1~11월 임금총액은 2,18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상승
- 실질임금은 2.1% 상승
 - － 2004년 1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2.1% 상승함.
 - － 1~11월의 실질임금은 1월 및 8월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7% 상승에 그침.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3			2004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1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임 금 총 액	2,127 (9.2)	2,165 (8.6)	2,227 (7.3)	2,185 (3.9)	2,115 (5.0)	2,324 (7.3)	2,495 (9.3)	2,145 (5.5)	2,045 (5.5)	2,187 (5.4)
정 액 급 여	1,532 (8.8)	1,536 (8.6)	1,583 (9.0)	1,599 (7.0)	1,613 (6.6)	1,643 (6.9)	1,652 (7.0)	1,653 (7.0)	1,659 (6.8)	1,625 (6.8)
초 과 급 여	135 (7.3)	133 (4.7)	145 (8.5)	132 (3.1)	138 (2.5)	137 (2.5)	141 (1.6)	148 (0.0)	142 (-1.0)	137 (2.0)
특 별 급 여	460 (11.4)	496 (9.7)	499 (2.0)	455 (-5.4)	364 (-0.5)	544 (9.8)	702 (17.1)	344 (0.9)	245 (0.8)	425 (1.4)
실 질 임 금 지 수	115.2 (5.5)	117.2 (5.3)	119.6 (3.7)	115.5 (0.6)	111.1 (1.6)	120.5 (2.9)	129.1 (5.3)	111.0 (1.6)	106.5 (2.1)	114.5 (1.7)
소비자물가지수	110.7 (3.6)	110.8 (3.2)	111.7 (3.5)	113.4 (3.3)	114.2 (3.3)	115.6 (4.3)	115.9 (3.9)	115.9 (3.8)	115.2 (3.3)	114.6 (3.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이용득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됨.

-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이용득 후보는 67%(484표)를 득표해 1차에서 당선이 결정됨.
- 이용득 당선자는 당선인사에서 한국노총의 개혁과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갈등의 해소 및 국민과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 실현을 다짐하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함.
- 이용득 현 위원장이 무난히 재선됨에 따라 한국노총의 기조는 급격한 변화 없이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난항 끝 연기

○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난항 끝에 유회되고 3월 중순으로 연기됨.

- 2월 1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를 토론하고 표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대의원 및 참관인의 방해로 물리적 충돌을 겪은 끝에 성원 미달로 유회됨.
- 이후 2월 19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35차 대의원대회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도 함께 결정하기로 결의함.
- 3월 중순 개최될 차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고 리더십의 수준이 검증될 것으로 전망됨.

◆ 양대노총 임금인상요구를 결정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올해 임금인상요구를 결정·발표함.

- 한국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월고정임금 총액(월정액급여+상여금월할액) 기준 9.4% 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은 19.9% 인상을 제시함.
-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산업별 편차를 고려해 9.3±2%로 비정규직은 15.6%로 임금인상요구를 잠정 결정한 가운데 사회적 교섭방침 등과 관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가 유보되면서 최종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음.
- 이렇듯 양대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인상요구를 별도로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올해 임금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경영계 올해 노사관계 낙관적 전망

○ 전경련 회원사 및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자에게 질문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안정(39.7%)되거나 매우 안정(5.2%)될 것이라는 응답이 44.9%로 전년과 비슷(43.9%)하거나 불안(11.2%)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음.
- 업종별로 보면, 건설, 공공, 유통, 전자·정보 업종 등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금융, 금융, 서비스업의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불안할 것으로 전망됨.
- 이슈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은 응답업체의 57.0%가 이미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 시기는 법개정 내용에 따라 실시(31.1%)하고 법규정상의 연월차휴가 등을 축소하겠다(18.9%)는 응답이 우세함.
- 비정규직의 경우, 응답업체의 58.5%가 현재의 비정규직 운영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7.4%에 그침.
- 한편 산별교섭의 경우, 이중교섭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증가를 우려(63.6%)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으며, 노노 및 노사간 갈등 증폭(59.5%),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52.2%) 순으로 산별교섭 실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합리적 교섭결과 기대(6.5%), 전문성 증대(4.0%), 감정대립 최소화(4.0%), 교섭기간 및 비용 절감(3.2%)의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노동일지

(2005. 1. 16~2. 20)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노조: 불법파견 등 관련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 개최 · KIST노사: 임단협 교섭 관련 전면파업 중(2004. 12. 28~) 임단협 합의타결
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성원미달로 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오롱노조: 고용조정 관련 조정신청 · 기아자동차노조: 채용비리 관련 집행부 총사퇴 긴급성명 발표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분신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노사: 희망퇴직 실시 합의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여주·양평지역 노사정: 노사정 화합공동선언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중합기계노조: 실사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1. 17~) 중 협상안건 확정 후 실사 허용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지역 노사정: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위한 공동협약 채택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정기대위원대회 개최, 사회적 교섭안건 관련 물리적 충돌 속 성원미달로 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오롱노사: 고용조정 합의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개최, 2005년 임금인상요구율 등 결정 ·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임원재선거 파반수 득표 미달로 무산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연구원: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불법파견 분쇄·정규직화 쟁취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철도노사: 200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위원장 선거, 이용득 현 위원장 재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노조: 주40시간제 시행 관련 잠정합의안 가결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일부 조합원 농성 파업 계속(1. 18~)

〈표 1-1〉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소비지출	총고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1)		
실 질 내 생 산	1997	523,034.7	544,131.5	115,274.3	53,667.3	10,778.6	257,324.0	363,911.2	192,033.8
	1998	487,183.5	499,004.0	106,173.0	48,295.2	10,742.0	247,182.1	325,361.8	147,991.7
	1999	533,399.3	545,970.1	129,287.5	44,458.6	11,708.4	263,424.6	357,016.3	160,336.3
	2000	578,664.5	576,160.0	151,243.0	42,926.7	13,212.5	279,605.0	382,398.2	179,907.7
	2001	600,865.9	592,408.5	154,503.3	45,279.0	14,169.1	293,128.9	401,191.4	179,576.3
	2002	642,748.1	633,842.1	166,242.9	46,529.4	15,258.0	316,104.8	431,484.2	191,464.6
	2003	662,474.4	645,497.0	174,201.2	50,308.7	16,128.9	321,719.7	429,315.6	198,378.6
	2000. 2/4	144,171.4	142,942.8	37,838.2	11,681.4	3,200.3	69,542.9	93,900.6	47,819.5
	3/4	144,350.1	143,441.3	38,088.3	11,338.5	3,320.7	69,825.0	94,829.4	46,053.3
	4/4	156,759.7	155,274.2	39,207.9	12,238.6	3,222.7	72,334.8	99,709.9	47,895.1
	2001. 1/4	138,047.3	136,026.1	37,329.3	7,800.4	4,000.4	70,831.8	96,068.8	36,714.4
	2/4	149,503.6	146,555.5	39,382.8	11,828.2	3,326.2	72,580.0	97,856.4	46,148.2
	3/4	149,311.5	147,117.0	38,085.9	12,316.5	3,437.0	73,284.1	100,245.4	45,842.2
	4/4	164,003.6	162,710.0	39,705.2	13,333.9	3,405.5	76,432.9	107,020.9	50,871.6
	2002. 1/4	147,076.1	145,751.7	39,253.9	8,360.7	4,190.9	75,744.3	105,129.6	39,528.2
	2/4	159,990.3	156,554.3	41,828.8	12,145.1	3,567.2	78,628.4	106,140.3	49,501.8
	3/4	159,407.1	157,215.8	40,909.0	11,724.1	3,771.1	79,708.3	107,562.3	46,947.6
	4/4	176,274.6	174,320.2	44,251.1	14,299.5	3,728.8	82,023.9	112,652.0	55,487.0
	2003. 1/4	152,491.3	146,454.9	41,237.1	9,064.1	4,488.9	77,167.9	106,121.8	41,363.9
	2/4	163,493.5	158,940.5	42,906.2	13,076.6	3,883.7	79,504.0	105,260.5	51,347.1
	3/4	163,301.5	160,545.6	42,277.2	12,673.3	3,888.8	81,023.5	106,576.3	48,190.3
	4/4	183,188.1	179,556.0	47,780.7	15,494.6	3,867.5	84,024.2	111,357.0	57,477.2
	2004. 1/4	160,540.2	153,069.5	46,236.5	9,470.6	4,746.1	78,300.6	105,475.7	42,112.7
	2/4	172,559.6	166,184.6	48,725.9	13,548.2	4,119.2	80,839.1	105,608.0	53,637.0
	3/4	170,736.5	166,127.1	47,175.9	12,923.5	4,154.1	82,093.5	106,453.2	49,642.9
성 장 률	1997	4.7	2.7	4.9	2.8	10.0	5.1	3.2	-2.3
	1998	-6.9	-8.3	-7.9	-10.0	-0.3	-3.9	-10.6	-22.9
	1999	9.5	9.4	21.8	-7.9	9.0	6.6	9.7	8.3
	2000	8.5	5.5	17.0	-3.4	12.8	6.1	7.1	12.2
	2001	3.8	2.8	2.2	5.5	7.2	4.8	4.9	-0.2
	2002	7.0	7.0	7.6	2.8	7.7	7.8	7.6	6.6
	2003	3.1	1.8	4.8	8.1	5.7	1.8	-0.5	3.6
	2000. 2/4	9.4	6.1	17.7	-3.1	14.3	6.7	8.7	14.8
	3/4	8.2	6.1	19.2	-2.2	11.8	4.4	5.8	10.8
	4/4	4.3	1.0	8.1	-2.7	7.6	4.5	4.0	3.5
	2001. 1/4	3.5	1.1	3.4	1.7	15.3	4.3	2.2	-3.7
	2/4	3.7	2.5	4.1	1.3	3.9	4.4	4.2	-3.5
	3/4	3.4	2.6	0.0	8.6	3.5	5.0	5.7	-0.5
	4/4	4.6	4.8	1.3	8.9	5.7	5.7	7.3	6.2
	2002. 1/4	6.5	7.1	5.2	7.2	4.8	6.9	9.4	7.7
	2/4	7.0	6.8	6.2	2.7	7.2	8.3	8.5	7.3
	3/4	6.8	6.9	7.4	-4.8	9.7	8.8	7.3	2.4
	4/4	7.5	7.1	11.4	7.2	9.5	7.3	5.3	9.1
	2003. 1/4	3.7	0.5	5.1	8.4	7.1	1.9	0.9	4.6
	2/4	2.2	1.5	2.6	7.7	8.9	1.1	-0.8	3.7
	3/4	2.4	2.1	3.3	8.1	3.1	1.7	-0.9	2.6
	4/4	3.9	3.0	8.0	8.4	3.7	2.4	-1.1	3.6
	2004. 1/4	5.3	4.5	12.1	4.5	5.7	1.5	-0.6	1.8
	2/4	5.5	4.6	13.6	3.6	6.1	1.7	0.3	4.5
	3/4	4.6	3.5	11.6	2.0	6.8	1.3	-0.1	3.0

주: 1)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1-2〉 생산지수, 대외거래, 환율 및 물가지수

(2000=100.0)

(단위 : 백만달러, 원)

	생산지수		국제수지			대미 기준 환율	물가지수	
	산업	서비스	경상수지	수출(FOB)	수입(CIF)	평균자료	생산자	소비자
1999	85.6	91.9	24,521.9	143,685	119,752	1,189.5	98.0	97.8
2000	100.0	100.0	12,250.8	172,268	160,481	1,130.6	100.0	100.0
2001	100.7	105.8	8,032.6	150,439	141,098	1,290.8	99.5	104.1
2002	108.8	116.1	5,393.9	162,471	152,126	1,251.2	99.2	106.9
2003	114.4	117.2	12,320.7	193,817	178,827	1,191.9	101.4	110.7
2004	126.0	117.1	-	254,221	224,469	1,144.9	107.6	114.7
2001. 4/4	104.4	110.5	442.2	36,349	34,342	1,291.8	98.1	104.5
2002. 1/4	103.7	110.5	1,400.6	35,656	33,788	1,319.6	98.3	105.5
2/4	109.1	117.0	1,569.7	40,252	37,192	1,270.7	99.7	106.9
3/4	106.2	116.8	547.2	41,255	38,884	1,196.3	99.2	107.4
4/4	116.3	120.0	1,876.4	45,307	42,262	1,221.0	99.7	107.9
2003. 1/4	110.0	113.2	-1,758.8	43,036	44,223	1,201.1	101.2	109.8
2/4	112.6	118.2	2,486.8	46,053	41,711	1,209.8	101.0	110.5
3/4	109.6	116.9	3,992.3	47,828	42,971	1,175.8	101.1	110.8
4/4	125.4	120.5	7,660.6	56,900	49,922	1,181.3	102.3	111.7
2004. 1/4	122.1	115.1	6,146.0	59,302	52,785	1,171.9	105.5	113.4
2/4	126.4	118.3	7,035.3	63,930	55,257	1,161.9	107.3	114.2
3/4	121.7	115.3	7,097.9	61,615	54,685	1,155.2	108.5	115.6
4/4	133.8	119.5	-	69,374	61,743	1,094.0	108.9	115.5
2002. 9	105.0	117.7	315.4	13,901	12,992	1,208.5	99.4	108.0
10	117.0	119.7	1,470.9	15,085	13,817	1,241.1	99.6	107.7
11	116.6	117.9	1,137.8	15,197	13,993	1,211.9	99.8	107.8
12	115.5	122.4	-732.3	15,026	14,452	1,208.9	99.8	108.3
2003. 1	110.0	113.0	-432.3	14,320	14,495	1,179.3	100.5	109.0
2	103.4	107.9	-118.4	13,337	13,858	1,191.2	101.1	109.6
3	116.6	118.8	-1,208.1	15,379	15,870	1,232.4	102.1	110.9
4	113.7	118.3	-380.5	15,721	14,759	1,232.8	101.5	110.7
5	111.6	118.5	1,168.0	14,676	13,524	1,199.8	101.0	110.5
6	112.4	117.8	1,699.3	15,656	13,428	1,194.0	100.5	110.2
7	108.3	117.5	417.8	15,432	14,898	1,181.6	100.7	110.1
8	108.2	116.1	1,377.5	15,375	13,541	1,178.4	101.1	110.6
9	112.3	117.2	2,197.0	17,021	14,531	1,166.2	101.5	111.6
10	126.1	119.7	2,485.6	18,930	16,537	1,166.3	101.8	111.7
11	122.3	117.9	2,948.0	18,242	15,761	1,184.9	102.2	111.5
12	127.8	124.0	2,452.3	19,729	17,624	1,193.0	102.9	112.0
2004. 1	115.1	112.5	2,343.7	18,988	16,201	1,184.3	104.3	112.7
2	120.9	111.9	2,887.5	19,135	17,463	1,166.7	105.6	113.2
3	130.1	120.9	914.8	21,168	19,111	1,166.3	106.6	114.3
4	126.4	117.9	1,141.9	21,484	18,822	1,150.9	107.1	114.3
5	126.7	118.3	3,711.6	20,816	17,895	1,177.4	107.4	114.2
6	126.3	118.8	2,181.8	21,610	18,540	1,158.7	107.3	114.2
7	122.4	115.8	3,231.6	21,001	18,383	1,157.7	107.7	114.9
8	119.7	114.1	1,056.5	19,797	18,111	1,159.0	108.7	115.9
9	123.0	116.0	2,809.8	20,836	18,179	1,148.0	109.1	115.9
10	133.4	117.6	2,403.0	22,756	20,353	1,144.0	109.2	115.9
11	134.4	116.4	2,942.8	23,128	20,370	1,091.2	109.2	115.2
12	133.5	124.5	-	23,582	21,017	1,050.9	108.4	115.4
2005. 1	-	-	-	-	-	-	108.6	116.2

주 : 1)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집계(소유권 이전기준), 수출·수입은 통관기준(한국무역협회집계).

2) 대미 기준환율은 평균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생산자물가 동향」.

통계청 KOSIS, 산업활동 DB, 「소비자물가 동향」.

〈표 2-1〉 주요 노동시장지표

(단위: 천명, 천원, 시간, %)

	생산 가능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임금근로자 비율
1998	35,347	21,428	60.6	19,938	1,490	7.0	56.4	61.7
1999	35,757	21,666	60.6	20,291	1,374	6.3	56.7	62.4
2000	36,186	22,069	61.0	21,156	913	4.1	58.5	63.2
2001	36,579	22,417	61.3	21,572	845	3.8	59.0	63.3
2002	36,963	22,877	61.9	22,169	708	3.1	60.0	64.0
2003	37,340	22,916	61.4	22,139	777	3.4	59.3	65.1
2004	37,717	23,370	62.0	22,557	813	3.5	59.8	66.0
2002. 1/4	36,824	22,339	60.7	21,511	829	3.7	58.4	64.5
2/4	36,919	23,112	62.6	22,423	689	3.0	60.7	63.6
3/4	37,012	23,067	62.3	22,416	652	2.8	60.6	63.5
4/4	37,097	22,989	62.0	22,326	663	2.9	60.2	64.4
2003. 1/4	37,193	22,439	60.3	21,633	806	3.6	58.2	65.5
2/4	37,297	23,055	61.8	22,303	751	3.3	59.8	65.1
3/4	37,391	23,050	61.6	22,295	756	3.3	59.6	64.4
4/4	37,476	23,119	61.7	22,325	794	3.4	59.6	65.3
2004. 1/4	37,577	22,982	61.2	22,104	878	3.8	58.8	66.1
2/4	37,672	23,531	62.5	22,744	787	3.3	60.4	65.9
3/4	37,771	23,434	62.0	22,647	787	3.4	60.0	65.7
4/4	37,848	23,534	62.2	22,733	802	3.4	60.1	66.4
2002. 9	37,038	23,095	62.4	22,490	605	2.6	60.7	63.6
10	37,072	23,177	62.5	22,538	639	2.8	60.8	63.7
11	37,094	23,037	62.1	22,389	648	2.8	60.4	64.3
12	37,124	22,754	61.3	22,052	702	3.1	59.4	65.3
2003. 1	37,161	22,352	60.1	21,562	789	3.5	58.0	65.6
2	37,193	22,320	60.0	21,498	822	3.7	57.8	65.3
3	37,226	22,644	60.8	21,837	807	3.6	58.7	65.6
4	37,262	22,912	61.5	22,156	756	3.3	59.5	65.4
5	37,300	23,114	62.0	22,370	744	3.2	60.0	64.9
6	37,330	23,138	62.0	22,383	755	3.3	60.0	64.9
7	37,366	23,238	62.2	22,456	781	3.4	60.1	65.0
8	37,390	22,883	61.2	22,126	756	3.3	59.2	63.9
9	37,418	23,031	61.6	22,301	730	3.2	59.6	64.2
10	37,448	23,218	62.0	22,452	765	3.3	60.0	64.5
11	37,475	23,218	62.0	22,425	792	3.4	59.8	65.2
12	37,506	22,922	61.1	22,096	825	3.5	58.9	66.2
2004. 1	37,546	22,790	60.7	21,936	854	3.7	58.4	66.1
2	37,577	22,906	61.0	22,005	900	3.9	58.6	66.1
3	37,608	23,249	61.8	22,371	879	3.8	59.5	66.1
4	37,639	23,482	62.4	22,673	809	3.4	60.2	65.9
5	37,670	23,527	62.5	22,738	788	3.3	60.4	65.7
6	37,707	23,585	62.5	22,822	763	3.2	60.5	66.0
7	37,744	23,564	62.4	22,750	814	3.5	60.3	66.2
8	37,771	23,182	61.4	22,382	801	3.5	59.3	65.2
9	37,798	23,556	62.3	22,809	747	3.2	60.3	65.7
10	37,825	23,673	62.6	22,901	772	3.3	60.5	65.8
11	37,848	23,581	62.3	22,802	779	3.3	60.3	66.3
12	37,870	23,349	61.7	22,495	855	3.7	59.4	67.2
2005. 1	37,923	22,982	60.6	22,078	904	3.9	58.2	67.0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2〉 경제활동참가율(성별·연령대별)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998	75.1	51.2	96.3	94.8	87.2	51.6	47.1	41.7	53.2	62.7	53.4	27.9
1999	74.4	50.5	95.7	93.9	85.8	50.7	47.6	41.7	53.7	63.1	53.9	29.5
2000	74.2	50.5	95.5	93.6	84.0	49.6	48.6	43.6	53.9	64.1	53.3	30.1
2001	74.2	50.0	94.9	93.5	83.4	50.4	49.2	45.2	54.2	63.9	53.8	29.9
2002	74.8	50.3	95.0	93.5	84.7	51.7	49.7	46.4	54.4	63.9	54.2	30.1
2003	74.6	49.5	94.9	93.9	85.4	48.6	48.9	46.8	53.8	62.9	52.6	27.8
2004	74.8	49.7	94.5	93.7	85.5	49.6	49.8	48.4	54.4	64.1	53.1	28.3
2001.3/4	74.7	50.3	95.0	93.8	84.2	52.6	49.7	45.1	53.9	64.0	55.1	32.7
4/4	74.5	49.7	95.1	94.2	84.0	51.4	49.7	45.6	54.7	64.1	55.0	30.5
2002.1/4	73.7	50.9	94.3	92.7	81.7	47.8	48.4	46.6	53.5	63.0	51.7	26.1
2/4	75.3	50.3	95.3	94.0	85.3	53.3	50.7	46.4	55.6	64.6	55.8	32.4
3/4	75.3	50.1	95.1	93.6	85.8	53.6	50.2	46.3	54.5	63.9	55.1	32.1
4/4	75.1	49.6	95.3	93.8	85.8	52.1	49.6	46.3	54.1	64.2	54.1	29.9
2003.1/4	73.9	49.9	94.7	93.5	84.2	45.8	47.5	47.0	53.7	61.3	49.4	23.9
2/4	74.9	48.9	95.3	94.4	86.3	49.6	49.5	46.3	54.6	63.6	54.0	29.3
3/4	74.7	49.4	94.7	93.9	85.6	49.5	49.3	47.1	53.5	62.7	53.5	29.8
4/4	74.9	49.9	95.0	93.8	85.7	49.4	49.2	46.8	53.6	63.8	53.3	28.1
2004.1/4	74.3	50.5	94.6	93.1	83.9	47.1	48.8	48.3	53.7	63.2	51.6	25.2
2/4	75.2	49.5	94.7	94.1	86.1	51.0	50.5	48.3	55.2	64.6	53.8	30.0
3/4	74.7	49.1	94.2	93.7	85.6	50.4	50.1	48.7	54.2	63.9	53.1	29.6
4/4	75.1	49.8	94.3	94.1	86.5	49.9	50.0	48.2	54.5	64.6	53.9	28.3
2002. 9	75.1	48.9	95.2	93.8	86.4	53.6	50.4	45.6	55.0	64.6	55.3	32.8
10	75.3	49.0	95.4	94.0	86.7	53.9	50.5	45.8	55.0	64.8	55.9	32.6
11	75.2	49.6	95.3	93.9	86.1	52.6	49.8	46.2	54.1	64.1	54.6	30.6
12	74.8	50.3	95.1	93.6	84.5	49.8	48.6	47.0	53.2	63.6	51.7	26.6
2003. 1	73.8	50.3	94.6	93.2	83.9	44.9	47.3	47.2	53.6	60.8	48.9	23.2
2	73.8	50.2	94.5	93.4	83.5	45.2	47.0	47.3	53.1	60.7	48.3	22.8
3	74.2	49.2	95.0	93.9	85.1	47.2	48.2	46.3	54.3	62.4	50.9	25.7
4	74.7	49.1	95.2	94.2	86.0	48.8	49.1	46.0	54.4	63.4	53.4	28.2
5	75.0	49.0	95.5	94.4	86.5	49.9	49.7	46.1	54.8	64.0	54.3	29.7
6	74.9	48.8	95.3	94.5	86.3	50.0	49.8	46.9	54.6	63.5	54.3	29.8
7	75.3	51.0	95.0	94.2	85.7	49.5	49.9	48.4	54.0	62.8	53.9	29.7
8	74.3	49.1	94.4	93.6	85.2	48.9	48.8	47.1	52.5	61.9	53.0	29.3
9	74.5	48.0	94.7	94.1	85.9	50.1	49.3	45.8	53.8	63.3	53.7	30.5
10	75.0	49.0	95.1	94.1	86.2	51.0	49.7	46.2	53.8	64.2	54.4	30.5
11	75.1	49.7	94.9	94.1	85.9	50.3	49.6	46.5	54.1	64.1	53.9	29.3
12	74.7	50.9	95.0	93.4	85.0	46.8	48.3	47.8	52.8	63.2	51.7	24.7
2004. 1	74.1	51.4	94.3	92.6	83.3	45.3	48.1	48.4	53.0	62.5	50.9	23.5
2	74.0	50.4	94.4	92.9	83.2	46.7	48.6	48.6	53.9	62.9	51.3	24.2
3	74.8	49.6	94.9	93.7	85.2	49.4	49.6	47.9	54.3	64.2	52.4	27.8
4	75.1	49.2	94.8	94.1	86.0	50.9	50.4	47.8	55.4	65.0	53.7	29.8
5	75.2	49.6	94.6	94.0	85.8	51.1	50.5	48.5	54.9	64.7	53.7	29.9
6	75.3	49.7	94.7	94.1	86.4	51.0	50.5	48.5	55.2	64.2	53.9	30.2
7	75.2	50.8	94.3	93.9	85.2	50.4	50.4	49.9	54.4	63.9	53.2	29.2
8	74.2	48.0	94.2	93.3	85.3	49.9	49.2	47.6	53.3	63.0	52.2	29.4
9	74.8	48.4	94.3	93.9	86.2	50.8	50.6	48.5	55.0	64.9	53.8	30.1
10	75.3	49.6	94.2	94.3	86.6	51.4	50.6	47.8	54.7	65.0	54.6	30.7
11	78.2	49.8	94.3	94.1	86.8	50.6	50.1	47.9	54.4	64.7	54.2	29.1
12	74.8	49.9	94.4	93.8	86.1	47.8	49.3	48.8	54.2	64.0	52.9	25.3
2005. 1	73.7	50.0	94.0	92.2	83.2	45.9	48.3	49.3	53.2	62.3	51.2	2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3〉 경제활동참가율(성별·교육수준별)

(단위: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57.6	79.7	93.2	90.7	42.1	48.5	65.3	56.8
1999	57.3	79.0	93.0	88.5	42.9	48.7	64.1	56.9
2000	57.4	78.4	91.1	87.8	43.6	49.5	64.6	58.1
2001	57.0	77.7	91.4	88.2	43.4	50.5	65.8	58.4
2002	57.3	78.2	92.6	88.4	43.1	51.4	66.4	59.1
2003	55.3	77.3	92.1	89.0	40.3	51.4	67.5	58.2
2004	55.1	77.7	91.1	88.7	40.1	53.0	66.8	60.0
2001. 3/4	57.9	78.2	91.1	88.2	44.7	50.6	65.7	57.7
4/4	56.8	78.4	92.6	88.6	43.6	51.5	66.9	58.1
2002. 1/4	55.0	77.7	91.1	88.3	40.8	51.2	65.9	58.2
2/4	58.9	78.0	92.5	88.3	45.0	51.5	67.3	59.2
3/4	58.1	78.5	92.5	88.3	44.2	51.4	65.9	59.1
4/4	57.2	78.4	94.0	88.8	42.5	51.5	66.6	59.7
2003. 1/4	53.7	76.9	92.5	89.1	37.7	50.8	68.4	57.6
2/4	56.8	76.8	92.2	89.1	41.9	50.9	68.3	58.3
3/4	55.8	77.4	91.4	88.7	41.4	51.4	66.6	58.4
4/4	54.8	78.3	92.2	89.1	40.3	52.3	66.9	58.3
2004. 1/4	53.8	77.4	91.5	88.6	38.4	52.6	66.5	58.7
2/4	56.4	77.6	91.6	88.4	41.4	52.8	67.4	60.8
3/4	55.2	77.5	90.6	88.5	40.6	53.1	66.8	60.0
4/4	55.0	78.3	90.8	89.2	39.9	53.5	66.4	60.5
2002. 9	58.2	78.0	92.9	88.5	44.5	51.5	66.1	59.5
10	58.3	78.1	94.0	88.8	44.5	51.6	66.0	60.1
11	57.5	78.5	93.8	88.7	42.9	51.5	66.5	59.6
12	55.7	78.7	94.1	88.8	40.2	51.5	67.1	59.3
2003. 1	52.2	77.9	92.9	89.3	36.9	51.5	68.1	57.5
2	53.5	76.6	92.3	88.9	36.8	50.5	67.8	57.5
3	55.5	76.1	92.4	89.0	39.3	50.4	69.3	57.8
4	56.5	76.5	91.9	89.1	41.4	50.6	68.4	57.6
5	57.0	76.9	92.4	89.0	42.3	50.9	68.6	58.4
6	56.9	76.8	92.3	89.3	42.1	51.3	67.9	58.9
7	56.2	78.2	91.9	88.8	41.6	52.2	67.4	58.8
8	55.3	77.0	91.2	88.5	40.8	51.1	65.9	57.7
9	55.7	77.0	91.2	88.7	41.7	51.1	66.6	58.6
10	56.0	77.8	92.2	89.0	41.8	51.9	66.9	58.6
11	55.2	78.4	92.3	89.0	41.0	52.4	67.3	58.3
12	53.3	78.6	92.2	89.2	38.2	52.5	66.4	58.1
2004. 1	51.9	78.4	92.0	88.9	37.1	53.2	65.4	58.1
2	54.0	76.6	91.1	88.3	38.1	52.4	66.5	58.7
3	55.7	77.1	91.3	88.5	40.1	52.3	67.5	59.3
4	56.3	77.3	91.8	88.3	41.4	52.7	67.4	60.7
5	56.3	77.5	91.9	88.3	41.4	52.8	67.5	60.8
6	56.4	77.8	91.3	88.4	41.4	52.9	67.3	61.0
7	55.4	78.4	90.9	88.5	40.6	53.7	67.1	60.1
8	54.7	76.9	90.3	88.3	40.0	51.9	66.0	59.3
9	55.5	77.4	90.6	88.7	41.0	53.6	67.2	60.8
10	55.9	78.2	90.7	89.1	41.4	53.4	66.5	60.5
11	55.3	78.4	90.8	89.2	40.3	53.4	66.2	60.7
12	53.8	78.3	91.0	89.3	38.0	53.7	66.7	60.4
2005. 1	51.0	77.8	90.2	89.0	36.4	53.2	65.6	5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 산업별 취업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3	1,950	17	4,205	76	1,816	3,871	1,981	1,084	249	751
2004	1,825	16	4,290	72	1,820	3,805	2,057	1,128	248	738
2001. 3/4	2,379	19	4,228	56	1,642	3,958	1,955	1,124	207	752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3/4	2,090	17	4,166	78	1,821	3,801	2,004	1,078	243	744
4/4	1,882	17	4,246	75	1,854	3,821	2,029	1,094	246	738
2004. 1/4	1,609	19	4,274	74	1,762	3,851	2,061	1,102	244	743
2/4	1,967	15	4,308	73	1,864	3,811	2,055	1,129	240	740
3/4	1,933	14	4,278	71	1,790	3,762	2,057	1,135	255	736
4/4	1,789	15	4,296	72	1,864	3,797	2,056	1,144	255	734
2002. 6	2,289	17	4,241	55	1,811	4,001	2,012	1,144	236	713
7	2,249	16	4,213	52	1,817	4,043	2,036	1,148	244	726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7	2,102	18	4,220	78	1,843	3,858	2,024	1,075	255	750
8	2,078	16	4,115	78	1,799	3,768	2,004	1,073	240	741
9	2,090	18	4,164	77	1,820	3,776	1,985	1,085	234	741
10	2,112	17	4,236	77	1,834	3,823	1,981	1,089	235	738
11	1,958	16	4,246	75	1,876	3,806	2,040	1,092	252	733
12	1,575	20	4,257	73	1,851	3,836	2,066	1,100	250	744
2004. 1	1,489	20	4,254	74	1,740	3,866	2,073	1,094	249	750
2	1,555	20	4,272	72	1,728	3,842	2,077	1,108	244	741
3	1,781	18	4,309	75	1,817	3,845	2,033	1,105	238	738
4	1,932	17	4,323	74	1,869	3,840	2,033	1,116	236	739
5	1,981	16	4,286	72	1,858	3,791	2,070	1,131	240	744
6	1,989	14	4,316	73	1,865	3,801	2,061	1,141	244	737
7	1,924	13	4,311	71	1,786	3,789	2,099	1,141	256	735
8	1,933	13	4,226	71	1,751	3,713	2,024	1,126	253	734
9	1,942	15	4,297	72	1,832	3,786	2,047	1,138	256	740
10	1,990	16	4,323	73	1,873	3,780	2,031	1,140	255	732
11	1,829	15	4,304	71	1,877	3,814	2,049	1,139	253	732
12	1,549	15	4,261	70	1,843	3,798	2,089	1,153	257	737
2005. 1	1,405	19	4,252	70	1,686	3,782	2,066	1,143	259	730

주 :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423	1,303	757	1,484	539	425	994	192	22
453	1,461	768	1,507	594	458	1,169	125	24
387	1,179	684	1,243	486	398	984	204	15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427	1,361	761	1,503	542	439	996	205	21
445	1,391	763	1,472	555	437	1,048	188	23
448	1,404	758	1,465	568	451	1,099	144	25
451	1,438	771	1,522	588	457	1,171	118	25
456	1,480	770	1,517	603	461	1,196	111	24
456	1,524	771	1,523	615	465	1,209	125	23
410	1,273	711	1,318	562	420	1,072	213	18
416	1,284	693	1,334	561	426	1,042	214	18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436	1,302	768	1,523	538	444	998	205	21
420	1,370	757	1,486	541	438	986	196	20
424	1,412	758	1,499	547	434	1,004	213	21
446	1,385	764	1,477	548	436	1,020	211	22
440	1,400	766	1,469	559	430	1,058	186	24
450	1,388	760	1,470	556	446	1,065	166	24
452	1,398	741	1,459	559	450	1,086	157	26
448	1,389	762	1,452	570	461	1,104	136	25
443	1,424	772	1,486	576	442	1,106	138	24
448	1,433	782	1,499	589	448	1,136	136	25
452	1,447	770	1,522	585	466	1,174	108	25
454	1,434	762	1,544	590	459	1,204	110	25
457	1,448	772	1,548	598	468	1,199	113	25
447	1,481	760	1,483	597	455	1,184	108	24
464	1,510	778	1,519	616	459	1,204	113	23
458	1,502	768	1,523	621	467	1,206	121	23
455	1,539	772	1,529	612	461	1,204	126	23
456	1,531	774	1,516	612	466	1,216	129	24
464	1,497	756	1,485	618	478	1,218	127	23

〈표 2-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3	923	1	1,475	12	148	1,832	1,349	89	78	385
2004	866	1	1,493	13	162	1,795	1,421	104	79	374
2001. 3/4	1,164	1	1,494	14	141	1,863	1,320	99	56	408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3/4	1,013	1	1,450	13	154	1,800	1,365	84	76	381
4/4	889	1	1,501	11	151	1,798	1,401	94	74	380
2004. 1/4	717	1	1,485	12	148	1,823	1,421	101	76	383
2/4	961	1	1,506	14	167	1,806	1,420	104	76	377
3/4	934	1	1,482	14	163	1,773	1,426	105	81	365
4/4	851	1	1,501	13	170	1,781	1,419	107	83	370
2002. 6	1,149	1	1,537	12	160	1,872	1,374	94	60	377
7	1,104	1	1,509	10	150	1,890	1,389	96	65	389
8	1,081	1	1,492	10	146	1,839	1,377	91	58	396
9	1,115	2	1,534	7	152	1,887	1,365	93	59	399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7	1,020	1	1,475	13	157	1,828	1,370	86	81	386
8	1,000	1	1,414	14	153	1,775	1,370	81	75	379
9	1,017	1	1,461	13	154	1,797	1,354	85	72	379
10	1,031	1	1,503	11	148	1,810	1,362	92	73	380
11	943	1	1,511	12	155	1,783	1,408	93	74	379
12	694	2	1,489	10	150	1,800	1,432	96	76	381
2004. 1	639	2	1,471	11	144	1,833	1,423	99	77	386
2	682	1	1,480	12	151	1,821	1,429	103	78	382
3	829	1	1,502	14	149	1,814	1,410	100	74	381
4	931	1	1,518	14	168	1,818	1,411	103	75	382
5	971	1	1,497	14	165	1,801	1,422	106	77	379
6	981	1	1,502	15	168	1,800	1,427	103	76	370
7	923	1	1,497	15	157	1,788	1,456	106	82	367
8	932	1	1,446	13	156	1,740	1,403	102	79	362
9	948	1	1,504	13	176	1,789	1,418	107	81	367
10	981	1	1,524	13	173	1,768	1,399	107	83	371
11	880	1	1,502	12	170	1,791	1,409	106	83	368
12	691	1	1,477	12	166	1,783	1,448	107	82	371
2005. 1	591	1	1,442	12	159	1,771	1,420	105	85	363

주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29	399	188	956	385	156	410	188	7
139	451	213	991	419	173	540	121	7
115	375	196	768	351	149	421	197	2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30	414	196	980	384	161	407	201	7
133	422	190	960	393	161	444	184	6
131	428	194	950	401	166	489	141	6
137	445	209	1,006	417	172	543	115	6
145	458	226	998	425	175	560	108	7
143	474	224	1,010	434	179	569	121	7
123	403	206	835	405	161	470	211	3
129	406	197	842	398	159	436	210	3
131	390	195	824	408	160	436	202	3
132	401	188	873	395	159	434	212	3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130	398	200	988	385	164	402	201	6
130	412	196	968	382	163	408	193	6
130	431	194	984	384	156	410	208	7
135	423	193	969	389	157	417	206	6
130	423	190	953	397	159	451	183	6
134	419	187	957	393	168	463	164	6
135	420	184	945	394	166	483	155	6
132	425	198	933	403	169	493	134	6
128	440	199	973	405	164	493	134	6
133	443	208	990	417	170	518	132	6
138	451	210	1,007	413	177	546	105	6
140	441	209	1,021	420	169	565	107	6
144	446	220	1,019	421	174	563	109	6
142	460	217	970	419	172	549	105	6
148	467	241	1,004	436	180	567	110	7
148	458	230	1,009	436	177	566	119	7
143	482	223	1,016	429	181	571	122	7
140	483	220	1,006	438	178	571	124	8
136	486	208	977	439	183	570	122	7

〈표 2-6〉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 업 및 어업숙 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0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2003		598	1,702	2,140	3,172	2,735	2,835	1,834	2,407	2,387	2,329
2004		576	1,731	2,324	3,188	2,895	2,749	1,700	2,455	2,490	2,449
2001.	1/4	484	1,465	2,072	2,565	2,673	2,867	1,633	2,556	2,313	1,998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3/4	601	1,713	2,190	3,160	2,771	2,792	1,976	2,393	2,365	2,333
	4/4	600	1,684	2,234	3,132	2,833	2,798	1,756	2,453	2,424	2,411
2004.	1/4	580	1,697	2,271	3,154	2,873	2,818	1,501	2,110	2,441	2,329
	2/4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3/4	580	1,729	2,330	3,213	2,881	2,712	1,817	2,432	2,508	2,445
	4/4	565	1,754	2,364	3,205	2,933	2,701	1,655	2,474	2,519	2,563
2002.	7	581	1,584	2,147	2,811	2,893	2,998	2,150	2,728	2,369	2,272
	8	567	1,593	2,128	2,802	2,843	2,939	2,141	2,676	2,367	2,166
	9	566	1,618	2,118	2,831	2,841	2,956	2,162	2,724	2,395	2,278
	10	554	1,613	2,111	2,861	2,849	2,943	2,154	2,719	2,399	2,335
	11	554	1,618	2,106	2,898	2,852	2,921	1,988	2,715	2,403	2,335
	1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79	2,365
	7	594	1,726	2,179	3,220	2,802	2,822	1,981	2,397	2,377	2,359
	8	605	1,704	2,184	3,132	2,756	2,772	1,973	2,362	2,354	2,285
	9	605	1,710	2,208	3,130	2,756	2,782	1,973	2,419	2,365	2,354
	10	606	1,695	2,211	3,142	2,767	2,805	1,980	2,430	2,412	2,404
	11	608	1,687	2,231	3,123	2,837	2,787	1,817	2,489	2,414	2,432
	12	586	1,671	2,260	3,131	2,896	2,800	1,470	2,438	2,445	2,398
2004.	1	580	1,683	2,263	3,150	2,875	2,843	1,409	2,407	2,425	2,301
	2	579	1,690	2,246	3,177	2,891	2,816	1,451	2,421	2,438	2,296
	3	581	1,718	2,304	3,135	2,853	2,794	1,644	2,491	2,460	2,391
	4	579	1,731	2,321	3,161	2,878	2,798	1,794	2,498	2,476	2,436
	5	576	1,754	2,326	3,186	2,906	2,753	1,847	2,468	2,485	2,436
	6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7	580	1,751	2,333	3,235	2,926	2,722	1,808	2,417	2,514	2,464
	8	584	1,711	2,303	3,172	2,825	2,694	1,834	2,396	2,496	2,367
	9	576	1,725	2,354	3,232	2,892	2,720	1,809	2,482	2,513	2,505
	10	568	1,749	2,361	3,211	2,896	2,697	1,843	2,490	2,525	2,562
	11	562	1,770	2,367	3,199	2,925	2,703	1,690	2,475	2,517	2,594
	12	565	1,743	2,363	3,205	2,979	2,703	1,433	2,457	2,514	2,533
2005.	1	565	1,727	2,352	3,194	2,953	2,701	1,330	2,340	2,522	2,395

주: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	장치/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2003	35	777	729	1,496	1,852	1,535	829	436	305	1,116
2004	40	786	756	1,582	2,006	1,493	764	424	345	1,168
2001. 1/4	31	631	620	1,328	1,824	1,588	676	591	308	929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3/4	36	779	741	1,517	1,877	1,513	921	426	297	1,111
4/4	38	754	746	1,492	1,949	1,516	784	440	319	1,155
2004. 1/4	35	756	746	1,515	1,974	1,538	625	437	335	1,112
2/4	41	796	763	1,577	2,005	1,508	846	431	346	1,169
3/4	41	790	753	1,613	2,008	1,467	841	416	351	1,165
4/4	43	803	763	1,621	2,035	1,459	746	412	349	1,226
2002. 7	31	658	681	1,479	2,004	1,633	1,031	526	300	1,040
8	30	665	680	1,466	1,969	1,595	1,013	522	306	993
9	29	681	677	1,479	1,974	1,635	1,037	531	311	1,057
10	27	693	684	1,493	1,973	1,601	1,028	531	315	1,090
11	27	701	679	1,510	1,966	1,591	919	526	313	1,069
12	27	692	683	1,534	1,961	1,600	709	500	307	1,051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7	35	790	742	1,540	1,885	1,525	925	429	300	1,122
8	37	770	738	1,504	1,873	1,492	917	417	292	1,078
9	37	776	742	1,506	1,872	1,520	922	432	299	1,132
10	39	762	745	1,509	1,895	1,522	927	435	309	1,164
11	37	749	744	1,490	1,953	1,509	818	452	322	1,176
12	37	752	748	1,478	1,999	1,517	607	434	326	1,124
2004. 1	34	753	744	1,498	1,976	1,558	567	427	328	1,086
2	34	749	737	1,522	1,976	1,536	596	435	340	1,106
3	38	764	757	1,526	1,971	1,520	711	449	338	1,143
4	38	777	766	1,556	1,994	1,525	815	444	349	1,173
5	41	804	760	1,584	2,004	1,504	865	428	341	1,155
6	44	805	762	1,592	2,018	1,495	858	421	348	1,178
7	41	805	758	1,616	2,045	1,478	832	411	345	1,163
8	42	774	735	1,583	1,962	1,449	849	405	349	1,130
9	40	792	767	1,639	2,017	1,474	841	433	359	1,201
10	42	799	764	1,625	2,005	1,453	865	419	355	1,242
11	43	809	764	1,619	2,027	1,459	769	411	351	1,243
12	43	800	762	1,618	2,071	1,466	603	407	351	1,192
2005. 1	43	781	756	1,602	2,041	1,465	532	393	336	1,130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7,641	1,392	4,225	2,025	12,296	6,534	4,043	1,720
1999	7,628	1,351	4,351	1,925	12,663	6,135	4,255	2,274
2000	7,795	1,458	4,407	1,931	13,360	6,395	4,608	2,357
2001	7,913	1,554	4,497	1,863	13,659	6,714	4,726	2,218
2002	7,988	1,617	4,574	1,797	14,181	6,862	4,886	2,433
2003	7,736	1,629	4,413	1,694	14,402	7,269	5,004	2,130
2004	7,663	1,679	4,431	1,553	14,894	7,625	5,082	2,188
2000.3/4	8,087	1,487	4,547	2,053	13,399	6,429	4,615	2,356
4/4	7,842	1,507	4,432	1,903	13,578	6,551	4,655	2,372
2001.1/4	7,430	1,504	4,248	1,678	13,197	6,593	4,588	2,017
2/4	8,070	1,558	4,544	1,967	13,769	6,762	4,760	2,247
3/4	8,166	1,558	4,642	1,967	13,734	6,739	4,722	2,273
4/4	7,987	1,596	4,552	1,840	13,936	6,764	4,835	2,237
2002.1/4	7,647	1,613	4,387	1,646	13,864	6,759	4,821	2,283
2/4	8,168	1,631	4,662	1,876	14,255	6,855	4,908	2,492
3/4	8,190	1,630	4,669	1,892	14,225	6,878	4,889	2,459
4/4	7,944	1,593	4,576	1,775	14,382	6,957	4,927	2,498
2003.1/4	7,465	1,567	4,298	1,601	14,168	7,176	4,904	2,088
2/4	7,794	1,590	4,433	1,771	14,509	7,250	5,082	2,177
3/4	7,939	1,669	4,502	1,767	14,356	7,268	4,989	2,099
4/4	7,748	1,690	4,421	1,637	14,577	7,383	5,059	2,155
2004.1/4	7,490	1,676	4,325	1,489	14,614	7,460	5,067	2,087
2/4	7,762	1,676	4,459	1,626	14,983	7,686	5,199	2,197
3/4	7,769	1,684	4,493	1,593	14,878	7,671	5,035	2,172
4/4	7,631	1,680	4,446	1,505	15,102	7,781	5,026	2,295
2002. 7	8,182	1,634	4,656	1,891	14,352	6,860	4,940	2,552
8	8,193	1,634	4,674	1,884	14,030	6,851	4,806	2,372
9	8,196	1,621	4,675	1,900	14,294	6,923	4,919	2,452
10	8,192	1,605	4,692	1,896	14,346	6,944	4,899	2,503
11	7,995	1,592	4,607	1,796	14,394	6,950	4,943	2,501
12	7,646	1,582	4,431	1,634	14,405	6,977	4,940	2,489
2003. 1	7,426	1,560	4,272	1,594	14,137	7,142	4,893	2,102
2	7,451	1,571	4,295	1,586	14,047	7,158	4,853	2,035
3	7,518	1,570	4,326	1,622	14,320	7,227	4,966	2,127
4	7,672	1,568	4,378	1,726	14,484	7,237	5,079	2,168
5	7,851	1,592	4,460	1,800	14,519	7,266	5,082	2,171
6	7,859	1,611	4,460	1,788	14,525	7,245	5,086	2,193
7	7,855	1,639	4,439	1,777	14,601	7,239	5,152	2,210
8	7,978	1,680	4,535	1,762	14,149	7,236	4,872	2,041
9	7,983	1,689	4,533	1,761	14,318	7,331	4,942	2,045
10	7,973	1,692	4,510	1,771	14,479	7,350	5,025	2,104
11	7,799	1,702	4,443	1,653	14,627	7,388	5,045	2,194
12	7,472	1,677	4,311	1,485	14,624	7,411	5,048	2,166
2004. 1	7,428	1,676	4,289	1,463	14,508	7,426	5,005	2,077
2	7,456	1,668	4,313	1,475	14,549	7,453	5,044	2,053
3	7,585	1,683	4,374	1,529	14,785	7,501	5,152	2,132
4	7,724	1,673	4,437	1,612	14,948	7,553	5,203	2,192
5	7,797	1,673	4,482	1,641	14,942	7,600	5,167	2,174
6	7,764	1,679	4,460	1,624	15,058	7,606	5,228	2,225
7	7,688	1,666	4,445	1,577	15,063	7,569	5,303	2,191
8	7,797	1,685	4,507	1,606	14,584	7,700	4,813	2,071
9	7,822	1,700	4,527	1,595	14,987	7,744	4,989	2,254
10	7,835	1,699	4,511	1,626	15,066	7,776	4,981	2,310
11	7,673	1,678	4,475	1,521	15,129	7,792	5,020	2,317
12	7,385	1,665	4,352	1,369	15,109	7,776	5,076	2,258
2005. 1	7,283	1,637	4,330	1,317	14,796	7,767	4,946	2,0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3,345	243	1,304	1,798	4,745	1,650	2,257	839
1999	3,313	248	1,388	1,677	5,025	1,562	2,289	1,174
2000	3,372	263	1,421	1,688	5,397	1,679	2,496	1,222
2001	3,382	296	1,457	1,629	5,609	1,861	2,589	1,159
2002	3,368	304	1,482	1,582	5,857	1,968	2,682	1,207
2003	3,138	290	1,328	1,519	5,970	2,109	2,826	1,036
2004	3,127	321	1,420	1,387	6,237	2,289	2,869	1,079
2000.3/4	3,547	270	1,476	1,800	5,409	1,698	2,510	1,201
4/4	3,378	279	1,428	1,671	5,524	1,764	2,539	1,220
2001.1/4	3,111	287	1,359	1,465	5,413	1,802	2,523	1,088
2/4	3,493	300	1,463	1,729	5,659	1,865	2,626	1,168
3/4	3,530	294	1,520	1,717	5,606	1,869	2,574	1,163
4/4	3,394	302	1,485	1,606	5,759	1,908	2,633	1,217
2002.1/4	3,173	303	1,435	1,435	5,708	1,913	2,623	1,173
2/4	3,494	313	1,519	1,662	5,911	1,979	2,695	1,237
3/4	3,482	308	1,504	1,670	5,862	1,977	2,684	1,202
4/4	3,323	293	1,468	1,562	5,944	2,005	2,725	1,215
2003.1/4	2,969	270	1,260	1,439	5,827	2,067	2,733	1,027
2/4	3,192	283	1,309	1,600	6,033	2,070	2,894	1,069
3/4	3,252	303	1,372	1,576	5,966	2,130	2,824	1,011
4/4	3,138	304	1,372	1,463	6,055	2,169	2,851	1,036
2004.1/4	3,002	307	1,367	1,328	6,073	2,188	2,849	1,036
2/4	3,207	319	1,425	1,464	6,274	2,260	2,939	1,075
3/4	3,182	324	1,438	1,420	6,262	2,327	2,844	1,091
4/4	3,117	334	1,449	1,334	6,340	2,379	2,844	1,116
2002. 7	3,485	311	1,503	1,671	5,898	1,965	2,709	1,224
8	3,468	312	1,496	1,659	5,772	1,969	2,629	1,174
9	3,494	302	1,514	1,678	5,917	1,996	2,714	1,207
10	3,491	295	1,521	1,674	5,944	2,006	2,702	1,236
11	3,357	291	1,477	1,588	5,946	2,001	2,738	1,206
12	3,122	292	1,406	1,424	5,943	2,007	2,735	1,202
2003. 1	2,942	263	1,246	1,434	5,805	2,084	2,680	1,041
2	2,951	276	1,259	1,415	5,754	2,048	2,713	993
3	3,015	273	1,275	1,467	5,923	2,068	2,807	1,048
4	3,111	269	1,277	1,564	6,017	2,054	2,900	1,062
5	3,229	285	1,316	1,628	6,036	2,080	2,894	1,062
6	3,236	296	1,333	1,606	6,047	2,075	2,889	1,083
7	3,224	296	1,343	1,585	6,069	2,085	2,911	1,073
8	3,253	307	1,380	1,566	5,866	2,133	2,762	971
9	3,278	307	1,394	1,576	5,962	2,174	2,799	989
10	3,274	302	1,386	1,586	6,032	2,173	2,848	1,011
11	3,166	307	1,379	1,480	6,085	2,164	2,858	1,063
12	2,973	301	1,350	1,322	6,048	2,170	2,846	1,032
2004. 1	2,959	303	1,358	1,298	6,015	2,168	2,827	1,020
2	2,976	303	1,358	1,315	6,055	2,177	2,837	1,042
3	3,070	314	1,384	1,372	6,148	2,219	2,882	1,046
4	3,176	314	1,411	1,451	6,262	2,248	2,934	1,079
5	3,228	320	1,430	1,478	6,257	2,265	2,930	1,062
6	3,218	323	1,433	1,462	6,302	2,267	2,952	1,082
7	3,155	322	1,424	1,409	6,336	2,262	2,989	1,086
8	3,180	323	1,430	1,427	6,096	2,348	2,708	1,040
9	3,210	327	1,459	1,424	6,352	2,373	2,834	1,146
10	3,235	333	1,462	1,439	6,336	2,376	2,828	1,132
11	3,142	332	1,458	1,352	6,353	2,381	2,845	1,127
12	2,974	336	1,427	1,211	6,330	2,380	2,860	1,090
2005. 1	2,894	326	1,410	1,158	6,184	2,357	2,781	1,0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0〉 성별·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1,005	404	258	189	120	33	486	251	106	84	35	11
1999	926	355	236	182	119	35	448	219	100	85	35	9
2000	613	242	159	124	68	20	300	160	58	56	20	6
2001	561	229	141	112	60	19	284	159	52	49	20	4
2002	467	207	126	77	42	16	241	135	51	35	14	6
2003	488	220	122	82	49	15	289	163	59	46	17	5
2004	509	224	127	86	54	18	304	167	59	52	20	5
2001.3/4	497	211	126	93	52	15	258	135	49	52	18	4
4/4	493	222	121	86	48	16	258	147	48	40	19	5
2002.1/4	531	235	136	87	52	20	298	175	55	44	16	8
2/4	455	199	122	78	41	16	234	128	51	32	15	7
3/4	435	187	120	75	38	15	217	118	48	32	14	6
4/4	449	206	127	67	36	13	215	118	49	32	12	4
2003.1/4	503	239	121	76	54	13	303	185	56	42	15	4
2/4	470	208	116	82	49	15	281	154	62	44	18	3
3/4	478	205	123	88	48	14	278	145	60	50	18	5
4/4	499	228	129	82	44	16	295	166	59	47	16	7
2004.1/4	527	244	119	93	53	18	350	205	61	58	20	7
2/4	482	215	120	76	53	19	304	168	56	53	21	7
3/4	502	208	132	89	54	18	285	147	60	52	19	7
4/4	526	229	136	87	55	18	276	149	57	47	20	3
2002. 9	407	175	114	69	32	16	199	106	43	32	13	5
10	434	190	127	72	31	15	205	112	52	27	12	2
11	441	198	132	67	34	11	207	115	47	30	10	4
12	470	231	122	62	42	13	232	127	47	38	15	5
2003. 1	487	236	117	72	47	15	302	188	56	39	16	3
2	518	250	124	78	54	12	304	192	54	41	13	3
3	503	231	121	79	60	13	303	176	58	46	17	7
4	471	210	115	79	51	17	285	152	66	46	17	4
5	465	207	116	82	47	14	278	152	60	44	19	4
6	474	207	118	85	50	14	281	159	60	41	18	2
7	485	218	120	86	46	16	296	167	58	46	20	5
8	480	200	123	94	50	13	277	144	59	53	17	4
9	469	196	127	83	49	14	261	124	64	50	17	6
10	492	218	133	81	46	14	274	139	63	47	19	7
11	486	219	129	81	41	16	306	175	58	50	16	7
12	519	247	124	84	45	19	306	185	56	44	15	6
2004. 1	540	264	125	83	48	19	315	185	56	48	18	8
2	536	244	118	98	57	19	364	216	68	54	19	7
3	506	223	116	98	54	16	372	213	60	71	23	6
4	481	198	126	82	56	19	328	178	62	58	23	7
5	489	220	117	77	54	21	300	164	55	53	20	7
6	476	226	118	68	48	16	286	161	51	48	20	6
7	521	229	136	84	54	19	292	158	56	52	20	7
8	510	203	137	92	59	19	291	149	59	59	16	8
9	473	193	122	92	50	16	273	133	66	46	22	7
10	501	212	136	83	53	17	270	143	57	50	18	4
11	520	223	132	90	55	21	259	138	53	46	20	3
12	555	253	139	88	59	17	299	167	62	46	22	3
2005. 1	564	238	144	105	61	17	340	193	68	55	17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1〉 연령대별 ·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전 체	연 령 대 별					교 육 수 준 별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7.0	12.2	5.7	5.6	5.3	2.4	5.9	8.3	8.5	4.9
1999	6.3	10.9	5.3	5.2	5.1	2.3	5.2	7.6	7.6	4.5
2000	4.1	7.6	3.4	3.3	2.9	1.3	3.3	4.8	6.0	3.1
2001	3.8	7.5	3.0	2.8	2.6	1.1	2.9	4.3	5.4	3.1
2002	3.1	6.6	2.8	1.9	1.8	1.0	2.1	3.5	4.7	2.9
2003	3.4	7.7	2.9	2.1	2.0	0.9	2.0	4.1	4.9	2.9
2004	3.5	7.9	2.9	2.2	2.2	1.1	2.3	4.3	4.5	2.8
2001.3/4	3.3	6.7	2.8	2.5	2.3	0.8	2.3	3.9	5.0	2.9
4/4	3.3	7.2	2.6	2.1	2.2	1.0	2.3	3.9	4.7	2.8
2002.1/4	3.7	7.8	3.0	2.3	2.3	1.4	2.6	4.3	5.0	3.3
2/4	3.0	6.3	2.7	1.8	1.8	1.0	2.0	3.4	4.6	2.8
3/4	2.8	6.0	2.6	1.8	1.6	0.9	1.9	3.2	4.3	2.6
4/4	2.9	6.4	2.8	1.6	1.5	0.8	1.9	3.2	4.8	2.8
2003.1/4	3.6	8.4	2.8	2.0	2.2	0.9	2.0	4.3	5.5	3.2
2/4	3.3	7.3	2.8	2.0	2.1	0.8	1.8	3.9	5.1	3.0
3/4	3.3	7.0	2.9	2.2	2.0	0.8	2.2	4.0	4.5	2.8
4/4	3.4	8.0	3.0	2.1	1.8	1.0	2.2	4.3	4.5	2.7
2004.1/4	3.8	8.9	2.8	2.4	2.2	1.2	2.5	4.6	5.1	3.2
2/4	3.3	7.7	2.7	2.0	2.2	1.1	2.2	3.9	4.9	2.9
3/4	3.4	7.2	3.0	2.2	2.1	1.1	2.4	4.1	4.2	2.6
4/4	3.4	7.7	3.0	2.1	2.1	0.9	2.3	4.5	3.8	2.4
2002. 9	2.6	5.6	2.4	1.7	1.4	0.9	1.7	2.9	4.3	2.6
10	2.8	6.0	2.8	1.6	1.3	0.7	1.6	3.1	4.8	2.8
11	2.8	6.2	2.8	1.6	1.4	0.7	1.8	3.1	4.7	2.8
12	3.1	7.0	2.7	1.6	1.8	0.9	2.2	3.4	4.9	2.7
2003. 1	3.5	8.3	2.7	1.9	2.1	1.0	2.1	4.5	5.0	2.6
2	3.7	8.7	2.8	2.0	2.2	0.8	2.0	4.4	5.6	3.3
3	3.6	8.2	2.8	2.1	2.4	1.0	2.0	4.0	6.0	3.6
4	3.3	7.3	2.8	2.0	2.1	0.9	1.8	3.8	5.4	3.1
5	3.2	7.2	2.7	2.0	2.0	0.8	1.7	3.8	5.3	3.0
6	3.3	7.4	2.8	2.0	2.1	0.7	1.8	4.0	4.7	3.0
7	3.4	7.5	2.8	2.1	2.0	0.9	2.1	4.2	4.4	2.7
8	3.3	6.9	2.9	2.4	2.1	0.8	2.3	3.8	4.8	2.9
9	3.2	6.6	3.0	2.1	2.0	0.8	2.1	3.8	4.3	2.7
10	3.3	7.3	3.1	2.0	1.9	0.9	2.0	4.1	4.5	2.8
11	3.4	8.0	2.9	2.1	1.7	1.0	2.1	4.3	4.6	2.8
12	3.6	8.6	2.8	2.1	1.8	1.2	2.5	4.6	4.5	2.4
2004. 1	3.7	8.8	2.9	2.1	2.1	1.3	2.7	4.8	4.3	2.5
2	3.9	9.1	2.9	2.4	2.3	1.3	2.6	4.5	5.5	3.5
3	3.8	8.8	2.7	2.7	2.3	1.0	2.3	4.4	5.4	3.5
4	3.4	7.6	2.9	2.2	2.3	1.1	2.2	4.0	5.3	3.1
5	3.4	7.7	2.7	2.0	2.2	1.2	2.2	3.9	5.3	2.8
6	3.2	7.8	2.6	1.8	2.0	0.9	2.3	3.9	4.0	2.7
7	3.5	7.6	3.0	2.1	2.2	1.1	2.5	4.3	4.1	2.6
8	3.5	7.3	3.1	2.4	2.2	1.1	2.5	4.0	4.8	2.9
9	3.2	6.7	2.9	2.1	2.1	1.0	2.1	4.0	3.7	2.5
10	3.3	7.2	3.0	2.1	2.0	0.9	2.1	4.2	4.0	2.4
11	3.3	7.3	2.9	2.1	2.1	1.0	2.4	4.2	3.8	2.3
12	3.7	8.5	3.2	2.1	2.3	0.9	2.3	5.0	3.5	2.5
2005. 1	3.9	8.7	3.4	2.5	2.3	1.2	3.0	5.1	4.1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2〉 성별·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7.8	14.1	6.2	6.3	6.6	3.3	5.7	9.9	4.8	4.4	3.1	1.3
1999	7.2	12.8	5.7	5.8	6.5	3.3	5.1	8.8	4.5	4.2	3.0	1.0
2000	4.7	8.9	3.9	3.8	3.7	1.9	3.3	6.3	2.6	2.6	1.7	0.6
2001	4.3	8.7	3.4	3.3	3.2	1.6	3.1	6.2	2.3	2.2	1.6	0.4
2002	3.5	8.0	3.1	2.1	2.2	1.3	2.5	5.3	2.2	1.5	1.2	0.6
2003	3.6	8.9	3.0	2.2	2.4	1.2	3.1	6.5	2.6	1.9	1.4	0.5
2004	3.7	9.2	3.1	2.3	2.6	1.4	3.1	6.6	2.6	2.1	1.5	0.6
2001.3/4	3.7	8.0	3.1	2.7	2.8	1.3	2.7	5.3	2.2	2.3	1.5	0.4
4/4	3.7	8.6	3.0	2.4	2.6	1.3	2.7	5.7	2.1	1.7	1.5	0.5
2002.1/4	4.0	8.9	3.3	2.5	2.9	1.8	3.2	6.7	2.5	1.9	1.4	0.9
2/4	3.4	7.7	2.9	2.2	2.1	1.3	2.4	5.0	2.2	1.3	1.2	0.7
3/4	3.2	7.3	2.9	2.1	1.9	1.2	2.3	4.6	2.1	1.3	1.1	0.6
4/4	3.3	8.2	3.1	1.8	1.8	1.0	2.3	4.7	2.2	1.3	1.0	0.4
2003.1/4	3.8	9.5	2.9	2.1	2.7	1.2	3.3	7.3	2.5	1.8	1.3	0.5
2/4	3.5	8.5	2.8	2.2	2.4	1.2	3.0	6.2	2.7	1.8	1.4	0.3
3/4	3.5	8.3	3.0	2.3	2.4	1.2	2.9	5.7	2.7	2.0	1.4	0.5
4/4	3.7	9.2	3.1	2.2	2.2	1.3	3.1	6.7	2.6	1.9	1.3	0.7
2004.1/4	3.9	9.8	2.9	2.5	2.6	1.5	3.7	8.0	2.7	2.3	1.6	0.8
2/4	3.5	8.9	2.9	2.0	2.5	1.4	3.1	6.6	2.4	2.1	1.6	0.6
3/4	3.7	8.7	3.2	2.3	2.6	1.4	2.9	5.7	2.7	2.0	1.5	0.7
4/4	3.8	9.5	3.3	2.3	2.6	1.4	2.8	5.9	2.5	1.8	1.5	0.3
2002. 9	3.0	7.0	2.8	1.9	1.6	1.2	2.1	4.2	1.9	1.3	1.0	0.5
10	3.2	7.6	3.1	2.0	1.6	1.1	2.1	4.5	2.3	1.1	0.9	0.2
11	3.3	7.9	3.2	1.8	1.7	0.9	2.2	4.5	2.1	1.2	0.8	0.4
12	3.5	9.1	3.0	1.7	2.2	1.1	2.5	4.9	2.1	1.6	1.3	0.5
2003. 1	3.7	9.3	2.9	2.0	2.4	1.3	3.3	7.3	2.5	1.7	1.4	0.4
2	3.9	9.9	3.0	2.1	2.8	1.1	3.4	7.5	2.4	1.8	1.2	0.4
3	3.8	9.3	2.9	2.2	3.0	1.1	3.3	7.0	2.6	1.9	1.5	0.8
4	3.5	8.5	2.8	2.1	2.5	1.4	3.0	6.1	2.9	1.9	1.4	0.4
5	3.4	8.4	2.8	2.2	2.3	1.1	2.9	6.1	2.6	1.8	1.5	0.4
6	3.5	8.5	2.8	2.3	2.5	1.1	2.9	6.3	2.6	1.7	1.4	0.2
7	3.6	8.6	2.9	2.3	2.3	1.3	3.1	6.4	2.6	1.9	1.6	0.5
8	3.6	8.2	3.0	2.5	2.5	1.1	2.9	5.7	2.7	2.2	1.4	0.4
9	3.5	8.2	3.1	2.2	2.4	1.1	2.7	5.1	2.9	2.0	1.4	0.6
10	3.6	9.0	3.2	2.2	2.2	1.1	2.9	5.6	2.8	1.9	1.4	0.7
11	3.6	8.9	3.1	2.2	2.0	1.3	3.2	7.1	2.6	2.0	1.2	0.7
12	3.8	9.8	3.0	2.3	2.2	1.6	3.3	7.3	2.5	1.8	1.2	0.6
2004. 1	4.0	10.4	3.0	2.2	2.4	1.6	3.4	7.2	2.6	1.9	1.5	0.9
2	4.0	9.8	2.9	2.6	2.9	1.6	3.9	8.4	3.0	2.2	1.5	0.9
3	3.7	9.1	2.8	2.6	2.6	1.2	3.9	8.4	2.6	2.8	1.8	0.6
4	3.5	8.2	3.1	2.2	2.7	1.4	3.4	7.0	2.7	2.2	1.8	0.6
5	3.6	9.1	2.8	2.0	2.6	1.6	3.1	6.4	2.4	2.1	1.5	0.7
6	3.5	9.3	2.9	1.8	2.3	1.2	2.9	6.3	2.2	1.9	1.5	0.6
7	3.8	9.2	3.3	2.2	2.6	1.4	3.0	6.0	2.5	2.0	1.5	0.6
8	3.7	8.7	3.4	2.4	2.8	1.5	3.0	6.0	2.7	2.3	1.2	0.8
9	3.4	8.2	3.0	2.4	2.3	1.2	2.8	5.2	2.9	1.8	1.6	0.7
10	3.6	8.8	3.3	2.2	2.4	1.3	2.7	5.7	2.5	1.9	1.3	0.3
11	3.8	9.2	3.2	2.3	2.5	1.6	2.7	5.5	2.3	1.8	1.5	0.3
12	4.0	10.5	3.4	2.3	2.7	1.3	3.1	6.6	2.7	1.8	1.6	0.3
2005. 1	4.2	9.9	3.5	2.8	2.9	1.4	3.6	7.5	3.1	2.2	1.3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3〉 성별·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8.1	8.9	8.7	5.0	3.9	7.3	8.2	4.8
1999	7.3	8.1	8.1	4.7	3.4	6.8	6.9	4.1
2000	4.7	5.1	6.6	3.2	2.1	4.2	5.1	2.9
2001	4.1	4.5	5.8	3.3	1.8	4.0	4.8	2.8
2002	2.9	3.8	4.9	2.9	1.4	3.1	4.4	2.7
2003	2.6	4.3	4.9	2.7	1.5	3.8	4.8	3.4
2004	3.1	4.5	4.2	2.6	1.6	3.9	4.8	3.3
2001. 3/4	3.2	4.1	5.3	3.0	1.6	3.5	4.7	2.7
4/4	3.3	4.0	5.3	3.0	1.5	3.8	4.1	2.2
2002. 1/4	3.6	4.4	4.9	3.3	1.8	4.1	5.1	3.4
2/4	2.8	3.6	4.6	3.0	1.3	2.9	4.7	2.6
3/4	2.7	3.5	4.6	2.6	1.3	2.7	3.9	2.5
4/4	2.6	3.5	5.5	2.9	1.3	2.7	3.9	2.5
2003. 1/4	2.6	4.5	5.3	2.9	1.5	3.9	5.9	3.9
2/4	2.4	4.0	5.2	2.8	1.2	3.7	5.0	3.6
3/4	2.8	4.1	4.6	2.7	1.6	3.7	4.3	2.8
4/4	2.7	4.6	4.7	2.5	1.7	4.0	4.2	3.1
2004. 1/4	3.3	4.7	4.6	2.8	1.9	4.5	5.6	4.2
2/4	2.8	4.2	4.3	2.6	1.6	3.5	5.5	3.4
3/4	3.3	4.3	4.2	2.6	1.5	3.8	4.3	2.8
4/4	3.2	5.0	3.9	2.3	1.5	3.7	3.7	2.8
2002. 9	2.4	3.2	4.9	2.6	1.2	2.4	3.5	2.5
10	2.5	3.4	5.4	2.8	0.9	2.6	4.0	2.8
11	2.4	3.4	5.2	3.0	1.2	2.6	4.1	2.2
12	2.8	3.7	5.9	2.8	1.7	2.8	3.8	2.6
2003. 1	2.5	4.6	5.2	2.4	1.7	4.3	4.8	3.2
2	2.8	4.7	5.3	3.0	1.2	4.1	6.1	4.1
3	2.6	4.3	5.3	3.3	1.5	3.5	6.7	4.3
4	2.5	3.9	5.5	3.0	1.3	3.7	5.2	3.5
5	2.3	4.0	5.4	2.7	1.2	3.5	5.2	3.8
6	2.6	4.1	4.8	2.7	1.2	3.8	4.5	3.5
7	2.8	4.3	4.5	2.6	1.6	4.1	4.2	3.0
8	3.0	4.0	4.7	2.8	1.6	3.5	4.9	2.9
9	2.6	4.1	4.6	2.8	1.7	3.4	3.9	2.6
10	2.5	4.4	5.0	2.7	1.5	3.7	3.8	3.1
11	2.5	4.5	4.5	2.5	1.7	3.9	4.7	3.5
12	3.1	4.8	4.7	2.2	1.9	4.3	4.2	2.7
2004. 1	3.4	5.0	4.7	2.4	1.9	4.6	3.7	2.7
2	3.5	4.7	4.4	2.9	1.8	4.3	6.7	5.1
3	2.8	4.3	4.6	3.0	1.9	4.5	6.3	4.6
4	2.6	4.2	4.6	2.7	1.8	3.6	6.2	4.1
5	2.7	4.2	4.8	2.7	1.6	3.4	5.9	3.1
6	3.1	4.1	3.6	2.6	1.6	3.6	4.4	2.9
7	3.7	4.5	3.7	2.6	1.5	3.9	4.6	2.5
8	3.4	4.3	4.9	2.7	1.7	3.6	4.7	3.2
9	3.0	4.2	3.9	2.5	1.4	3.7	3.5	2.6
10	3.0	4.5	4.1	2.4	1.4	3.6	3.8	2.6
11	3.3	4.8	4.0	2.2	1.5	3.3	3.5	2.6
12	3.2	5.5	3.5	2.3	1.5	4.1	3.6	3.1
2005. 1	3.9	5.3	3.9	2.4	2.1	4.7	4.5	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4〉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천명, %)

	당월입직(입직률)	신규채용(신규채용률)	당월이직(이직률)	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율)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2003	153.5 (2.39)	139.9 (2.18)	158.7 (2.47)	142.8 (2.22)
2001. 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 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 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4	154.8 (2.40)	139.7 (2.17)	165.2 (2.56)	146.9 (2.28)
3/4	137.6 (2.14)	126.6 (1.97)	144.0 (2.24)	130.8 (2.04)
4/4	134.6 (2.11)	125.8 (1.97)	139.4 (2.18)	128.4 (2.01)
2004. 1/4	171.6 (2.73)	152.0 (2.42)	172.0 (2.73)	150.6 (2.39)
2/4	132.5 (2.11)	118.4 (1.88)	147.0 (2.34)	130.7 (2.08)
3/4	124.1 (1.99)	109.0 (1.75)	135.3 (2.17)	117.7 (1.89)
2002. 6	142.0 (2.35)	130.5 (2.16)	149.0 (2.47)	114.2 (1.89)
7	160.4 (2.66)	145.3 (2.41)	148.0 (2.46)	115.0 (1.91)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5	143.6 (2.22)	129.8 (2.01)	169.6 (2.63)	148.0 (2.29)
6	145.1 (2.26)	135.3 (2.10)	155.7 (2.42)	144.5 (2.25)
7	144.9 (2.26)	132.8 (2.07)	146.1 (2.27)	131.8 (2.05)
8	134.9 (2.10)	124.1 (1.93)	146.8 (2.29)	133.4 (2.08)
9	132.9 (2.07)	122.9 (1.92)	139.0 (2.17)	127.3 (1.99)
10	147.2 (2.30)	137.4 (2.15)	154.8 (2.42)	143.0 (2.23)
11	128.9 (2.02)	120.6 (1.89)	139.9 (2.19)	128.1 (2.00)
12	127.7 (2.00)	119.4 (1.87)	123.5 (1.98)	114.2 (1.79)
2004. 1	158.1 (2.51)	140.1 (2.22)	166.1 (2.63)	148.8 (2.36)
2	165.8 (2.63)	145.8 (2.32)	171.5 (2.72)	144.7 (2.30)
3	190.8 (3.03)	170.3 (2.71)	178.5 (2.84)	158.4 (2.52)
4	143.5 (2.28)	128.9 (2.05)	155.8 (2.47)	136.3 (2.16)
5	127.6 (2.03)	116.6 (1.85)	145.2 (2.31)	127.7 (2.03)
6	126.2 (2.01)	109.8 (1.75)	140.2 (2.23)	128.1 (2.04)
7	131.3 (2.10)	115.6 (1.85)	142.6 (2.28)	123.5 (1.97)
8	123.7 (1.98)	106.9 (1.71)	140.6 (2.25)	122.5 (1.96)
9	117.3 (1.88)	104.6 (1.68)	122.7 (1.97)	107.2 (1.72)
10	120.2 (1.93)	106.7 (1.71)	133.3 (2.14)	113.2 (1.82)
11	113.4 (1.83)	100.0 (1.61)	126.3 (2.03)	111.3 (1.79)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5〉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9	3.39	3.02	3.15	2.93	3.18	2.73	2.72	2.51	1.91	1.85	1.59	1.60
2000	3.22	2.85	3.25	3.10	3.18	2.94	2.86	2.65	2.05	2.13	2.03	1.72
2001	2.80	2.71	2.76	2.87	2.51	2.83	2.23	2.62	1.54	2.19	1.38	1.56
2002	2.89	2.84	2.90	2.91	2.95	2.84	2.36	2.40	1.93	1.97	1.27	1.28
2003	2.65	2.73	2.96	2.96	2.61	2.84	2.12	2.31	2.13	2.15	1.39	1.31
2001. 1/4	3.23	2.92	3.20	3.01	2.70	2.98	2.41	2.75	1.65	3.18	1.76	2.00
2/4	2.86	2.70	2.81	2.96	2.47	2.80	2.05	2.54	1.42	1.94	1.42	1.36
3/4	2.66	2.67	2.53	2.89	2.56	2.77	2.31	2.71	1.73	2.06	1.23	1.34
4/4	2.48	2.55	2.49	2.60	2.30	2.76	2.16	2.47	1.37	1.55	1.11	1.54
2002. 1/4	3.09	2.91	2.86	2.83	3.14	3.03	2.61	2.54	2.04	2.31	1.54	1.61
2/4	2.91	3.02	3.16	3.23	2.86	2.84	2.36	2.51	1.88	2.02	1.37	1.21
3/4	2.82	2.74	2.80	2.84	3.02	2.82	2.31	2.34	1.89	1.82	1.15	1.17
4/4	2.73	2.67	2.77	2.74	2.77	2.68	2.15	2.21	1.89	1.72	1.01	1.12
2003. 1/4	3.30	3.27	3.42	3.47	3.07	3.27	2.65	2.50	2.68	2.52	1.90	1.70
2/4	2.87	2.92	3.04	2.99	2.61	3.11	2.10	2.42	1.96	2.18	1.24	1.17
3/4	2.16	2.58	2.64	2.65	2.39	2.49	1.92	2.22	2.01	1.90	1.36	1.19
4/4	2.28	2.15	2.74	2.74	2.38	2.47	1.80	2.08	1.85	2.01	1.08	1.17
2004. 1/4	2.84	2.98	3.23	3.36	2.77	2.81	2.44	2.45	2.33	2.18	2.13	1.79
2/4	2.41	2.72	2.37	2.64	2.32	2.53	1.88	2.18	1.81	2.01	1.37	1.43
3/4	2.12	2.38	2.25	2.49	2.00	2.26	1.86	2.18	1.89	1.88	1.56	1.35
2002. 7	3.11	3.00	3.03	2.82	3.11	2.77	2.48	2.24	2.00	1.73	1.34	1.31
8	2.79	2.54	2.68	3.16	3.07	3.08	2.22	2.41	1.80	1.77	0.99	1.07
9	2.56	2.69	2.69	2.54	2.89	2.61	2.24	2.35	1.88	1.96	1.12	1.14
10	2.88	3.08	2.96	2.98	3.05	2.77	2.16	2.50	1.99	1.84	1.09	1.16
11	3.09	2.44	2.81	2.62	2.98	2.77	2.26	2.18	1.84	1.68	1.06	1.17
12	2.22	2.49	2.54	2.63	2.29	2.49	2.03	1.94	1.85	1.63	0.88	1.02
2003. 1	3.05	3.12	3.47	3.26	2.62	2.93	2.84	2.40	2.80	2.23	1.84	1.48
2	2.98	3.27	3.13	3.21	2.78	3.11	2.33	2.55	2.35	2.49	1.66	1.62
3	3.87	3.42	3.66	3.93	3.80	3.77	2.79	2.56	2.89	2.84	2.21	2.01
4	3.32	3.17	3.34	3.10	2.95	3.08	2.39	2.46	2.10	2.30	1.54	1.22
5	2.69	2.78	2.69	3.03	2.43	3.35	2.09	2.51	1.94	2.09	1.09	1.21
6	2.59	2.80	3.09	2.85	2.45	2.89	1.80	2.28	1.86	2.16	1.10	1.06
7	2.25	2.33	2.91	2.83	2.39	2.49	1.94	2.23	2.16	1.96	1.49	1.29
8	2.01	2.78	2.58	2.63	2.42	2.48	1.88	2.32	1.88	1.90	1.37	1.21
9	2.22	2.63	2.44	2.49	2.35	2.49	1.94	2.11	1.99	1.85	1.22	1.05
10	2.58	2.67	3.09	2.88	2.48	2.75	1.94	2.38	1.78	2.27	1.22	1.18
11	2.02	1.94	2.61	2.92	2.40	2.55	1.77	1.98	1.69	2.03	1.01	1.14
12	2.23	1.85	2.53	2.43	2.26	2.12	1.68	1.88	2.09	1.73	1.00	1.18
2004. 1	2.77	3.04	2.93	3.29	2.55	2.73	2.19	2.23	2.20	2.08	1.90	1.58
2	2.82	2.61	3.33	3.63	2.61	2.63	2.41	2.58	2.02	2.23	1.76	1.80
3	2.92	3.30	3.44	3.15	3.15	3.07	2.72	2.54	2.78	2.24	2.72	2.00
4	2.52	2.88	2.59	2.60	2.56	2.75	2.06	2.49	1.89	2.03	1.44	1.54
5	2.43	2.56	2.26	2.80	2.13	2.46	1.84	2.03	1.78	2.16	1.35	1.35
6	2.27	2.71	2.27	2.52	2.27	2.39	1.73	2.01	1.75	1.83	1.32	1.40
7	2.49	2.58	2.24	2.72	2.11	2.17	1.97	2.22	1.98	2.04	1.60	1.53
8	1.95	2.28	2.36	2.59	1.94	2.51	1.83	2.37	1.96	1.81	1.62	1.30
9	1.93	2.28	2.15	2.16	1.95	2.10	1.79	1.94	1.72	1.80	1.46	1.23
10	2.00	2.05	2.26	2.25	2.14	2.19	1.67	1.81	1.69	2.23	1.38	2.30
11	2.15	1.86	1.91	2.31	2.25	2.41	1.55	1.99	1.45	1.70	1.13	1.37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이며,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6〉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1998	-	-	26.7	36.3	26.6	37.4	18.0	26.3	4.1	8.3	10.9	21.5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2003	25.2	21.9	44.9	44.9	38.0	41.3	22.8	24.8	7.7	7.8	15.0	14.0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4	27.4	27.8	46.0	45.3	38.2	45.5	22.7	26.2	7.2	8.0	13.3	12.5
3/4	20.5	24.5	40.1	40.2	34.5	35.9	20.6	23.8	7.3	6.9	14.6	12.7
4/4	21.4	20.2	41.6	41.6	34.2	35.6	19.1	22.1	6.7	7.3	11.6	12.6
2004. 1/4	28.9	30.3	51.1	53.1	39.4	39.9	24.5	24.7	7.5	7.1	20.1	16.9
2/4	24.4	27.5	37.4	41.7	32.9	35.9	18.9	21.9	5.9	6.5	13.0	13.6
3/4	21.3	23.9	35.2	38.9	28.2	31.9	18.5	21.7	6.1	6.1	14.8	12.9
2002. 7	29.0	28.0	45.7	42.5	43.5	38.7	23.9	21.6	6.0	5.2	12.3	12.1
8	26.1	23.8	40.6	47.9	43.0	43.2	21.4	23.3	5.4	5.3	9.2	9.9
9	24.0	25.2	40.5	38.2	40.5	36.6	21.6	22.7	5.6	5.8	10.4	10.5
10	27.0	28.9	44.6	44.9	42.9	39.0	20.8	24.0	5.9	5.5	10.1	10.7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24.7	26.7	46.7	43.1	35.7	42.1	19.4	24.6	6.8	7.9	11.8	11.3
7	21.4	22.2	44.1	42.9	34.7	36.1	20.9	24.0	7.8	7.1	16.0	13.8
8	19.1	26.4	39.1	39.9	35.0	35.8	20.2	24.8	6.8	6.9	14.7	13.0
9	20.9	24.8	37.0	37.7	33.9	35.9	20.7	22.5	7.2	6.7	13.1	11.3
10	24.2	25.1	46.8	43.7	35.8	39.8	20.7	25.4	6.5	8.3	13.1	12.7
11	19.0	18.2	39.6	44.3	34.5	36.7	18.8	21.0	6.1	7.4	10.9	12.3
12	21.0	17.4	38.4	36.8	32.4	30.4	17.8	19.9	7.5	6.2	10.7	12.7
2004. 1	28.3	30.9	46.5	52.3	36.3	38.8	22.0	22.5	7.1	6.7	17.9	14.9
2	28.7	26.5	52.6	57.4	37.0	37.3	24.3	26.0	6.5	7.2	16.7	17.1
3	29.7	33.6	54.3	49.6	44.8	43.6	27.3	25.5	9.0	7.3	25.7	18.9
4	25.6	29.2	40.9	41.1	36.5	39.1	20.7	25.1	6.1	6.6	13.7	14.7
5	24.6	25.9	35.7	44.3	30.3	34.8	18.5	20.4	5.8	7.0	12.8	12.8
6	22.9	27.4	35.6	39.7	32.1	33.8	17.3	20.2	5.7	5.9	12.5	13.3
7	25.0	25.9	35.2	42.6	29.8	30.7	19.7	22.2	6.4	6.6	15.2	14.6
8	19.6	22.9	36.9	40.5	27.3	35.5	18.2	23.6	6.3	5.8	15.4	12.4
9	19.3	22.9	33.5	33.6	27.3	29.5	17.7	19.2	5.6	5.8	14.0	11.8
10	19.9	20.5	35.2	35.1	29.9	30.7	16.5	17.9	5.5	7.2	13.2	22.0
11	21.4	18.5	29.8	35.9	31.5	33.8	15.3	19.6	4.7	5.5	10.7	13.0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7〉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2003	2.38	2.52	2.76	2.68	2.48	2.72	3.11	3.20	1.97	2.31	1.75	1.73	3.36	2.83
2001. 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 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 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4	2.42	2.66	2.70	2.73	2.57	2.98	2.83	3.26	1.99	2.50	1.84	1.81	3.53	3.31
3/4	2.15	2.22	2.45	2.39	2.00	2.58	3.15	3.62	1.81	2.07	1.45	1.50	3.58	3.24
4/4	2.18	2.28	2.56	2.43	2.34	2.36	3.27	2.99	1.78	2.42	1.39	1.14	3.15	3.11
2004. 1/4	2.55	2.49	3.21	3.23	2.87	3.07	2.72	3.62	1.92	2.09	2.37	2.55	3.17	3.40
2/4	2.13	2.38	2.54	2.87	2.24	2.39	2.86	3.69	1.81	2.16	1.68	1.51	1.86	2.37
3/4	2.03	2.07	2.60	2.39	2.01	2.16	2.69	3.40	1.64	1.91	1.54	1.91	1.76	2.31
2002. 8	2.47	2.54	2.41	2.78	2.69	2.50	3.06	3.76	2.14	2.13	2.51	2.52	3.25	3.35
9	2.41	2.29	2.19	2.05	2.49	2.53	3.81	3.73	2.31	2.22	1.56	1.13	3.22	3.70
10	2.67	2.61	2.85	2.64	2.74	3.01	3.99	4.07	2.08	1.98	1.36	2.05	3.29	3.38
11	2.70	2.43	2.59	2.23	2.87	2.28	2.91	2.32	2.24	2.47	1.62	1.48	3.51	3.20
12	2.23	2.24	2.74	2.59	2.36	2.19	2.46	4.01	1.95	1.94	1.14	1.55	2.75	3.02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5	2.22	2.70	3.01	2.89	2.03	2.95	2.73	3.43	1.74	3.03	1.69	2.12	3.36	3.33
6	2.34	2.64	1.92	1.91	2.55	2.54	2.53	2.90	1.82	2.22	1.20	1.30	3.90	3.32
7	2.25	2.19	2.91	3.03	2.28	2.63	2.69	3.40	1.86	2.28	1.59	1.59	3.78	3.33
8	2.15	2.30	2.24	1.95	1.80	2.79	2.81	3.37	1.75	1.91	1.58	1.73	3.85	3.34
9	2.05	2.15	2.19	2.18	1.93	2.30	3.95	4.10	1.80	2.02	1.17	1.17	3.10	3.05
10	2.36	2.49	2.23	2.36	2.94	2.73	2.93	2.75	1.90	2.85	1.85	1.36	3.12	3.04
11	2.20	2.36	2.42	2.36	1.98	2.43	2.52	2.81	1.76	2.37	1.27	1.20	3.67	3.53
12	1.98	2.00	3.02	2.56	2.09	1.91	4.35	3.41	1.67	2.02	1.06	0.88	2.65	2.75
2004. 1	2.29	2.36	3.40	3.80	2.93	3.27	2.48	3.12	1.90	2.19	2.04	2.07	2.85	2.80
2	2.53	2.60	3.13	3.07	3.58	2.50	1.60	4.37	1.92	2.08	2.72	2.96	3.03	5.18
3	2.84	2.50	3.08	2.83	2.12	3.43	4.13	3.37	1.93	2.00	2.34	2.61	3.65	2.19
4	2.30	2.38	2.42	2.92	2.29	2.65	2.92	3.35	2.13	2.68	2.10	2.01	1.67	2.28
5	1.95	2.42	2.41	2.76	2.37	2.05	3.02	4.52	1.76	1.98	1.51	1.27	2.15	3.04
6	2.13	2.32	2.78	2.93	2.07	2.47	2.63	3.20	1.55	1.83	1.42	1.25	1.77	1.79
7	2.12	2.15	2.75	2.81	1.77	2.25	3.25	2.62	1.83	2.10	1.73	2.32	1.92	2.19
8	2.02	2.14	2.65	2.56	2.23	2.10	2.21	3.69	1.49	1.84	1.99	2.42	1.61	2.62
9	1.95	1.93	2.42	1.81	2.04	2.12	2.60	3.88	1.60	1.79	0.90	1.00	1.75	2.14
10	2.06	2.42	1.80	1.96	2.28	2.35	2.83	3.03	1.31	1.78	1.06	1.08	2.11	2.03
11	2.00	2.24	2.55	1.93	1.74	2.29	2.63	3.24	1.46	1.45	1.08	1.15	1.71	2.15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도소매는 1999~2001년에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수리업, 2002년 이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의미. 부동산임대는 1999~2001년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02년 이후에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1>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단위 :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544 (-)	1,102 (-)	117 (-)	325 (-)
2000		1,668 (8.0)	1,182 (7.2)	133 (14.1)	352 (8.5)
2001		1,752 (5.1)	1,257 (6.3)	131 (-1.6)	365 (3.4)
2002		1,948 (11.2)	1,408 (2.1)	126 (-3.9)	413 (13.4)
2003		2,127 (9.2)	1,532 (8.8)	135 (7.3)	460 (11.4)
2002.	11	1,778 (11.9)	1,425 (12.2)	130 (-2.9)	223 (20.3)
	12	2,563 (15.7)	1,505 (13.3)	135 (2.3)	923 (22.4)
2003.	1	2,384 (35.3)	1,502 (9.0)	128 (10.9)	754 (181.1)
	2	1,962 (-2.7)	1,467 (9.0)	124 (11.3)	371 (-33.8)
	3	1,962 (8.7)	1,514 (9.1)	131 (6.3)	317 (7.8)
	4	2,012 (8.1)	1,503 (8.6)	131 (4.1)	379 (7.5)
	5	1,866 (9.0)	1,519 (8.5)	138 (8.0)	209 (13.5)
	6	2,168 (8.1)	1,520 (8.4)	137 (7.7)	511 (7.3)
	7	2,072 (6.9)	1,531 (8.3)	128 (0.2)	414 (3.8)
	8	2,144 (12.8)	1,536 (8.9)	134 (4.8)	475 (30.5)
	9	2,282 (6.6)	1,543 (8.6)	139 (9.3)	600 (1.1)
	10	2,034 (7.9)	1,545 (8.2)	148 (10.1)	341 (5.9)
	11	1,939 (9.0)	1,553 (9.0)	143 (9.7)	243 (8.6)
	12	2,710 (5.7)	1,652 (9.7)	143 (5.8)	915 (-0.9)
2004.	1	2,388 (0.2)	1,619 (7.8)	131 (2.0)	639 (-15.3)
	2	2,088 (6.4)	1,571 (7.1)	134 (7.7)	383 (3.3)
	3	2,078 (5.9)	1,605 (6.1)	131 (-0.2)	341 (7.8)
	4	2,109 (4.8)	1,598 (6.3)	136 (4.2)	375 (-1.0)
	5	1,989 (6.6)	1,616 (6.4)	142 (3.1)	232 (10.7)
	6	2,247 (3.6)	1,624 (6.9)	137 (0.1)	486 (-4.9)
	7	2,256 (8.9)	1,639 (7.0)	133 (4.0)	484 (17.1)
	8	2,220 (3.5)	1,638 (6.6)	136 (1.8)	447 (-5.9)
	9	2,495 (9.3)	1,652 (7.0)	141 (1.6)	702 (17.1)
	10	2,145 (5.5)	1,653 (7.0)	148 (0.0)	344 (0.9)
	11	2,045 (5.5)	1,659 (6.8)	142 (-1.0)	245 (0.8)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443 (-)	963 (-)	179 (-)	301 (-)
2000		1,568 (8.6)	1,024 (6.4)	205 (14.6)	338 (12.4)
2001		1,659 (5.8)	1,095 (6.9)	204 (-0.6)	361 (6.7)
2002		1,857 (11.9)	1,266 (15.6)	197 (-3.4)	395 (9.4)
2003		2,018 (8.7)	1,372 (8.4)	205 (4.2)	441 (11.7)
2002.	11	1,607 (11.1)	1,282 (15.2)	202 (-3.9)	123 (-0.5)
	12	2,637 (22.8)	1,377 (19.5)	205 (2.1)	1,055 (32.8)
2003.	1	2,315 (41.4)	1,348 (10.1)	198 (10.8)	769 (227.3)
	2	1,831 (-5.6)	1,294 (8.9)	187 (9.8)	351 (-39.7)
	3	1,808 (9.2)	1,369 (10.1)	201 (0.6)	237 (12.5)
	4	1,882 (8.0)	1,341 (8.5)	201 (0.6)	340 (10.7)
	5	1,713 (6.9)	1,354 (7.7)	213 (4.9)	146 (2.3)
	6	2,033 (7.2)	1,356 (7.9)	205 (3.3)	472 (6.8)
	7	1,966 (4.9)	1,364 (7.6)	190 (-4.7)	412 (1.1)
	8	2,059 (12.9)	1,376 (8.5)	202 (0.0)	482 (35.2)
	9	2,146 (5.9)	1,385 (7.9)	208 (6.6)	553 (1.1)
	10	1,963 (6.9)	1,395 (7.0)	228 (8.7)	341 (5.0)
	11	1,781 (10.8)	1,391 (8.5)	216 (6.9)	174 (41.8)
	12	2,722 (3.2)	1,495 (8.5)	213 (4.0)	1,015 (-3.8)
2004.	1	2,307 (-0.3)	1,466 (8.8)	199 (0.1)	642 (-16.5)
	2	2,041 (11.5)	1,410 (9.0)	205 (9.7)	426 (21.5)
	3	1,975 (9.2)	1,469 (7.3)	210 (4.4)	296 (24.6)
	4	2,035 (8.1)	1,449 (8.0)	221 (10.0)	366 (7.4)
	5	1,863 (8.8)	1,464 (8.2)	230 (8.1)	169 (15.7)
	6	2,175 (7.0)	1,470 (8.4)	218 (6.4)	487 (3.2)
	7	2,239 (13.9)	1,474 (8.1)	211 (10.8)	554 (34.4)
	8	2,131 (3.5)	1,483 (7.8)	218 (8.2)	430 (-10.8)
	9	2,441 (13.8)	1,507 (8.8)	227 (9.3)	707 (27.9)
	10	2,088 (6.4)	1,510 (8.3)	238 (4.5)	340 (-0.1)
	11	1,916 (7.6)	1,511 (8.6)	227 (5.0)	178 (2.3)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3〉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 천원/월)

	전 산업		제 조 업		건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427	276	1,284	234	1,502	166	-	-
1999	1,544	325	1,443	301	1,576	245	-	-
2000	1,668	352	1,568	338	1,701	274	-	-
2001	1,752	365	1,659	361	1,687	221	-	-
2002	1,948	413	1,857	395	1,859	251	1,714	305
2003	2,127	460	2,018	441	2,072	278	1,861	349
2002. 11	1,778	223	1,607	123	1,768	125	1,540	129
12	2,563	923	2,637	1,055	2,282	585	2,249	730
2003. 1	2,384	754	2,315	769	2,312	591	2,014	563
2	1,962	371	1,831	351	1,947	264	1,700	238
3	1,962	317	1,808	237	1,918	166	1,746	264
4	2,012	379	1,882	340	1,925	174	1,735	257
5	1,866	209	1,713	146	1,826	78	1,640	142
6	2,168	511	2,033	472	2,061	266	1,887	371
7	2,072	414	1,966	412	2,048	258	1,772	265
8	2,144	475	2,059	482	2,067	254	1,923	409
9	2,282	600	2,146	553	2,313	461	2,017	490
10	2,034	341	1,963	341	1,976	127	1,773	246
11	1,939	243	1,781	174	1,979	100	1,677	144
12	2,710	915	2,722	1,015	2,501	593	2,453	797
2004. 1	2,388	639	2,307	642	2,368	453	1,986	419
2	2,088	383	2,041	426	2,102	218	1,752	229
3	2,078	341	1,975	296	1,971	177	1,883	326
4	2,109	375	2,035	366	2,030	225	1,772	211
5	1,989	232	1,863	169	1,924	76	1,718	135
6	2,247	486	2,175	487	2,102	256	1,938	349
7	2,256	484	2,239	554	2,160	308	1,970	379
8	2,220	447	2,131	430	2,019	167	1,825	221
9	2,495	702	2,441	707	2,428	575	2,230	625
10	2,145	344	2,088	340	1,980	115	1,828	219
11	2,045	245	1,916	178	1,964	113	1,765	152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4〉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천원/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9		1,192	(59.0)	1,376	(68.1)	1,439	(71.3)	1,561	(77.3)	1,794	(88.8)	2,019	(100.0)
2000		1,274	(58.0)	1,497	(68.2)	1,567	(71.4)	1,713	(78.0)	1,973	(89.9)	2,195	(100.0)
2001		1,344	(58.1)	1,606	(69.4)	1,680	(72.6)	1,785	(77.2)	2,135	(92.3)	2,313	(100.0)
2002		1,466	(53.9)	1,705	(62.7)	1,856	(68.3)	2,067	(76.0)	2,357	(86.7)	2,718	(100.0)
2003		1,543	(50.7)	1,808	(59.4)	2,005	(65.9)	2,230	(73.3)	2,474	(81.3)	3,043	(100.0)
2002.	11	1,389	(63.0)	1,604	(72.7)	1,739	(78.8)	1,949	(88.3)	2,200	(99.7)	2,206	(100.0)
	12	1,709	(40.0)	2,082	(48.7)	2,297	(53.8)	2,715	(63.5)	3,175	(74.3)	4,274	(100.0)
2003.	1	1,648	(43.5)	1,939	(51.2)	2,252	(59.5)	2,363	(62.4)	2,671	(70.5)	3,786	(100.0)
	2	1,424	(49.2)	1,677	(58.0)	1,761	(60.9)	2,061	(71.3)	2,351	(81.3)	2,892	(100.0)
	3	1,455	(54.1)	1,748	(65.0)	1,884	(70.1)	2,027	(75.4)	2,161	(80.4)	2,689	(100.0)
	4	1,450	(51.8)	1,695	(60.5)	1,880	(67.1)	2,204	(78.7)	2,448	(87.4)	2,802	(100.0)
	5	1,441	(60.9)	1,687	(71.3)	1,827	(77.2)	1,966	(83.1)	2,111	(89.2)	2,366	(100.0)
	6	1,547	(49.6)	1,800	(57.7)	2,037	(65.3)	2,322	(74.5)	2,589	(83.0)	3,119	(100.0)
	7	1,581	(56.5)	1,798	(64.3)	2,002	(71.6)	2,168	(77.5)	2,362	(84.5)	2,797	(100.0)
	8	1,543	(50.0)	1,820	(59.1)	2,010	(65.2)	2,253	(73.1)	2,515	(81.6)	3,082	(100.0)
	9	1,672	(51.3)	1,953	(60.0)	2,173	(66.7)	2,337	(71.8)	2,621	(80.5)	3,257	(100.0)
	10	1,495	(51.5)	1,694	(58.3)	1,901	(65.5)	2,162	(74.4)	2,418	(83.2)	2,905	(100.0)
	11	1,482	(59.6)	1,712	(68.8)	1,864	(74.9)	2,112	(84.9)	2,233	(89.7)	2,488	(100.0)
	12	1,781	(41.1)	2,180	(50.3)	2,468	(56.9)	2,797	(64.5)	3,221	(74.3)	4,338	(100.0)
2004.	1	1,767	(51.4)	2,068	(60.1)	2,327	(67.6)	2,484	(72.2)	2,816	(81.9)	3,440	(100.0)
	2	1,525	(48.1)	1,798	(56.8)	1,907	(60.2)	2,197	(69.3)	2,576	(81.3)	3,168	(100.0)
	3	1,559	(53.4)	1,845	(63.2)	2,008	(68.7)	2,186	(74.8)	2,343	(80.2)	2,921	(100.0)
	4	1,560	(51.8)	1,785	(59.3)	1,993	(66.2)	2,314	(76.8)	2,635	(87.5)	3,012	(100.0)
	5	1,548	(60.6)	1,838	(72.0)	1,925	(75.4)	2,132	(83.5)	2,287	(89.6)	2,553	(100.0)
	6	1,628	(50.1)	1,926	(59.3)	2,133	(65.7)	2,434	(75.0)	2,707	(83.4)	3,247	(100.0)
	7	1,699	(51.4)	1,941	(58.7)	2,144	(64.9)	2,329	(70.5)	2,694	(81.5)	3,304	(100.0)
	8	1,584	(49.2)	2,016	(62.6)	2,040	(63.3)	2,331	(72.4)	2,680	(83.2)	3,221	(100.0)
	9	1,809	(50.1)	2,161	(59.9)	2,404	(66.6)	2,635	(73.0)	2,892	(80.1)	3,610	(100.0)
	10	1,555	(49.6)	1,836	(58.6)	2,018	(64.4)	2,296	(73.2)	2,629	(83.9)	3,135	(100.0)
	11	1,541	(56.9)	1,839	(67.9)	1,984	(73.3)	2,205	(81.4)	2,440	(90.1)	2,708	(100.0)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500인 이상 대비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5〉 성별·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남성=100)	정액급여	(남성=100)
1998	1,579	1,157	1,006	(63.7)	755	(65.2)
1999	1,735	1,226	1,090	(62.8)	808	(65.9)
2000	1,885	1,320	1,178	(62.5)	870	(65.9)
2001	1,976	1,400	1,257	(63.6)	940	(67.2)
2002	2,193	1,574	1,393	(63.5)	1,035	(65.8)
2003	2,406	1,715	1,501	(62.4)	1,119	(65.3)
2002. 11	1,997	1,592	1,289	(64.6)	1,050	(66.0)
12	2,931	1,691	1,739	(59.3)	1,087	(64.3)
2003. 1	2,684	1,683	1,711	(63.7)	1,095	(65.1)
2	2,226	1,642	1,369	(61.5)	1,073	(65.4)
3	2,220	1,697	1,381	(62.2)	1,101	(64.9)
4	2,278	1,683	1,418	(62.3)	1,099	(65.3)
5	2,100	1,701	1,342	(63.9)	1,111	(65.3)
6	2,450	1,701	1,534	(62.6)	1,114	(65.5)
7	2,334	1,713	1,485	(63.6)	1,123	(65.6)
8	2,433	1,718	1,495	(61.4)	1,126	(65.6)
9	2,576	1,726	1,619	(62.8)	1,133	(65.7)
10	2,298	1,728	1,441	(62.7)	1,133	(65.5)
11	2,188	1,737	1,379	(63.0)	1,139	(65.6)
12	3,094	1,857	1,843	(59.6)	1,189	(64.0)
2004. 1	2,704	1,817	1,686	(62.3)	1,179	(64.9)
2	2,371	1,757	1,458	(61.5)	1,157	(65.8)
3	2,353	1,800	1,464	(62.2)	1,173	(65.2)
4	2,389	1,788	1,487	(62.2)	1,174	(65.7)
5	2,234	1,807	1,444	(64.6)	1,189	(65.8)
6	2,542	1,818	1,587	(62.4)	1,193	(65.6)
7	2,555	1,832	1,589	(62.2)	1,208	(65.9)
8	2,529	1,832	1,532	(60.6)	1,204	(65.7)
9	2,827	1,848	1,753	(62.0)	1,213	(65.6)
10	2,418	1,846	1,534	(63.4)	1,222	(66.2)
11	2,298	1,852	1,479	(64.4)	1,226	(66.2)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6〉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노동부 조사)

(단위 :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06.6 (-)	184.0 (-)	22.6 (-)
2000	204.8 (-0.9)	181.4 (-1.4)	23.4 (-3.5)
2001	202.4 (-1.2)	182.1 (0.4)	20.4 (-12.8)
2002	199.6 (-1.4)	181.6 (-0.3)	18.0 (-11.8)
2003	198.2 (-0.7)	180.6 (-0.6)	17.6 (-2.2)
2002. 11	207.0 (-1.5)	188.7 (-0.8)	18.2 (-8.1)
12	200.4 (-1.0)	181.9 (-0.7)	18.5 (-4.1)
2003. 1	200.0 (-3.1)	182.4 (-3.4)	17.6 (1.7)
2	187.2 (8.5)	170.8 (7.1)	16.4 (2.5)
3	200.8 (-0.4)	182.9 (-0.2)	17.9 (-3.2)
4	202.7 (-0.2)	185.3 (0.3)	17.5 (-5.4)
5	197.9 (-5.8)	179.6 (-6.3)	18.3 (0.0)
6	196.1 (1.4)	178.4 (1.8)	17.7 (-2.2)
7	202.1 (-0.6)	185.4 (0.2)	16.8 (-8.7)
8	193.8 (-3.1)	176.7 (-2.8)	17.1 (-6.0)
9	186.0 (-1.8)	168.7 (-1.7)	17.3 (-1.7)
10	206.7 (-0.5)	187.6 (-0.6)	19.0 (0.5)
11	199.3 (-3.7)	181.3 (-3.9)	18.0 (-1.1)
12	205.8 (2.7)	188.1 (3.4)	17.6 (-4.9)
2004. 1	182.5 (-8.8)	166.4 (-8.8)	16.1 (-8.5)
2	191.7 (2.4)	175.2 (2.6)	16.5 (0.6)
3	204.8 (2.0)	188.1 (2.8)	16.7 (-6.7)
4	198.6 (-2.0)	181.7 (-1.9)	16.9 (-3.4)
5	191.9 (-3.0)	174.3 (-3.0)	17.6 (-3.8)
6	204.4 (4.2)	187.7 (5.2)	16.7 (-5.6)
7	202.0 (0.0)	185.9 (0.3)	16.1 (-4.2)
8	197.3 (1.8)	180.9 (2.4)	16.3 (-4.7)
9	184.3 (-0.9)	167.8 (-0.5)	16.5 (-4.6)
10	199.9 (-3.3)	182.4 (-2.8)	17.5 (-7.9)
11	203.4 (2.1)	186.8 (3.0)	16.6 (-7.8)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7〉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노동부 조사)

(단위 :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16.0 (-)	182.7 (-)	33.3 (-)
2000	213.1 (-1.3)	179.8 (-1.6)	33.3 (0.0)
2001	208.7 (-2.1)	178.9 (-0.5)	29.8 (-10.5)
2002	206.4 (-1.1)	177.7 (-0.7)	28.7 (-3.7)
2003	205.9 (-0.2)	177.9 (0.1)	28.0 (-2.4)
2002. 11	215.7 (-0.5)	186.5 (0.0)	29.1 (-3.6)
12	208.7 (0.7)	179.5 (0.4)	29.1 (2.5)
2003. 1	207.3 (-2.0)	179.3 (-3.1)	28.0 (6.1)
2	194.0 (9.4)	168.0 (10.1)	26.0 (5.3)
3	209.5 (0.4)	180.6 (1.2)	28.8 (-4.3)
4	211.8 (0.0)	183.8 (1.2)	28.1 (-6.3)
5	206.5 (-5.1)	177.2 (-5.7)	29.3 (-1.0)
6	204.9 (1.6)	177.1 (2.5)	27.7 (-3.8)
7	207.0 (-1.3)	180.8 (0.2)	26.2 (-10.6)
8	197.8 (-3.0)	170.8 (-2.3)	27.0 (-6.9)
9	193.5 (-0.9)	166.2 (-0.7)	27.3 (-1.8)
10	215.7 (0.4)	184.9 (0.2)	30.8 (1.7)
11	208.9 (-3.2)	180.0 (-3.5)	28.9 (-0.7)
12	214.0 (2.6)	186.3 (3.8)	27.7 (-4.8)
2004. 1	189.4 (-8.6)	163.6 (-8.8)	25.9 (-7.5)
2	199.5 (2.8)	172.9 (2.9)	26.6 (2.3)
3	213.4 (1.9)	185.2 (2.5)	28.3 (-1.7)
4	207.5 (-2.0)	178.8 (-2.7)	28.8 (2.5)
5	201.9 (-2.2)	172.0 (-2.9)	29.9 (2.0)
6	212.1 (3.5)	184.3 (4.1)	27.8 (0.4)
7	209.5 (1.2)	182.7 (1.1)	26.8 (2.3)
8	200.2 (1.2)	173.0 (1.3)	27.2 (0.7)
9	193.1 (-0.2)	165.4 (-0.5)	27.6 (1.1)
10	208.4 (-3.4)	178.8 (-3.3)	29.7 (-3.6)
11	212.3 (1.6)	184.5 (2.5)	27.8 (-3.8)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8〉 산업별 취업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통계청 조사)

(단위 : 시간/주)

		전산업	제 조 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9		50.4 (-)	50.6 (-)	47.5 (-)	52.2 (-)
2000		50.6 (0.4)	51.0 (0.8)	48.3 (1.7)	52.0 (-0.4)
2001		50.4 (-0.4)	50.6 (-0.8)	48.7 (0.8)	51.7 (-0.6)
2002		49.8 (-1.2)	50.0 (-1.2)	48.2 (-1.0)	51.2 (-1.0)
2003		49.1 (-1.4)	49.6 (-0.8)	47.2 (-2.1)	50.3 (-1.8)
2004		48.7 (-0.8)	49.6 (0.0)	45.7 (-3.2)	49.8 (-1.0)
2002.	12	49.5 (-1.0)	50.1 (-1.1)	48.2 (-1.6)	51.6 (-0.7)
2003.	1	48.8 (-0.4)	50.7 (0.4)	47.1 (2.0)	50.5 (-0.6)
	2	49.1 (-1.3)	50.6 (-0.1)	47.1 (0.8)	50.9 (-1.6)
	3	49.6 (-1.9)	50.8 (-0.9)	47.7 (-3.0)	51.3 (-1.9)
	4	50.1 (-1.7)	50.6 (-1.3)	48.0 (-4.2)	51.4 (-1.8)
	5	50.8 (-0.8)	50.6 (-1.1)	49.5 (0.4)	51.4 (-1.7)
	6	50.6 (0.8)	50.2 (2.7)	48.8 (-0.9)	51.4 (0.6)
	7	47.4 (-2.2)	46.6 (-2.2)	43.9 (-5.5)	48.8 (-1.8)
	8	45.2 (-2.6)	44.8 (-3.8)	43.9 (-0.5)	45.8 (-3.7)
	9	49.3 (-2.2)	49.4 (-2.1)	47.0 (-5.1)	50.3 (-2.4)
	10	50.1 (-1.6)	50.2 (-1.4)	49.1 (-1.2)	50.8 (-1.9)
	11	49.4 (-1.4)	50.0 (-1.4)	47.5 (-3.8)	50.8 (-1.6)
	12	49.0 (-1.0)	50.1 (0.0)	46.8 (-2.9)	50.7 (-1.7)
2004.	1	48.2 (-1.2)	50.2 (-1.0)	45.5 (-3.4)	49.8 (-1.4)
	2	48.5 (-1.2)	49.9 (-1.4)	45.5 (-3.4)	50.0 (-1.8)
	3	49.4 (-0.4)	50.2 (-1.2)	46.4 (-2.7)	50.9 (-0.8)
	4	47.8 (-4.6)	47.5 (-6.1)	45.9 (-4.4)	48.8 (-5.1)
	5	49.6 (-2.4)	49.9 (-1.4)	46.4 (-6.3)	50.4 (-1.9)
	6	49.6 (-2.0)	49.9 (-0.6)	46.2 (-5.3)	50.4 (-1.9)
	7	47.3 (-0.2)	47.6 (2.1)	42.1 (-4.1)	48.8 (0.0)
	8	47.7 (5.5)	49.3 (10.0)	44.2 (0.7)	48.5 (5.9)
	9	49.1 (-0.4)	50.7 (2.6)	45.6 (-3.0)	49.9 (-0.8)
	10	49.6 (-1.0)	50.4 (0.4)	47.2 (-3.9)	50.1 (-1.4)
	11	48.9 (-1.0)	49.9 (-0.2)	46.8 (-1.5)	50.0 (-1.6)
	12	48.5 (-1.0)	49.7 (-0.4)	45.8 (-2.1)	50.0 (-1.4)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에 대한 평균임.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 · 숙박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1〉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 동 조 합 원 수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단위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3	6,103		1,568,723
2002	6,506	2	41	6,463		1,538,499
2003	6,257	2	43	6,112		1,549,949

주 :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자료 : 노동부.

〈표 4-2〉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연맹별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자	여자
총계		6,257	1,549,949	1,223,330	326,619
한국노동총연맹	소계	3,951	831,660	664,981	166,6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63	3,891	2,935	956
	전국섬유유동노동조합연맹	175	34,457	15,938	18,519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3	5,576	5,283	293
	전국전력노동조합	3	14,421	12,640	1,781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43	20,016	14,587	5,429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58	14,521	12,330	2,19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59	29,539	28,242	1,29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64	27,833	27,670	16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84,083	58,285	25,798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4	6,469	5,556	913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664	87,585	68,185	19,40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653	113,538	88,919	24,619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638	77,599	60,642	16,957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60	3,448	2,504	94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556	80,797	79,425	1,372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155	16,680	10,181	6,499
	전국채신노동조합	3	22,535	16,984	5,55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503	95,958	94,939	1,019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16	8,159	6,965	1,194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	4	2,170	1,494	676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9	16,657	11,226	5,431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40	1,054	975	79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18	7,087	5,691	1,396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22	16,016	14,502	1,51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11	4,527	1,257	3,270
	전국에너지노동조합연맹	23	2,568	1,720	848
	한국교원노동조합	1	25,060	9,960	15,100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52	9,416	5,946	3,470
	소계	1,332	673,880	523,419	150,461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131	11,122	7,017	4,10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14	69,393	46,808	22,58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56	19,491	18,261	1,230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6	42,522	12,616	29,9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17	136,868	119,243	17,625
	전국민주화혁신노동조합연맹	188	30,883	27,222	3,661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13	4,150	3,813	33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30	1,291	1,146	14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72	26,493	26,359	134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172	175,730	167,605	8,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95,000	45,600	49,400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20	2,894	253	2,64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06	33,469	32,063	1,406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86	12,243	6,194	6,049
	전국대학노동조합	8	9,848	6,736	3,112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1	1,633	1,633	0
	한국비정규노동조합	1	850	850	0
	상급단체 미가입	974	44,409	34,930	9,479

주 : 1) 조합수에는 지부 · 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 · 민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 노동부.

〈표 4-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직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1	21.9	13.8	15.4	18.5	10.4	17.2
1992	17.8	21.1	11.8	14.6	17.9	9.1	16.4
1993	16.9	20.2	11.0	14.0	17.2	8.7	15.6
1994	16.1	19.6	9.9	13.3	16.6	7.9	14.5
1995	15.1	18.5	9.2	12.5	15.7	7.3	13.8
1996	14.5	18.2	8.3	12.1	15.5	6.6	13.3
1997	13.3	17.3	6.9	11.1	14.7	5.5	12.2
1998	13.7	17.6	6.8	11.4	15.2	5.3	12.6
1999	14.7	18.4	8.3	11.7	15.4	6.1	11.9
2000	14.3	18.3	7.6	11.4	15.3	5.7	12.0
2001	14.2	18.5	7.1	11.5	15.7	5.4	12.0
2002	13.5	17.9	6.7	10.8	14.9	5.1	11.0
2003	13.0	17.1	6.8	10.8	14.5	5.5	11.0

주 :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자료 :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4〉 주요 노사분규 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2	93,859	1,580,404
2003	320	137,241	1,298,663
2004	462	184,969	1,197,201
2002. 1	12	1,272	31,160
2	21	16,615	80,394
3	30	17,531	212,450
4	40	18,021	240,565
5	172	46,148	395,669
6	207	65,334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2	93,859	1,580,404
2003. 1	11	1,324	18,445
2	17	2,382	28,041
3	25	5,214	67,195
4	56	9,211	91,460
5	81	13,954	116,564
6	118	58,478	245,832
7	256	123,144	806,964
8	276	124,205	1,084,443
9	290	126,992	1,148,515
10	302	131,363	1,215,811
11	308	131,775	1,270,270
12	320	137,241	1,298,663
2004. 1	7	20,023	32,902
2	10	20,083	54,455
3	18	21,082	69,038
4	27	28,708	88,288
5	75	35,475	138,423
6	320	128,952	406,057
7	402	151,703	876,228
8	413	168,602	1,010,149
9	433	180,940	1,065,694
10	444	182,252	1,114,833
11	453	183,263	1,160,000
12	462	184,969	1,197,201
2005. 1	9	830	15,578

주 : 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자료 : 노동부.

〈표 4-5〉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 개소,%)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6.7	-
2003		5,751	5,292	92.0	6.4	-
2004		5,909	5,514	93.3	5.2	-
2002.	1	5,401	74	1.4	7.4	-
	2	5,401	154	2.9	7.0	-
	3	5,401	420	7.8	5.5	-
	4	5,401	630	11.7	6.1	-
	5	5,401	1,435	26.6	6.6	-
	6	5,401	2,103	38.9	6.7	-
	7	5,401	2,887	53.5	6.9	-
	8	5,401	3,517	65.1	6.9	-
	9	5,401	4,161	77.0	6.9	-
	10	5,401	4,377	81.0	6.9	-
	11	5,401	4,655	86.2	6.8	-
	12	5,401	4,991	92.4	6.7	-
2003.	1	5,751	107	1.9	5.0	-
	2	5,751	214	3.7	5.9	-
	3	5,751	413	7.2	6.0	-
	4	5,751	718	12.5	6.5	-
	5	5,751	1,306	22.7	6.7	-
	6	5,751	1,856	32.3	6.7	-
	7	5,751	2,491	43.3	6.7	-
	8	5,751	3,372	58.6	6.6	-
	9	5,751	4,503	78.3	6.5	-
	10	5,751	4,700	81.7	6.5	-
	11	5,751	4,958	86.2	6.5	-
	12	5,751	5,292	92.0	6.4	-
2004.	1	5,909	12	0.2	4.4	-
	2	5,909	153	2.6	4.8	-
	3	5,909	450	7.6	5.1	-
	4	5,909	711	12.0	5.3	-
	5	5,909	1,118	18.9	5.2	-
	6	5,909	1,770	30.0	5.4	-
	7	5,909	2,380	40.3	5.5	-
	8	5,909	2,901	49.1	5.5	-
	9	5,909	3,482	58.9	5.5	-
	10	5,909	4,061	68.7	5.5	-
	11	5,909	4,587	77.6	5.5	-
	12	5,909	5,514	93.3	5.2	-

자료 : 노동부.

〈표 4-6〉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5	289	161,150	9,470	-	-	-	-
1966	594	222,456	13,096	-	-	-	-
1967	1,142	336,159	18,207	-	-	-	-
1968	2,389	488,628	22,959	-	-	-	-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80,755	3.19	2.13	7.75
2003	1,006,549	10,599,345	94,924	92,697	3.68	2.35	8.96
2004	1,039,208	10,473,090	88,874	-	-	-	8.49

주: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4)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로서 재해건수, 도수율 및 강도율은 2005년 9월경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4-7〉 산업별 천인을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참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2002	7.75	73.16	12.22	7.19	2.88	7.44
2003	8.96	104.53	14.16	8.61	2.82	8.72
2004	8.49	141.87	12.83	9.40	2.55	7.79

주: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임.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1〉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단위 : 개소, 명)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3,723	4,330,885	248	12,564	194	18,417	17,976	2,158,958	175	52,811
1997	47,427	4,280,430	241	11,423	185	15,990	18,305	2,057,249	180	53,493
1998	400,000	5,267,658	1,108	16,579	784	17,670	97,044	2,224,705	575	53,625
1999	601,394	6,054,479	1,466	18,003	908	17,856	137,659	2,470,361	768	55,170
2000	693,414	6,747,263	1,799	19,705	1,002	17,985	159,200	2,648,856	841	55,440
2001	806,962	6,908,888	2,234	20,567	1,041	16,703	174,510	2,616,162	857	56,545
200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871	57,148
2003	845,910	7,203,347	2,706	20,391	1,113	16,364	179,713	2,642,385	891	58,697
2004	1,002,638	7,576,856	5,292	26,949	1,281	16,250	195,337	2,733,536	1,333	60,975
2002. 9	803,596	7,085,202	2,394	19,524	1,035	16,208	174,364	2,629,125	871	57,768
10	810,158	7,102,108	2,412	19,716	1,043	16,218	175,358	2,627,182	868	57,318
11	817,460	7,141,024	2,425	19,859	1,055	16,145	176,368	2,635,128	868	57,286
1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870	57,148
2003. 1	824,212	7,158,507	2,450	19,066	1,059	16,107	177,379	2,648,260	882	57,167
2	818,388	7,159,428	2,453	19,369	1,066	16,112	177,055	2,646,988	882	57,493
3	815,022	7,181,595	2,486	19,961	1,067	16,147	177,371	2,646,460	870	57,657
4	809,520	7,215,625	2,511	20,344	1,077	16,179	176,283	2,649,987	876	57,808
5	810,752	7,222,142	2,536	20,618	1,089	16,236	176,145	2,646,065	881	57,824
6	814,244	7,185,525	2,531	20,331	1,078	16,215	176,274	2,633,018	877	57,956
7	813,811	7,160,796	2,562	20,301	1,086	16,341	176,006	2,628,942	871	58,050
8	818,455	7,156,950	2,590	20,429	1,087	16,357	176,355	2,625,852	871	58,406
9	820,612	7,151,033	2,615	20,370	1,093	16,368	176,685	2,621,955	877	58,525
10	832,490	7,158,207	2,648	20,391	1,104	16,315	178,322	2,625,256	890	58,418
11	839,192	7,180,015	2,695	20,564	1,115	16,325	179,198	2,634,020	888	58,505
12	845,910	7,203,347	2,706	20,391	1,113	16,364	179,713	2,642,385	891	58,697
2004. 1	846,735	7,217,414	2,776	20,607	1,134	16,538	179,756	2,646,821	884	58,597
2	848,709	7,293,529	2,909	22,499	1,137	16,669	179,962	2,655,668	896	59,021
3	859,230	7,357,988	3,296	23,670	1,137	16,667	179,776	2,667,087	1,020	59,295
4	870,872	7,418,084	3,656	24,663	1,140	16,712	178,978	2,681,971	1,187	59,421
5	889,094	7,460,088	3,881	24,181	1,144	16,671	178,097	2,688,085	1,345	59,595
6	908,689	7,486,494	4,205	24,796	1,139	16,793	178,358	2,694,667	1,389	59,844
7	922,954	7,489,061	4,562	25,199	1,148	16,773	178,623	2,697,323	1,411	60,310
8	936,690	7,492,299	4,803	25,963	1,148	16,697	179,398	2,700,007	1,427	60,693
9	962,217	7,508,316	5,265	26,421	1,205	16,738	183,967	2,709,152	1,419	61,035
10	1,010,183	7,523,984	5,669	26,963	1,230	16,730	189,583	2,713,010	1,498	61,205
11	1,039,943	7,550,835	6,105	27,646	1,248	16,387	192,188	2,723,940	1,557	60,992
12	1,002,638	7,576,856	5,292	26,949	1,281	16,250	195,337	2,733,536	1,333	60,975

주 : 1) 2004년 1월부터 산업분류 바뀜.

2) 고용보험제도 시행초기(1995.7.1)에는 당면적용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이후 10인 이상(1998.1.1), 5인 이상(1998.3.1), 1인 이상(1998.10.1)으로 적용확대됨.

3)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으로 구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1〉의 계속

(단위 : 개소, 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10,101	235,617	2,368	271,405	591	67,061	3,487	486,924	1,699	394,563
1997	12,280	233,198	2,635	278,482	625	66,566	3,566	488,499	1,753	394,015
1998	48,528	364,757	91,968	508,659	30,523	105,923	12,242	529,171	6,971	378,494
1999	68,282	467,226	150,054	637,669	58,604	150,405	16,789	552,243	7,639	385,299
2000	85,996	509,958	166,125	724,676	55,348	167,565	21,102	586,293	7,388	389,633
2001	108,707	529,913	194,997	775,666	70,613	177,902	24,059	578,825	7,619	377,860
200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2. 9	120,969	552,008	190,591	812,940	57,794	176,240	24,172	580,680	7,861	384,215
10	122,381	559,649	191,876	817,066	58,660	176,736	24,361	581,037	7,948	383,565
11	125,035	569,346	193,315	824,242	58,821	175,465	24,528	581,593	8,001	285,750
1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	128,138	571,046	194,621	830,890	58,260	174,788	24,748	582,924	8,020	385,249
2	124,918	567,163	193,789	832,741	56,808	172,529	24,760	581,358	8,021	386,286
3	121,370	567,049	193,456	832,734	55,885	171,777	24,796	580,599	8,025	387,546
4	123,498	572,106	190,691	835,156	53,249	171,212	24,677	580,029	7,970	387,255
5	124,967	573,190	190,533	836,985	52,274	170,495	24,705	578,092	7,978	386,283
6	126,799	569,109	191,051	828,318	52,669	164,905	24,783	574,778	8,000	385,453
7	129,423	562,592	189,830	823,770	51,559	160,340	24,739	571,354	7,939	385,320
8	132,193	560,176	190,528	823,804	51,274	160,385	24,816	568,319	7,932	385,009
9	132,589	557,206	190,773	820,840	51,262	159,568	24,923	566,216	7,942	386,555
10	136,497	557,725	193,344	820,266	52,128	159,551	25,194	559,397	7,987	385,907
11	138,747	559,543	194,780	823,318	52,510	159,598	25,384	559,685	8,024	385,387
12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	138,360	564,737	183,954	764,730	54,072	160,173	25,645	561,137	8,085	383,941
2	139,640	569,625	183,458	772,631	53,298	160,792	25,756	562,399	8,040	384,640
3	150,884	570,856	182,442	776,878	52,035	161,478	25,751	562,708	7,993	384,702
4	167,522	572,797	179,736	780,977	50,682	162,413	25,642	564,206	7,902	384,249
5	185,961	574,166	179,916	783,262	50,681	163,590	25,646	564,959	7,830	384,583
6	198,800	573,100	181,476	783,513	52,428	164,669	25,744	565,506	7,873	385,059
7	211,324	573,137	181,477	782,559	52,430	164,161	25,794	565,077	7,860	383,194
8	222,380	571,849	181,979	778,417	52,369	162,024	25,903	566,405	7,858	384,754
9	228,433	569,957	187,814	778,582	55,373	161,395	26,652	566,354	8,068	385,083
10	238,641	569,108	204,457	779,829	59,101	162,190	27,553	566,322	8,456	384,562
11	250,865	570,039	212,282	781,525	60,973	162,811	27,953	567,319	8,595	383,472
12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표 5-1〉의 계속

(단위: 개소, 명)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기타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099	395,955	322	12,387	1,063	122,232	1,277	90,372	114	11,273
1997	4,697	434,448	325	13,287	1,134	127,369	1,364	94,141	134	12,110
1998	41,218	617,919	20,290	62,335	31,401	217,833	16,982	149,094	365	20,894
1999	58,947	751,283	33,344	96,408	37,529	247,929	28,896	182,980	509	21,647
2000	75,022	905,435	43,832	146,150	40,272	270,642	30,922	209,583	4,565	95,342
2001	87,848	976,486	48,259	161,251	44,911	299,916	36,325	224,315	4,982	96,777
200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133,756
2002. 9	91,667	1,015,620	46,037	179,191	46,515	321,944	34,201	237,932	5,125	101,807
10	92,365	1,018,229	46,476	181,464	46,884	323,077	34,368	238,230	5,140	102,621
11	93,229	1,026,253	46,925	182,749	47,165	324,878	34,545	239,305	5,157	103,025
1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	94,482	1,031,616	47,089	177,047	47,495	325,735	34,403	238,150	5,186	100,462
2	94,783	1,035,574	46,912	175,558	47,611	327,938	34,122	238,813	5,208	101,506
3	95,343	1,038,744	47,183	185,869	47,840	331,788	34,076	241,014	5,254	104,250
4	95,143	1,048,369	46,909	190,327	48,024	336,544	33,314	244,022	5,297	105,285
5	95,586	1,054,505	46,975	191,766	48,545	340,308	33,237	244,225	5,301	105,551
6	95,934	1,054,556	46,841	190,056	48,848	341,538	33,246	243,503	5,313	105,789
7	95,969	1,054,518	46,561	187,431	49,020	343,147	32,897	243,261	5,349	105,429
8	96,682	1,056,134	46,542	186,893	49,280	344,391	32,934	244,612	5,371	106,183
9	97,304	1,057,007	46,673	190,161	49,534	343,872	32,967	244,778	5,373	107,597
10	98,401	1,063,269	47,206	192,333	50,038	345,220	33,327	245,708	5,404	108,451
11	99,208	1,067,734	47,431	192,516	50,244	346,802	33,516	247,080	5,431	108,938
12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	100,548	1,078,142	47,168	185,450	51,077	350,890	47,426	316,533	5,850	109,118
2	101,345	1,106,147	46,984	185,195	51,345	354,563	47,456	323,155	6,483	120,525
3	102,008	1,124,546	46,741	195,592	51,924	361,016	47,318	328,058	6,888	125,435
4	101,749	1,142,249	46,370	201,698	52,275	366,940	46,890	331,557	7,143	128,231
5	101,823	1,156,767	46,087	205,574	52,738	372,018	46,670	334,648	7,275	131,989
6	103,448	1,168,561	46,098	207,363	53,291	376,448	47,122	336,004	7,318	130,171
7	104,053	1,174,192	45,899	204,083	53,647	379,544	47,179	335,534	7,547	127,975
8	104,630	1,174,283	45,889	201,722	53,887	380,660	47,344	336,824	7,675	132,001
9	106,754	1,173,744	46,560	204,256	54,406	382,734	48,394	337,028	7,907	135,837
10	114,043	1,178,421	47,048	207,165	54,957	384,278	49,916	336,831	8,031	137,370
11	116,898	1,185,393	47,206	208,074	55,314	386,079	50,707	328,408	8,052	148,750
12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133,756

〈표 5-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 득	상 실
1996	1,519,322	1,395,985
1997	1,345,231	1,392,542
1998	2,963,828	1,975,706
1999	3,330,353	2,499,662
2000	3,695,723	2,981,558
2001	3,435,154	3,234,745
2002	3,692,771	3,404,669
2003	3,449,449	3,394,502
2004	3,764,995	3,364,005
2001.3/4	859,931	853,254
4/4	830,994	799,740
2002.1/4	955,178	873,050
2/4	941,291	848,816
3/4	867,023	844,678
4/4	929,273	838,125
2003.1/4	941,635	925,890
2/4	911,252	900,868
3/4	804,214	832,783
4/4	792,348	734,961
2004.1/4	1,011,402	859,906
2/4	993,762	858,013
3/4	876,309	842,534
2002. 9	272,038	263,131
10	330,751	312,108
11	328,046	287,345
12	270,476	238,672
2003. 1	294,107	305,396
2	280,359	277,536
3	367,169	342,958
4	341,374	304,880
5	294,602	286,199
6	275,276	309,789
7	305,675	327,997
8	253,373	255,305
9	245,166	249,481
10	287,135	278,796
11	261,507	239,025
12	243,706	217,140
2004. 1	253,211	240,080
2	344,590	272,524
3	413,601	347,302
4	357,811	298,822
5	317,828	272,703
6	318,123	286,488
7	328,403	320,855
8	279,683	272,460
9	268,223	249,219
10	300,352	281,374
11	300,518	269,970
12	282,652	252,208

주: 1) 취득자는 신규, 경력, 기타 취득자의 합.

신규취득자: 학교, 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처음으로 신규 채용된 피보험자.

경력취득자: "신규취득자"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기타취득자: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신분이 바뀐 근로자, 새로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등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3〉 고용보험사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				
		금액	신청자	인정자	인원	금액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원	금액	신규수급	인원	금액
1997		12275	50,991	50,774	199,880	58,873	-	-	-	-	-	-
1998		97449	438,465	434,199	588,006	257,670	-	-	-	-	-	-
1999		184304	327,929	325,220	1,029,156	418,184	-	-	-	-	-	-
2000		113809	260,407	258,727	1,379,987	396,433	-	-	-	-	-	-
2001		129233	349,245	347,388	2,154,046	380,222	-	-	-	-	-	-
2002		90052	299,215	297,109	2,313,973	457,717	22,711	22,601	3,763	-	3,087	-
2003		91573	379,600	375,561	2,228,566	440,114	32,133	33,522	6,816	-	10,576	-
2004		-	471,158	467,362	-	-	38,541	41,570	9,304	-	20,803	-
2002.	9	6,160	21,890	21,767	21,767	21,890	2,251	2,228	409	926	377	
	10	8,464	26,769	26,447	26,447	26,769	2,294	2,266	394	997	415	
	11	8,352	26,359	26,027	26,027	26,359	2,222	2,225	424	989	446	
	12	5,024	23,262	22,954	22,954	23,262	2,231	2,251	454	1,045	497	
2003.	1	7,861	32,796	32,484	32,484	32,796	2,433	2,469	433	1,072	516	
	2	6,731	27,863	27,569	27,569	27,863	2,165	2,219	435	1,038	553	
	3	5,970	30,693	30,383	30,383	30,693	2,495	2,574	520	1,199	712	
	4	7,375	30,931	30,582	30,582	30,931	2,427	2,478	535	1,225	762	
	5	8,223	30,523	29,963	29,963	30,523	2,791	2,876	547	1,237	738	
	6	4,874	30,395	30,078	30,078	30,395	3,123	3,256	575	1,384	850	
	7	8,339	36,711	36,338	36,338	36,711	3,116	3,270	695	1,629	1,011	
	8	9,840	30,800	30,487	30,487	30,800	2,636	2,768	583	1,530	935	
	9	7,428	27,874	27,568	27,568	27,874	2,596	2,759	591	1,644	1,039	
	10	8,757	35,976	35,686	35,686	35,976	2,702	2,842	642	1,797	1,185	
	11	8,736	32,692	32,377	32,377	32,692	2,655	2,822	592	1,648	1,098	
	12	7,443	32,346	32,046	32,046	32,346	2,994	3,189	668	1,845	1,178	
2004.	1	6,618	36,737	36,486	36,486	36,737	2,625	2,801	519	1,675	1,053	
	2	10,067	40,252	39,917	39,917	40,252	3,189	3,435	591	1,749	1,149	
	3	6,469	42,646	42,247	42,247	42,646	3,262	3,458	779	2,016	1,433	
	4	7,379	38,857	38,451	38,451	38,857	2,954	3,128	735	1,922	1,499	
	5	8,613	36,613	36,297	36,297	36,613	3,392	3,679	782	2,027	1,596	
	6	6,999	37,585	37,270	37,270	37,585	3,776	4,006	884	2,283	1,819	
	7	7,566	42,864	42,556	42,556	42,864	3,209	3,464	782	2,229	1,660	
	8	8,661	37,778	37,487	37,487	37,778	3,133	3,398	736	2,375	1,860	
	9	7,690	34,832	34,550	34,550	34,832	2,839	3,088	844	2,463	1,921	
	10	8,064	37,304	37,001	37,001	37,304	3,008	3,271	803	2,717	2,152	
	11	8,983	40,773	40,488	40,488	40,773	3,431	3,761	870	2,840	2,157	
	12	9,898	44,917	44,612	44,612	44,917	3,723	4,081	979	3,143	2,504	

주 : 1) 실업급여사업관련 시계열 자료에는 2004년 1월부터 일용직이 포함.

2) 2004년 통계 완전히 수집되지 않음.

3) 연도별 실적은 매년 말일 기준의 실질지원금액이므로 사업에 따라 12개월간의 월별 지원금액을 합산한 수치와
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출력조건, 기준시점 등의 사유로 인해 타기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4) 고용안정사업의 시계열을 일치시키기 위해 위의 표에서는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고령자·여성재
고용장려금을 빼서 따로 보고하였음.

5) 고용안정사업의 2001년의 경우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17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6) 고용안정사업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 및 지원요건이 변경됨.

7) 모성보호급여사업의 금액은 신규수급인원을 포함한 해당기간의 총수급인원에 대한 지급금액임.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